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월 21일(음력12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457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꽃으로 장엄한 황금마차에 모신 불상을 법주 혜총 스님이 인도 녹야원 내 대각회본당으로 이운하고 있다. 사진=송용호(사이버 강원 붓다의 메아리 대표)

印 녹야원에 한국불상 처음 모셨다

12일 대각회 본당에서 봉안법회
한·인 수교 30년 기념 … 종단협 등 후원

초전법륜지인 인도 녹야원에 한국 전통 양식의 불상이 최초로 모셔졌다.

현대불교신문사는 1월 12일 녹야원에 위치한 대각회본당에서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을 법주로 한국불상 이운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성도절인 지난해 12월 28일 조성 점안식을 가진 석가모니부처님을 인도와 한국불교의식으로 봉안한 이 법회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봉안식에는 암도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융 부산 관음정사 조실을 비롯해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강미리 부산대교수 등 80여 한국불자와 대각회 사무총장 수메다 스님, 히만슈 바라나시 최고위원, 아로라 바라나시 도지사, 미슈라 산스크리트 대학 부총장, 나왕 삼텐 티벳티안대학 부총장과 일본 · 티베트 · 미얀마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녹야원=김주일 기자

신계사 시굴 보고서 발간

조계종, 올해 정식 발굴키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진행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가 보고서로 나왔다.

조계종은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화)과 지난 2003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금강산 신계사 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1월 15일 발간했다.

문화재 분야의 남북 최초 교류인 신계사 시굴조사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불교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문화재 교류 쾌거"

올 상반기 대웅전 기공

이번 조사에서는 물고기를 내몰고 가람을 창건했다는 기록의 창건 설화를 뒷받침하는 물고기 문양의 기와가 대웅전에서 출토됐다. 제한적인 조사로 인해 519년 당시의 유물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고려 중기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은 남 · 북이 2004년부터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금강산 지역뿐만 아니라 북측 지역의 문화재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가진 후 신계사 복원을 위한 대웅전 기공식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질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안성에 불교천문대 세운다

도피안사, 위원회 구성 등 건립불사 착수
대형 망원경 · 각종 자료실 등 첨단시설 계획

'절에 가면 별 볼 일이 있다.'

중중무진의 세계, 천체를 관측하며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할 수 있는 사찰 천문대가 건립된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도솔산 천문대'의 건립을 발원하고 건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최근 "도솔산 천문대를 건립, 각종 강좌를 개설해 천문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찰 천문대가 설립되면 불자들이 보다 쉽게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천문학 자료실과, 전시실,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도솔산 정상 부근에 세워지는 도솔산 천문대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0평 규모로 지어지며 최상층에 지름 1미터 크기의 주 망원경 1대가 설치된다. 또 지름 15㎝의 굴절 망원경 2대와 30㎝ 크기의 반사망원경 2대도 설치된다. 주요 부대시설로는 자료실, 관측자료 전시관, 영상관 등이 들어서며 도서관은 천문학 관련 서적과 일반 과학 서적은 물론 불교 서적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2개로 나누어 꾸밀 계획이다.

도솔산 천문대의 건립을 주도할 위원회도 최근 구성됐다.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을 증명으로 흥교(범어사 전계사), 성타(대구 불교방송 사장), 지환(조계종 기초선원장), 원택(조계종 전 총무부장) 스님과 이시우(천문학 박사), 이순국(신호그룹회장), 윤용숙(여성문제 연구회장) 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과 지도위원회에는 70여명이 동참했으며 불교계 인사는 물론 문화 예술계 인사와 신부, 농업인 등 다양하다. 건립위원회는 천문대의 건립에 약 250여 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천문대 건립과 건립 후 관측 지도 등은 우리나라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인 이시우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된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건립 등을 자문했던 이시우 박사는 "서구에서는 중세부터 별자리 관측 등에 종교계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 가톨릭은 별자리 연구를 매우 깊이 해 왔다"며 "우주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야말로 천문학을 연구와 수행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천문학 교실 … 2월 3일 열어

도피안사는 어린불자들을 위한 제1회 어린이 천문학 교실을 연다. 2월 3일부터 2박3일간 도피안사 파라미타 수행원에서 진행되는 천문학 교실은 '밤별보기' '새벽 별 보기' '별자리 그리기' '별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시우 박사의 특강과 천문학 관측 비디오 감상 시간도 갖는다. 부모와 함께 참석 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만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15만원. (031)676-8700 안성=임연태 기자

"승가교육 제도 개선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12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스님이 되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1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득도' 체계로 개선해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4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사미계를, 2년 전문교육을 마치고 비구계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면

법장 스님은 이를 위해 2월 중으로 (가칭)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틀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1인1사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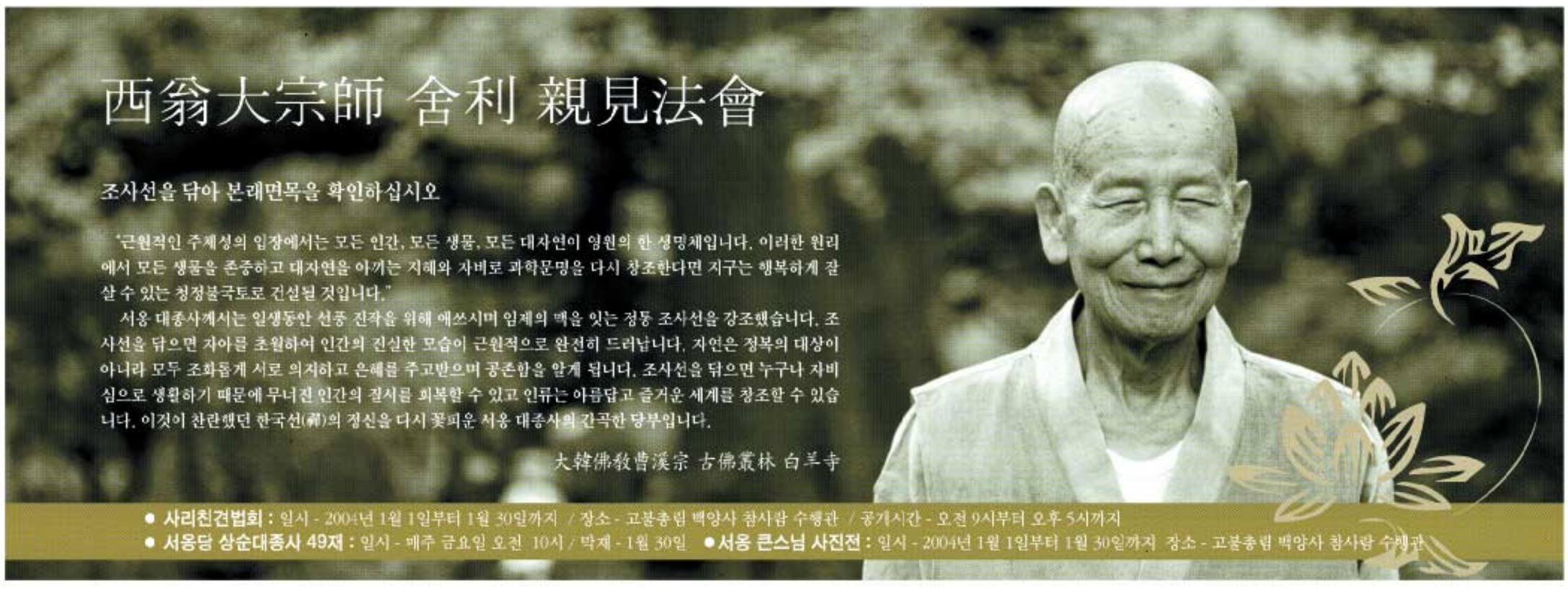
'할'



그림 · 조태호

- 설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금주의 법공양 국제불교승가회 16면
설날연휴 두배로 즐기기 26면





왜 절마다 '의식'이 다른가?

어느 종교든 사상(수행)과 신앙의례를 핵심적인 두 내용 축으로 한다.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두 수레바퀴인 것이다. 어느 한편에 치우침은 종교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삼국~고려의 1000년 불교는 양자의 조화를 바탕으로 성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조 이래 사상과 수행의 쇠락으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는 역설적으로 속화된 신앙의례의 번성을 통해 보완되었다. 일제 시대 이래 불교 정화를 주도한 수행승들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신앙의례의 간소화, 심지어는 기본 예경 외 의례의 폐지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현대불교의 장자교단인 조계종은 종단의 분규와 갈등 속에서도 개별 사찰이나 단체에서 많은 법요집을 간행하였고, 광덕, 월운 스님 등에 의해 선구적인 한글 법요집이 상재되었으며, 1998년에는 개혁종단에 의해 통일법요집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시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례의 종단적 통일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전통의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의례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무리한 시도가 처처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 외면 속 '제각각' 풍토
불교의례委 구성 '모본' 제시

이러한 불교의례의 난맥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조계종의 종파로서의 정체성이 거론될 수 있다. 정화과정에서 수행자 중심의 선종을 표방하며 종교의례를 경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석문의범> 등 전통의례를 비불교적이고 번잡하다 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계종이 모든 의례를 '선종의례'로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재편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의례의 교육이 체계화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스님들에 대한 의례 교육이 제도화된 것은 최근 수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관심의 부족과 교육체계의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신도들에 대한 의례 교육은 관심 밖이다. 승속을 아우르는 의례의 재교육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한국불교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의식 예문의 정비와 현대화(한글화 포함), 의식 절차의 정비는 문제 해결의 방도로 수없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종단의(혹은 범불교계의) 권위 있는 기구는 아직도 설립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한국불교의례위원회(가칭)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는 의식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큰스님(강백), 의식 전문가인 법주, 지역(본사) 단위 대표자등 스님을 주축으로 하여 의식 연구 전문가, 국어학자와 문학자(한글화), 각 예술(음악, 무용, 미술장엄) 전문가 등이 포진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결코 일회적인 과제풀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5년이나 10년 단위로 불교의례의 모본(母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진철승(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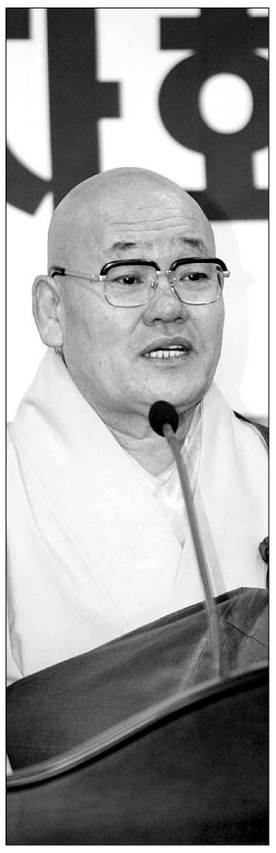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교육제도 개선의지 강한 법장스님 신년회견

"자질 향상 없으면 발전도 없다"

선교육 후득도…의무교육 6년
승려노후복지 기반구축 등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종단 운영방침을 종합하면 종단 내부적으로는 승가교육제도 개선 및 승려노후복지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외부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으로 대사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승가교육제도 개선. 법장 스님은 "현 승가교육 제도는 종단발전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승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 이제 승가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대대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승가가 인천의 사표로서 안목과 위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4년간 공부한 뒤 사미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교육까지 합쳐 최소 6년은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해당국가 스님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3층탑과 대웅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복원불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찰예산제도를 도입해 재정 투명화를 꾀하고, 주지 인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수행체계 정립 △승려노후복지 기반 구축 △징계자의 사면복권 실현 △청년 및 군 포교 강화 △인터넷 포교 활성화 △선의 대중화 △종단 조직 및 종무 운영 혁신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1문1답이다.

▶승가교육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1년에 한 번씩 행자집체교육을 하고 이후에 4년 동안 내 · 외전을 모두 가르친 뒤 사미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찰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는.

-수지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직할사암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에 매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

-북한산 문제는 자연이 생명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책 및 개발사업에 있어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이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성직자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계사 복원의 구체적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상반기 중 3층탑과 대웅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복원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현대아산 측과 실무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간화선 수행지침서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간화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수행법들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 "초미의 관심"

취지는 '공감' 방법은 '더 신중히'

소양쌓기 등 절실…효율성 극대화
지식위주 등 문제…종합검토 필요

승가교육제도 개선이 올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 스님이 되고 난 후의 재교육이 아닌 스님이 되기까지의 교육체계 및 내용이 초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세부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현행 제도와 문제점

먼저 현행 제도를 보면, 출가한 뒤 6개월에서 1년간의 행자교육을 마친 뒤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행자교육원(21일간의 집체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사미(니)계를 받도록 돼 있다. 이후 강원과 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4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뒤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는다. 다시 말해 4~5년의 의무교육을 마쳐야만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강원과 선원이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를 졸업하고 강원이나 선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강원이나 선원을 졸업하고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8년간 기본교육에 매달리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내용도 문제다. 전통과 현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한 교육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다가 비구계를 받지 않아도 스님노릇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95년 이후 통계를 보면 행자교육을 마치고도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지 않는 사미(니) 비율이 30%를 넘는다. 결국 현행 제도는 스님 아닌 스님을 배출해내고 있는 셈이다.

■개선 방향

법장 스님이 제시한 방향은 최소한의 6년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4년간 내외전을 포함해 영어, 설법, 의식까지 모두 배우게 한 뒤 사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과 선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해 이곳에서 2년간 공부를 마쳐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교육기간이 1~2년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기간도 그렇지만 예비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어학 등 기본 소양 교육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계다가 2년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진행되나

2월 중 발족 예정인 개선추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장 스님이 제시한 방향과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 교직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교육 관계자들은 승가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상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묵 스님(불국사 승가대학 교수)은 "정서교육보다 지식 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강원을 전문학림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이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다른 종교에선…

▶개신교 : 약 60여개 교단이 있으며, 교단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학대학(4년)과 신학대학원(3년)을 졸업해야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2년간의 실습(인턴)과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것)을 거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교육연한은 9년이 된다.

▶가톨릭 :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가톨릭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신학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해 7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졸업하면 서품을 받게 되고, 정신으로 신부가 된다. 교육과정에는 교양과목 외에 심리, 사회, 문화, 논리, 철학, 사상사 등 문화적 소양을 위한 커리큘럼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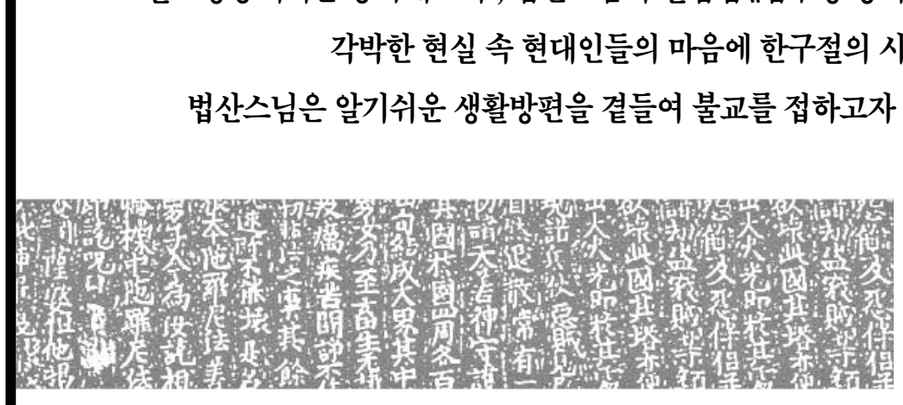
▶원불교 : 먼저 원광대 원불교학과나 영산에 있는 원불교대학교의 4년 과정과 교당이나 각 기관에서 2년 간의 간사생활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1차 교무자격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합격하면 원불교대학원대학에 진학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교무가 되기까지는 8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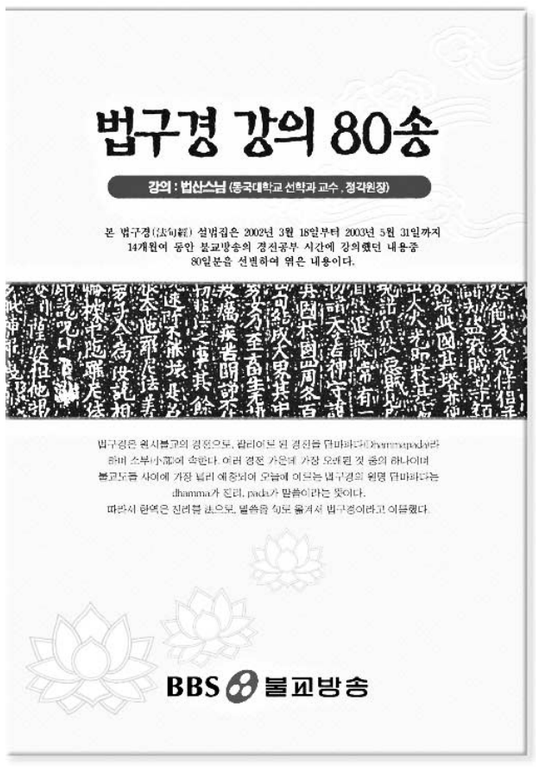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北 성도절 법회 동영상 공개

북한이 웹사이트를 통해 성도재일 법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개설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지난해 12월 30일 평양시 만경대구역 용악산 법운암에서 봉행된 '성도절 기념 조국평화통일 기원법회'의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조선불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지성 스님과 부장 수덕 스님, 법운암 신도대표 길상보살을 비롯, 신도들이 참석해 봉행한 성도절 법회를 1분 54초로 편집한 내용.

동영상에서 조선불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부장 수덕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없이 평온하게 사는 지상 정토를 염원했다"고 설법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5분 내외의 법운암, 안국사, 용화사 등 북한에 위치한 사찰 소개 동영상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 다음달 14일 부안서 실시

부안 방사성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총선 60일 전인 2월 14일 부안전역에서 실시된다.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안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총선 60일 전인 2월 14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며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하승수 변호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도법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을 비롯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1월 25일 주민투표방안을 공고하고, 2월 15일 개표 및 결과를 공표한다. 주민 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일 전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찬반 양측의 참석을 보장하는 TV 토론회도 개최된다. 주민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유효득표수가 가부동수이거나, 투표율이 1/3미만 시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동우 기자

영문 불교성전 나왔다

진흥원, 특급호텔 등에 배포



제반경전과 논소 조사어록 등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뽑아 영문으로 번역한 불교성전이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한국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이나 해외포교에 원력있는 국제포교사를 위해 <한영불교성전>을 최근 발간했다. <한영불교성전>은 국내 특급호텔과 관광업소, 포교기관, 단체 등에 배포된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망라하고 있는 이 성전은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에서 내용을 뽑아 현대생활에 맞게 영문으로 번역,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교전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국불교사'와 일반인이나 불자들의 실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좌선의 및 대념처경, 안반수의경을 집약한 '불교의 수행법'도 부록으로 실려있다.

권기종(동국대) 심재룡(서울대) 정병조(동국대) 조성택(고려대) 교수 등 국내의 저명한 불교 및 철학 종교학자들이 집필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권의 불교학자들이 최종 감수를 담당해 내용의 충실을 기했다.

송석구 편찬위원장은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불교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경전의 정수를 추려내 <한영불교성전>을 발간했다"며 "성전을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 세계로 세계로… 상설 외국인 선센터 연다

조계종, 이르면 3월부터 운영

한국 간화선이 세계화에 성큼 한 발을 내딛는다. 외국인이 기간에 관계없이 참선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선 센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정해진 수행 기간 없이 외국인에게 일년 내내 참선 수행을 지도하는 상설 수행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마하시 수행 센터 등이 위빠사나 수행법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한 예에서 보듯, 언제든 와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수행하다 갈 수 있는 '상설 외국인 선 센터'는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2월 중 서울 화계사, 강화 연등선원, 대전 자광사 등 영어로 외국인의 참선 지도가 가능하거나 실제로 외국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절 가운데 '외국인 선 센터'를 지정하고 강사나 프로그램 등을 확정, 빠르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찬익 포교과장은 "템플 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광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불교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며 "숭산 스님이 미국에 세운 '프로비던스 선 센터' 등의 사례를 분석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빤디따 스님의 수행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김재성씨는 "언제든지 와서 원하는 만큼 한국 선불교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며 "장기적으로는 간화선 수행 체계 확립이나 교육 시스템 마련, 외국인이 언어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워크숍에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창조적 활동"

불교환경연합 창립준비위 워크숍

"불교환경운동은 단순한 유산자원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차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수승한 장점을 드러내고, 살려가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1월 14~15일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와 안산 일대에서 열린 불교환경연합(가) 창립준비위원회 실무위원 워크숍에서 '불교환경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주제 발제를 통해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한 "불교환경운동은 시대적 추세이며, 국가와 기타 사회단체집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환경보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불교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크숍에서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불교환경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왜 불교환경연합이며, 어떤 조직이어야 하나' 주제 발제를 통해 "출재가를 불문한 전문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적 뒷받침 부재가 불교환경연합 출범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한국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주제 발제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강행은 우리 사회의 개발지상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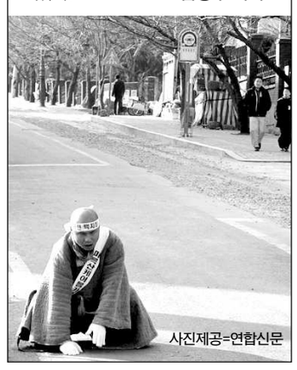
미륵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스님 삼보일배

최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이 케이블카 설치 청원서를 통영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용화사 선방 스님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통영환경운동연합 박태민 사무처장은 "용화사 선방인 관음암 당래선원에 있던 환경스님이 선곡 스님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해 설치 백지화 삼보일배에 나섰다"고 1월 15일 밝혔다.

환경 스님은 "1월 15일부터 용화사에서 통영시청까지 5km 구간을 매일 진행한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백지화돼 하루빨리 선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사진제공=연합신문

"가을 농사 짓고 나면 개토하듯이…"

법장스님 여야 대표에 '일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변화를 주문했다. 또 개혁은 하되 민생을 먼저 보살피는 정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법장 스님은 1월 13일 신년인사차 총무원을 방문한 최병렬 대표에게 "가을 농사짓고 나면 겨울에는 개토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에 참회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를 수 없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법장 스님은 또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옥동자를 낳기 위한 용틀임이라 생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당 의장 당선 인사차 15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는 "개혁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그 개혁은 실패한 것이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속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정 속의 개혁을 주문했다.

한명우 기자

인도 국제불교대회에 법장 스님 등 공식 초청

팔타 사라띠 레이 주한 인도대사가 1월16일 조계종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오는 2월 17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와 현대사회의 관계 △각국 불자 교류 증진 등의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인도는 현재 전 세계 300여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한 상태며, 한국 스님으로는 법장 스님 외에 범어사, 월정사, 불국사, 직지사, 해인사, 통도사 등의 주지 스님도 초청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북파 공작원 위패 안치 사찰

불자들 관심 쏠린다

'실미도' 흥행 여파

영화 '실미도'의 영향으로 무연고 북파 공작원(HID 첩보부대)의 위패가 안치된 서울 봉은사, 양양 영혈사, 국군 정보사령부 교육대 망월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파됐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북파 공작원 8천여명중 사망 실종한 북파공작원 위패는 봉은사에 198기, 영혈사 5백여기, 망월사 5천여기등 총 5천5백64기가 있다.

국가에 목숨을 바쳤지만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군번과 계급을 갖지 못한 북파공작원의 위패가 사찰에 안치된 것은 1960년대 말. 당시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연고없는 국가유공자의 위패를 안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위패는 검정색으로 이름만 20cm 크기의 작은 명패에 새겼다.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추모재를 지내고, 첩보부대를 유지해온 국군정보사령부 군인들이 각종 기념일에 간혹 들린다. 김원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종석(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문예창작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월 3일~ 2004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미술학과, 다도학과 : 2004년 3월 4일 , 9일, 10일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문학인 양성과 전문프로인을 위한

불교문예창작과(3년 과정) 신규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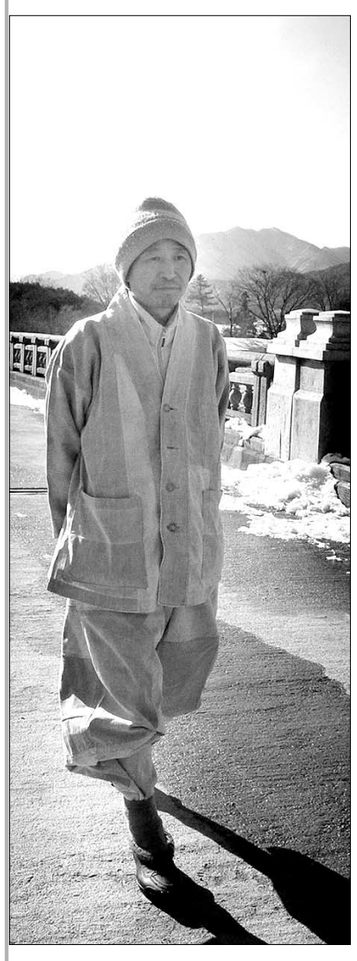
문예창작학과는 본격적으로 문예작품을 창작하려는 사람이거나 문학과 미학(美學)내지 불교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詩), 소설(小說), 희곡(戱曲), 수필(隨筆), 시나리오(TV극본·라디오드라마 포함), 문학비평(文學批評)수필(隨筆)등 각 장르별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실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학 과	교 과 목	교 수
1학년	· 문학의 이해 · 문예사조사 · 불교문화 · 문예 작품감상	· 김영무 (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김홍우 (동국대 예술대학장) · 백시종 (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 신상성 (소설가, 용인대학교수) · 신세훈 (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 박진서 (수필가,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 · 채상우 (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 무진장스님 (동산불교대학장)
2학년	· 미학 ①(동양미학) · 불교학이해 · 장르별 창작실기	
3학년	· 미학 ②(서양미학) · 불교사상사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작품 창작 지도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1세기 인류희망은 ‘생명’ 함께 나눕시다”

3년간의 생명평화 탁발 나서는 도법 스님



지리산에 살면서 생명평화를 갈구하던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이 법(法)을 구하고자 길(道)을 떠난다. 스님이 구하고자 하는 법은 역시 ‘생명’이고 그 순례를 ‘생명평화탁발’이라 명명했다.

“오십 중반(세수 55세)인 오늘까지 뭔가 해왔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정리하다보니 이제 남는 것은 흉내 낼 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탁발과 선재동자가 선지식 찾아 세상을 편력한 흉내라도 내고자합니다. 생명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날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관공서 교회 식당 굿당에도 들릴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는 생명탁발의 첫 걸음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도를 겸한 발대식으로 시작된다. 먼저 생명결사를 탄생시킨 지리산일대를 걸어갈 것이다. 구례-하동-산청-함양-남원 땅을 면(面)단위별로 하루씩 머물며 생명을 탁발한다.

이어 4·3 비극의 땅 제주도를 구석구석 돌고 다시 육지로 와서 남녘땅부터 시작해 3년가량 전국을 걸어다닐 예정이다. 이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시인 이원규 씨가 동행한다.

“구도자에게 있어 탁발은 삶의 방식입니다. 밥을 빌어 육체를 가꾸고 진리를 빌어 자기완성을 실현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길에서 그렇게 살다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스님은 지난해 좌우이념 대립 속에 지리산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기도 중에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위기상황을 접했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평화를 발원하건만 전쟁은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이럴 때 종교와 수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깨달음도 부처도 수행도 한방에 날아가고 말았다. 앞이 콱 막히고 답답했다. 부처를 흉내내고 선재동자를 흉내 내 저잣거리로 나서야만 풀릴 것 같았다.

3월 지리산 출발
제주 거쳐 다시 육지로
⋮
“죽음까지 각오한
10만명 있으면
한반도 위기 해결
전국민 동참 호소”

스님의 탁발순례는 이미 20년 전 구상된 것이다. 80년대 초반, 스님은 불교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사상을 실현하고자 금산사에 화엄학림을 개설했다. 3년 과정의 학림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2기 때 중단됐다.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생각했다. 이때 내린 결론이 순례길에 나서자는 것이었다.

농도인 전북에서 농민을 만나 대화하고 노동이 필요하면 일도 하고 공부하면 무언가 잡힐 것 같았다. 그러나 길 떠나기 직전인 1986년, 재적본사인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고 복원하느라 발목 잡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우리는 인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평화로 한반도 위기를 풀 때 빚을 갚게 되고 21세기 인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그 방법으로 ‘10만인 생명평화 서약’을 제시한다. 율곡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하지 않아 전쟁의 비극을 맞았고, 그 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생명평화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는 10만명이다. 이들이 한반도 유사시 평화를 지킨다면 지구촌의 지성인과 반전 평화론자가 함께 일어나 여론을 형성하고 생명평화는 새로운 인류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평화를 소개하고 이 결사에 동참할 것을 탁발하고자 서약인 모집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스님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현재의 삶’으로 규정한다. 전쟁이 없고 경제나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너없는 나는 없고 자연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와 나는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도움의 관계이다.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평화는 바로 이처럼 ‘더불어 사는 삶’인 것이다.

평소 스님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생명평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부처 노릇하면 부처고, 그것이 생명평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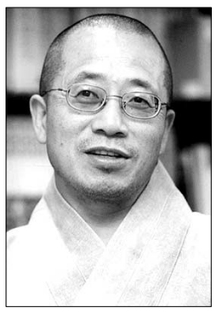
남원 실상사=이준엽 기자

‘삼보일배 정신’ 영국에 알린다

수경 스님 등 英 에코 프라이어서 초청받아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사진),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국제연대팀장, 창녕환경운동연합 김수경 씨 등이 1월 27일부터 2월 3일 까지 영국을 방문한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에코프라이어(Eco-prior)’라는 영국의 한 청소년 동아리에서 새만금 갯벌과 삼보일배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수경 스님 등을 초청했다”며 “특히 2월 1일에는 한국을 비롯, 영국, 미국 · 이탈리아 · 독일 · 스위스 등 전세계 6개국에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 보전을 기원하는 삼보일배가 열린다”고 1월 15일 밝혔다.



다음달 1일 6개국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보전 삼보일배

“북한산 관통도로
비종교적 · 정치 타협의 결과”

영국방문단은 2월 1일 람사협약 등록 습지 보호구역인 스니티시엄에서 에코프라이어 회원 40여명과 함께 30여분 동안 삼보일배를 한다. 또 2월 3일까지 스니티시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영국의 한 불교단체와 국제조류보호협회, 영국의 습지보전단체(WWT, RSPB) 등을 방문해 자기 참회를 통한 생명살리기인 삼보일배의 뜻을 전한다.

한국에서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창녕환경운동연합 부설 우포생태학습원에서 우포늪 내 삼각거리까지 삼보일배가 열린다.(참여문의 : 055-532-7856)

한편 수경 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재개와 관련 “‘비종교적,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며 “심지어 불교계가 또 한번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진실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1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작 불교계 내부가 막혀 있다. 종단과 종정을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독단적 결정이 나온 것이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경 스님은 또 “불교는 우리 사회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 돼버렸다”며 “동양 최대의 불상이니 팔만대장경 동판색인이니, 그런 호화로운 불사는 부처의 참뜻이 아니다. 더구나 불자들의 순수한 십시일반 정성으로 이뤄야 할 부처의 뜻을 국가 예산 지원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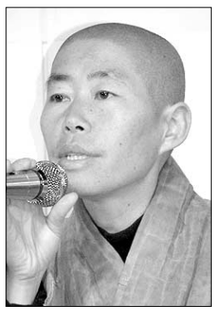
수경 스님은 불교계 내부에 대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에 앞장서고,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연연하는 사찰 수행환경의 내적 빈곤이 외적으로 드러나 중생들에게 ‘감화’는커녕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지율 스님, 환경부장관 고발

환경영향평가 위반 · 직무유기 혐의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내원사 산감 · 사진)이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1월 16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율 스님은 같은 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경부고속철도 부산 · 경남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 기간이 2001년 11월 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의무에 대해 묵과했으며, 재협의 건의 공문을 접수한 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하여금 사후착공계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 면죄부를 줬다. 이뿐 아니라, 199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천성산 구간에서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습지와 30여종 이상의 법적보호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1백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계속
각계 전문가로 ‘천성산 1천 인연’ 결성

지율 스님은 1백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지속을 비롯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법률개정운동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천성산 1천 인연 결성’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향후 일정으로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동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등 법률전문가 25명이 도롱뇽 소송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롱뇽 소송을 위한 전국순회 홍보단(단장 지율)’은 대구, 광주 등을 거친 뒤 1월 16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9일 대구를 찾은 홍보단은 중앙로 대구백화점과 대구 맑고향기롭게 강당 등지에서 거리서명과 홍보 캠페인, 강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서 지율스님은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고속철도 관통으로 인해 발생될 지하수 유출, 늪지 파괴,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광주를 찾은 홍보단은 금남로 우체국앞에서 도롱뇽살리기 그림엽서 · 사진전과 거리홍보를 갖고 현장에서 도롱뇽 소송인단 서명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율스님은 “천성산 도롱뇽은 지역을 떠나 모든 생명의 상징이다”며 “도롱뇽 소송을 통해 잠깐 멈춰 서서 우리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도롱뇽 소송’ 4차 심리는 2월 6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11호에서 열린다.

이준엽 · 천미희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月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 **알립니다.**
강북구 수유리에 동방파동연구소 서울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 02)996-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여성이 변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성불자 리더십 교육’에 참가한 부산여성불자회 회원들이 생활 속 불법실천 방법과 여성지도자 덕목 등을 경청하고 있다.

부산여성불자회 ‘리더십 교육’ 특강 “세상만물 부처님처럼 공경”이 최고

“여성불자들이 셀프 리더십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잘 공양하고 미소공양, 칭찬 공양, 말공양 등 다양한 방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불국토임을 깨닫게 됩니다.”

1월 1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 신년 하례회는 ‘여성불자들의 리더십 교육’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5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여한 이날 강의에서는 김남선(53. 서울 참교육상담소) 소장은 때론 법문 같은 깊이와 때론 수다 같은 친근함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열강을 펼쳤다. 김남선 소장은 여성불교개발원에서 교육부장을 지낸 불자로 왕선자 회장과 함께 여성불교개발원에서 활동한 인연으로 부산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부산여성불자회가 스님이 아닌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서 김 소장은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를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면서 세상 만물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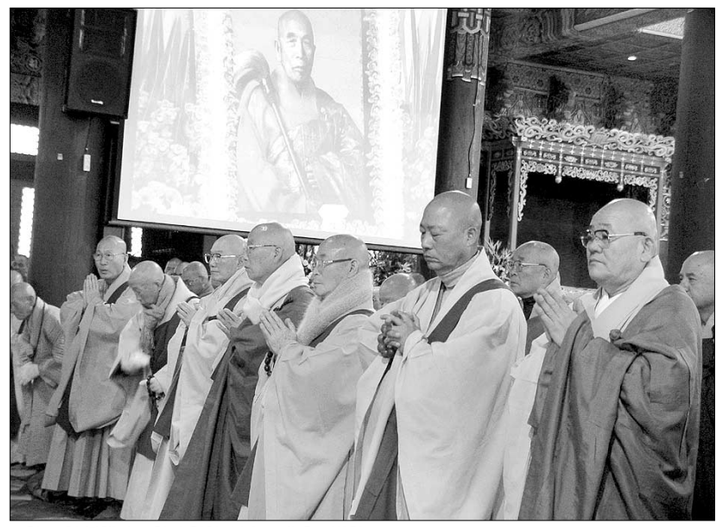
강의를 들은 부산여성불자회 류경자 총무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여성불교지도자 되기 위한 덕목을 알게 됐다”고 흡족해 했다.

왕선자 회장은 “각 사찰에서 신도회 회장이나 총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아 리더쉽 교육이 절실했다”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문적이고 실천적 체험에서 우러나는 내용의 특강을 마련해 여성불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여성불자회는 3월 10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스님과 파라미타 부산지부 학생 등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성을 깨달아 진정한 대장부 되세요”



1월 14일 봉행된 노천당 월하 스님 49재 추모법회.

노천당 월하 스님 49재 추모법회 문도, 각 기관장 등 3천여명 참석

지난해 12월 4일 입적한 노천당 월하 스님의 49재 추모법회가 1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이날 추모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원로스님, 문도 그리고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2백여 문도의 헌향과 헌다에 이어 행장소개, 육성법문,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진정한 대장부가 되어야한다”는 육성법문이 생전 모습과 함께 나오자 눈시울을 적시는 불자들도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불조의 혜명을 열어 보이신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와 문도측은 “월하 스님의 49재 회향일은 21일이지만 설날 하루 전이라 귀성과 교통혼잡 등이 예상돼 6재를 49재 추모 회향일로 정했다”고 밝히고 “다비식 결과 사리가 나왔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전국 곳곳 나눔의 법향 ‘물씬’

금강자비회 · 부산 삼광사 등 설날행사 안흥사 외국인 노동자와 윷놀이 한판

설날을 맞아 불우이웃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이사장 노화순)는 1월 15일 마산시청 6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아진 성금 4천만원은 저소득 가정 50세대(2천만원)와 청소년 장학금(7백 20만원), 무의탁 노인들 백미구입(5백만원), 가포요양원 법당 및 환우(5백만원) 등에게 전달됐다. 황철곤 마산시장, 지태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초청해 마산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 삼학사찬불단의 찬불공양,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문 낭독 등을 함께 해 훈훈함을 더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설 떡국 나누기, 차례지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대표적으로 서울 은평노인복지관(관장 고재욱)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인근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무의탁 노인 200여명에게 떡국 200kg을 나눠주었으며,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은 관내 장애인들에게 쌀 80포를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두송복지관(관장 지현) 역시 15일 복지관내 경로식당에서 ‘기쁨의 쌀’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 가정 1백 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이밖에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7일 법화당 2층 향적당에서 성금 전달식을 갖고 부산시에서 추천을 받은 초읍동 30세대, 부산진구 30세대를 비롯한 1백 세대에게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범어사 승가대학 소속 학인 스님 20여명은 거리 탁발(시주)을 해 모은 성금 126만원을 지난 6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여)에 기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떡국 행사도 있다. 조계종 안흥사(주지 장적)는 22일 설날(음력 1월1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차례를 함께 지내고 떡국을 나눠 먹는다. 윷놀이 한마당과 함께 진행될 이날 행사는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해 외국에서 명절을 맞는 노동자들의 외로움을 달랠 예정이다.

천미희 · 한상희 · 배지선 기자

기장군 사암연 · 사하불교연 새 회장 취임, 지역발전 다짐



남운 스님



법혜 스님

부산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와 사하불교 연합회가 신임회장 취임법회를 갖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짐했다.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10일 해운대 글로리콘도 18층 임시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 법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법혜 스님(도선사 주지)을 추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최현돌 기장군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자리에서 법혜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승가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하 불교연합회도 지난 10일 하단동 사파이어호텔 4층에서 남운 스님(남운정사 주지)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해인정사 수진 스님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했다. 남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사하 지역의 불교발전뿐 아니라 부산지역 전체의 불교발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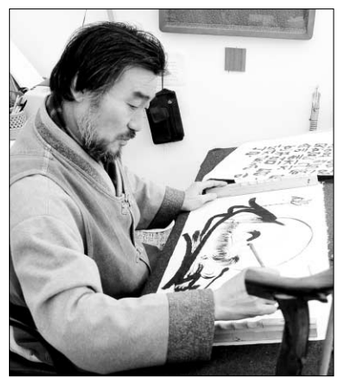
용호복지관 언어치료센터 개소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2월경 언어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언어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되는 용호언어치료센터(가칭)는 36개월부터 초등부까지를 대상으로 각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새해는 달마 氣 받고 평안했으면…



“2004년은 세상이 두루 평온하고, 누구나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였으면 합니다.”

2004년에는 모든 이들이 힘들지 않고 웃고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그린 달마도 2천4점을 보시하는 화가 봉암 백남운(52). 백 씨는 “2004년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못 줘도 2천4명에게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그림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복된 기운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씨가 달마도 보시 발원을 한 것은 새해 첫날 팔공산 정상에서다. 백씨는 정상에서 지하철사고와 태풍매미가 휩쓸고 간 쓰라린 상처들이 남아있는 대구지역 사람들의 한숨 섞인 기원을 들었다.

백남운 씨 “달마도 2천4점 보시” 대구 지역민의 아픔 듣고 작업 시작

그 길로 내려와 팔공산 작업실에서 달마도를 그렸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달마도를 나눠주고 있다.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그는 2003년 부처님오신날에 8m×12m의 최대그림을 그리는 이벤트를 가졌고, 달마도 액자 209개를 창녕지역 경로당에 기증한바 있다. 011-9493-6615

팔공산=배지선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율,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 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전법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궐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서무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안(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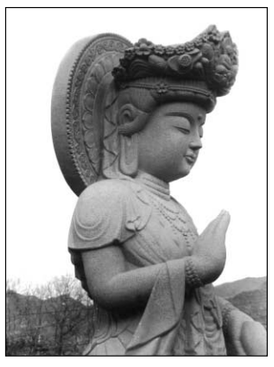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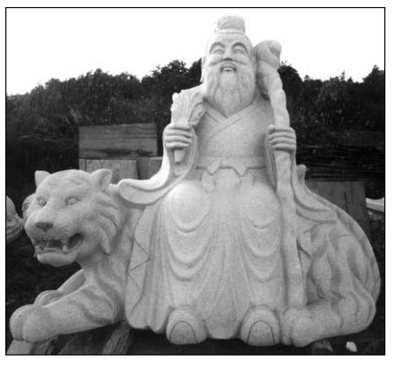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현장속으로

"취직해서 할머니 모실겁니다"



광주 전남 포교사단 '소년원 겨울불교학교' 열던 날



광주 전남 포교사단 교도소팀장 이재언 포교사가 원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엔 법회가 지루하고 합장이나 절 하는것이 어색했어요. 그래도 자꾸 나오다보니 이제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1월 13~14일 양일간 광주 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수)이 주관한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이하 고룡학교) 겨울불교학교에 참석한 하태산(18, 가명)군.

태산이는 2년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을 저질러 이곳 고룡학교에서 교육중이다. 처음 고룡학교에 왔을때만 해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어디에든 의지할 곳을 찾던중 아버지가 보고 싶어 불교반을 찾았다. 불심이 강한 아버지는 신행생활에 열심이었다. 뒤늦게 만난 부처님을 통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신을도 추스르게 됐다.

그동안 태산이는 고룡학교에서 한자 5급, 문서실무 4급 자격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달 말 고룡학교를 퇴원하면 일반 고등학교에 정식 입학해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다.

13일, 창 밖으로 함박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가운데 한글 <천수경> 독경이 시작됐다. 고룡 겨울불교학교의 서막이다.

독경하는 아이들의 합장한 손에 간절함이 담겨있다. 한손엔 참회하는 마음, 다른 한손엔 빨리 퇴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합해져 애절함으로 다가온다.

이틀간 진행된 겨울불교학교는 '불교예절', '달마가 동쪽으로…' 등의 영화감상, 기초교리, <부모은중경> 등의 강의와 참선, 108참회로 진행됐다.

대부분 결손가정, 법회가 '대화 창구'
108배 · 참선으로 심신청정 기원
"사회,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길"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란 주제로 열린 고룡학교 겨울불교학교에는 18명의 학생이 모였다.

평소 토요법회에 10여명 나오던 것에 비해 이번 겨울학교에 두배 가까운 아이들이 참가해 모처럼 법당이 활기찼다.

간간이 포교사단에서 준비해간 과일과 컵라면, 음료수가 간식으로 나오고 포교사들과의 상담에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들이 하소연 하듯 꼬리를 이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요.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붕괴되면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8년 전부터 고룡학교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언 포교사는 "고룡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며 사회적 모순을 지적했다.

고룡학교 종교담당 주옥한 선생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사랑이 부족해 마음을 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종교활동에 나가면 대화를 많이 해요. 특히 불교반은 물질을 앞세우기보다 마음공부를 많이 시켜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포교사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믿었던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 때다.

법회를 통해 마음공부가 잘되어 사회로 나갔던 아이들을 다시 만날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하다. 그때마다 허탈감과 퇴굴심으로 몇 달씩 중병을 앓곤 한다. 심성착한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회와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고룡학교에서 법회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만 겨울불교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며칠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광주전남 포교사단 교도소팀(팀장 이재언)이 포교활성화를 발원하며 시작한 새해 첫 행사이기도 하다.

포교사단은 이곳 아이들이 불심을 통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폐쇄된 공간의 한계로 많은 흥미를 끌지는 못해도 방학중 심심하던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새롭다.

겨울불교학교가 끝나면서 포교사단은 이런 열기에 고무되어 "날이 풀리면 사찰순례를 갖자"고 제안했고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해서 제가 할머니 모실 겁니다. 절에도 다니면서 불자로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거예요"

불교반 반장을 맡아 첫 겨울불교학교를 보낸 장현석(21, 가명)군. 지난해 11월 자동차정비 2급자격증을 획득했고 이달 말 고룡학교를 퇴원한다. 현석이는 겨울불교학교를 마치며 발원문을 통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거룩하신 부처님! 내 마음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고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이웃에게 회향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광주= 이준엽기자

■ 광주 고룡정보산업학교는…

광주 고룡정보산업학교는 직업훈련소년원으로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비행을 저지른 20세미만의 소년들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형사판결을 받는 소년교도소와 구분하기위해 1995년부터 일반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룡학교 전영선 교무계장은 "이곳 아이들은 학교를 퇴원해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함께 나누니 모든게 즐거워요

인천 수미정사 정화원 · 이연휘 보살

1월 15일 관음재일 법회가 열리던 날, 인천 수미정사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10여명의 불자들이 뜻을 모아 봉사모임을 결성한 것. 이들은 사찰의 살림살이는 물론 독거노인과 미혼모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발원했다. 정화원(59, 법명 화엄행) · 이연휘(53, 법명 명지과) 보살은 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이연휘 - 시간 · 노력 나누는 '보시 제일'
정화원 - 사찰 대소사 여법하게 이끌어

이연휘 보살은 수미정사에서 '보시 제일'로 통한다. 이 별칭은 재보시(財布施)를 많이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마음 때문에 얻은 것이다. 절에 오면 기도시간 외에는 제대로 앉아 볼새도 없이 늘 바쁘다. 이 보살의 마음을 본 이라면 누구든지 '보시 제일'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법당 마당 공양간 어디를 가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보살은 다 주고 싶은 모양이다.

"가진 것 없어서 보시하지 못한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니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거든요. 마음도, 시간도, 자리도, 웃는얼굴도 다 나눌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반면 정화원 보살은 20여명의 화주를 이끄는 일명 화주단 '대빵'이다. 아직까지 신도회가 제 역할을 못해 화주단이 사찰 대소사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살은 사찰에 오는 불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조율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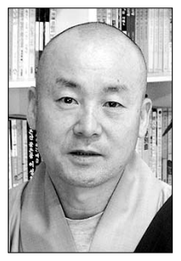
주지 종연스님은 "보기엔 큰일이 아니지만 정보살의 일이 절일에서 힘든 일"이라며 정 보살의 공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정 보살은 "신심이 깊다"는 표현과 참 잘 어울린다. 매일 아침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절에 나와서 기도한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참회한다. 언뜻 보아도 재미없어 보이는 일에 정 보살은 푹 빠져 있다.

"절에 나간지 20년이 됐지만 요즘처럼 환희심 나는 때가 없었어요. 수미정사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인천=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종연스님 수미정사 주지

한 뜻으로 대중위해 봉사

우리 절은 개원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신도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회 활동을 보완할 반야단과 문화단, 봉사단 등 3개의 화주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화원 · 이연휘 보살은 이 화주단에서 공심을 갖고 열심히 사찰 일에 나서고 있는 불자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불교의 현실이 기복에 치우쳐 있다보니, 신도들의 의식수준도 낮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두 보살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을 아울러 모든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보살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불교가 산다



새로 나온 <프리즈냐 6권> 특별가 책정!!!

프리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 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겹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인도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모시던날



대각회 본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아로라 바라나시 도지사, 수메다 대각회 사무총장, 혜총 · 암도 · 혜용 스님(왼쪽부터)



부처님 첫 설법 큰 메아리로 두루 퍼지길...

황금 마차에 모시고

한국과 인도의 전통 이운식이 함께 치러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이번 법회는 녹야원 입구에서 법주 혜총 스님과 암도 · 혜웅 스님 정선진 1군사령부 법웅사 주지를 태우고 꽃으로 수놓아진 황금마차에 불상을 싣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스리랑카 스님들의 주악에 맞춰 리선행 횡성 죽림산사 주지,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대열을 맞춰 행진했다.

이렇게 5분여 동안 인도식으로 이운된 불상은 행사장인 녹야원내 대각회 본당앞에 기다리고 있던 수메다 스님과 아로라 도지사 등 인도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초전법륜상을 주불로 한 법단 오른쪽 협시불로 모셔졌다.

대각회 본당 밖에서의 의식이 인도식이었다면 안에서는 예불과 정근, 염불 등 철저한 한국 전통의식으로 거행됐다.

30여분간의 이운 봉안의식이 끝나자 수메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72년 인도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과 인디라 간디 수상의 교류를 시작으로 30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게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불교문화 교류가 양국간에 더욱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기념메시지를 암도 前조계종 포교원장이 대독했으며 법주 혜총스님의 법문, 녹야원 경내 순례,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만난 미슈라 산스크리트대학 부총장은 "한국불상의 이운식은 생전 처음 봤다"며 "조금은 길게 느껴졌지만 정성스럽게 모시는 한국 스님들과 불자들의 불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공식행사가 끝난뒤에는 수메다 스님은 대각회 본당 지하에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한국불자에게는 처음으로 공개하며 불자들에게 일일이 친견토록해 환희심에 젖게했다.

이억만리 한국에서 이운된 한국 부처님은 이제 영원한 보금자리인 이곳 녹야원 대각회 본당에서 세계 불자들의 참배를 받으며 자비의 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녹야원 = 김주일 기자 · 사진=송용호(사이버 강원 붓다의 메아리 대표)**



한국과 인도의 스님들이 녹야원 안에 있는 대각회 본당에서 한국 전통의식으로 한국에서 이운된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법장 스님 기념메시지(요약)

뜻깊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에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처음으로 봉안하는 불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이셨던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 선생이 힌두교로부터 불교성지의 수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이곳 녹야원 사찰에 한국전통 양식의 부처님을 봉안하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성지 답게 한국과 인도의 불교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불사의 공덕으로 세계의 불자들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 지성적인 신앙으로 전환해 올바른 불교관을 지니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안락과 자유를 누리는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불사가 여법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흔쾌히 한국불상을 맞이해주신 대각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불사에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가져주신 한국의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봉안된 불상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 모델 목불에 개금, 제작 1백일 소요



이번에 봉안된 불상은 목불로서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을 본뜬 것이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의 중앙에 왼손을 놓고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이른바 항마촉지인상(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며 땅을 짚어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증명하는 손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주력했다. 석굴암 본존불의 실제 높이는 3.4m이지만 이번에 제작된 목불 본존상은 높이 90㎝, 좌대 120㎝, 폭 65㎝로 축소시켜 개금한 것이다. 재료는 소나무를 사용했으며, 제작기간은 1백일이 소요됐다.

또한 목불 조각은 강영재 불교 조각원장이, 개금은 박갑용 불광불교미술원장이 각각 작업했다.

모셔진 사찰은?

▌녹야원 지부가 있는 대각회 본당, 많은 스님 배출

이번 행사가 치러진 대각회 본당은 스리랑카 근대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of India) 녹야원 지부가 있는 곳으로 사무총장인 수메다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대각회 본당)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불상만은 없어 성지를 방문한 한국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한-인수교 3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인도 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주요한 불교성지마다 대각회를 조직해 많은 스님들을 배출하고 있다.



인 터 뷰

법주 혜총 스님

"한국불자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부처님께서 이곳 성지를 찾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예배받으심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녹야원 한국불상 봉안 대법회 회주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 불국토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의의를 이렇게 털어놨다. 스님의 인도 성지순례는 이번이 벌써 9번째. 적지않은 방문횟수이지만 이번 순례는 스님에게 있어 남다르다. 한국의 독특한 정신문화로 자리잡은 불교의 미가 담겨진 한국불상을 인도에 모시는 불사의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5비구를 만나 최초로 전법하심으로 마침내 불교가 탄생된 이곳에 한국불상을 모시는 불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불상 점안을 계기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고 의의를 밝혔다.

불상봉안 동참자 명단

혜총큰스님 이선행법사 각묵스님 강경아 강경필 강경희 강명석 강명수 강명철 강미리 강민호 강병욱 강보석 강봉원 강봉을 강선희 강수균 강수옥 강순례 강신보 강옥녀 강우섭 강인묵 강장원 강정순 강종우 강창기 강태부 강태종 강태진 강호용 강화경 경동스님 경무스님 경법스님 경본스님 경상스님 경성스님 경소스님 경여스님 경원스님 경적스님 경제스님 경주김씨조모 경증스님 경진스님 고군찬 고금순 고금자 고동환 고례자 고명환 고봉준 고상진영가 고성옥영가 고성일 고승훈 고선순 고씨수자명 고연재 고영미 고을연영가 고태용영가 고학용영가 고혜숙 고희궐 공기원 공덕화 곽순희 곽종복 곽진숙 구교법 구근회 구보현 구수민 구승화 구연석 구원용 구원희 구정민 구정옥 구정은 구창열 구충서 구형서 구홍기 구활림 권 일 권기현 권남표 권동준 권명숙 권명순 권목정 권미경 권미진 권선화 권순남 권순익 권식장 권연경 권영근 권영대 권오중 권오준 권용민 권유현 권은혜 권인현 권창범 김갑순영가 김강민 김건영 김경일 김경자 김경희 김경일 김경자 김경희 김광남 김광명 김광석 김광선 김광섭 김광수 김광순 김광식 김광일 김광자 김광주 김광진 김광철 김광현 김광형 김구남 김구미 김구진 김구화 김근남 김근수 김근식 김근자 김근태 김근하 김금순영가 김기순 김기옥 김기용 김기자 김기환 김길순 김길명 김길자 김나희 김남성 김다희 김대호 김대성심 김대열 대홍 김대훈 김덕민 김덕제 김도연 김도현 김도형 김도형 김동석 김동성 김동숙 김동승 김동원 김동원 김동준 김동후 김만자 김 명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재 김명재 김명진 김보희 김무철 김무혁 김문정 김미경 김미숙 김미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정 김민지 김병성 김복규 김복동 김보문 김보민 김복덕 김복순 김복인 김봉석 김봉선 김봉수 김봉순 김봉식 김봉자 김봉주 김봉희 김부경 김부자 김분순 김분이 김분자 김분희 김비빈 김새영 김새하 김서연 김서현 김석기 김석기 김선희 김설희 김성경 김성길 김성봉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애 김성은 김성일 김성자 김성주 김성준 김성철 김성현 김성형 김송규 김송산 김송이 김송자 김수경 김수동 김수련 김수미 김수민 김수복 김수옥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수현 김수환 김숙자 김숙화 김순단 김순덕 김순례 김순복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남 김승덕 김승미 김승민 김승복 김승수 김승연 김승우 김승원 김승일 김승자 김승주 김승준 김승철 김승현 김승형 김승희 김시내 김시명 김시우 김시은 김시정 김시현 김시형 김신애 김신자 김신정 김신혁 김신형 김심규 김심순 김안순 김애경 김애란 김애리 김애선 김애숙 김애순 김애자 김애정 김애주 김애진 김애희 김양근 김양순 김양자 김양희 김어진 김언경 김여경 김여진 김연경 김연경 김연경

‘수행과 회향’ 으로 세상 밝힌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 올 종무 기조와 계획



천태종은 1월 13일 단양 구인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 및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수행풍토 진작과 수행환경 개선 △포교 및 교화체계 확립과 내실화 △문화 · 복지를 통한 대사회 회향 등 3대 종무지표와 28개 종무계획을 제시했다. 중창조인 상월원각 조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불사 계획도 내놓았다.

3대 종무지표

- 수행풍토 진작 · 수행환경 개선
- 포교 · 교화체계 확립 · 내실화
- 문화 · 복지 통한 대사회 회향

▶종단 운영 방향의 큰 흐름은.

천태종은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당시부터 스님과 재가불자가 함께 안거에 드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전통을 살려 승 · 속이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또 올해 계획 중에는 어느 해 보다 대외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내적인 분야에 치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종단의 역량을 사회에 회향하는 데 운영지침으로 삼을 계획이다. 회향 방법은 교육과 복지활동이 될 것이다. 금강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의 활동을 주목해 달라.

청년층·軍 포교 강화…유물전시관 착공
“상월조사 100주년 기념 종단 발전 계기로”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와 스님 노후복지제도 확립, 본말사 수행환경 개선, 재가불자 수계산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황룡사를 비롯한 8개 사찰의 불사도 올해 마무리한다. 96억원을 들여 올해초 착공하는 구인사유물전시관은 연면적 1천9백여평 규모로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국보 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권 제29 등 국보 2점과 보물 9점을 비롯해 2천6백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또 국제불교 유물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5월중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2011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는 원로 스님들의 증명을 토대로 <상월어록>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상월문학상’ 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전국 순회공연 개최, 불교문화사진전 매년 개최 등을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사상과 업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이다.

▶‘포교 확대와 대사회 회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젊은층 포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구 대성사를 비롯한 3개 사찰에 교양대학을 개설하고, 천태학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논문이나 학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종단의 주요 홍보매체인 <천태종보>를 월2회로 늘려 발간하겠다.

대사회 회향은 종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올해 가장 많은 과제를 선정한 분야도 바로 사회 참여와 회향 분야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와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결식아동을 위한 3:1 릴레이 운동, 외국인노동자 · 탈북자 지원체계 확립, 몽골 문화원 설립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내용은.

국제포교 차원에서 현재 캐나다와 덴마크에 포교당이 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포교당은 사찰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는 몽골과 미얀마, 스리랑카 불교와의 인적 · 사상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교류가 새롭게 시작된다. 파키스탄은 대승불교와 간다라불교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는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천태종은 파키스탄에 불교를 다시 전해주고 싶다.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군포교를 위한 계획은.

군포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군불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종단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군법당과 지역사찰이 연계를 갖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천태종은 군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졸업자들의 군승 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협의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단양=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코스닥기업 인수

사찰 네트워크·장묘사업 연계 맡아

태고종의 재단법인 태고원(이사장 일우)은 코스닥에 등록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에이엠에스를 최근 인수했다. 기존 (주)씨씨케이밴의 소유지분 140만주(12.33%)를 태고원이 30억원을 들여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태고종은 빠른 시일내 경영권을 넘겨 받아 종단의 수익법인체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외에 태고종과 연계한 사찰 네트워크 사업과 장묘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 불사와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이엠에스를 불교의 이념을 사회화하는 모델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엠에스는 88년 설립된 PVC카드 제조업체로, VISA, MASTER카드, MONDEX 인터내셔널에 납품하고 있다. 충북 진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자본금은 134억7천여만원이다.

박봉영 기자

4차 영통사 기와지원 또 무산

천태종 “합의서 위반” 취소

북한 개성 영통사 기와 지원을 위한 4차 방북이 북측의 합의서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방북 하루 전인 1월 11일 저녁 “영통사 현지 및 개성 시내 등 방북단의 개성공단 밖 개성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공단 지역내의 체류만 허용한다” 고 북측이 통보해오자, 천태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방북이 취소됐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4차 방북 취소는 북측의 합의서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내심을 갖고 북측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영통사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지종 스승퇴임법회 봉행

총지종은 1월 1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정년이 된 현역스승의 퇴임법회를 봉행했다. 법정, 무공 정사와 사홍화, 지선행, 법지원 전수 등 이날 퇴임한 스승은 교화 일선에서 물러나 기로원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총지종은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수성 종령은 “화합된 힘으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14일 열릴 예정이던 제86회 임시중앙종의회는 취소됐다.



동방불교대 불미과 졸업전 성료

동방불교대학은 1월 15~20일 서울 삼정아트인터페이스에서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교미술과 2학년 학생 3명이 불상과 탱화 등 8점을 출품했다. 15일 열린 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수암 · 만춘 스님, 동문과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학교에서 습득한 미술을 통해 스스로의 수행은 물론 사회와 대중교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종단협 29일 신년하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월 2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48년 신년하례 및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신행 · 포교단체장, 정 · 관계 불교인사 등 4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로 자리를 옮겨 리셉션을 개최한다.

조계종 진정·탄원 기준 제시

조계종 호법부는 무기명 진정, 투서, 탄원 등에 대해 ‘인정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하지만, 진정내용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경우 조사처리한다’는 입장을 1월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승가의 위의를 훼손할 경우 종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종단의 대내적인 문제 또는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를 익명으로 진정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기명 게재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진선여중·고 신임교사 채용

회당학원은 과학(물리) 1명, 영어 2명 등 진선여중 · 고교의 신임교사를 채용한다. 서류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선여고 행정실에서 접수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실기 시험으로 선발한다. 2차 시험은 2월 9일 진선여고에서 실시된다. (02)567-6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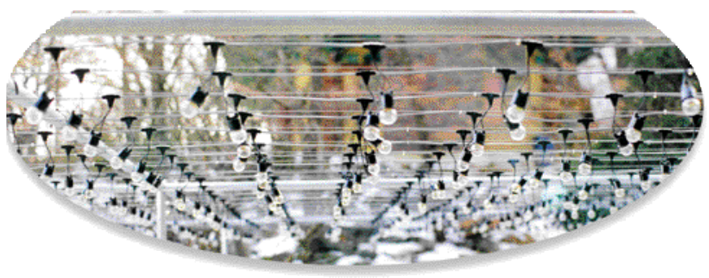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따라 다니면서 본 일터불자의 일과

반야심경 되뇌이며 살리는 법대로 판결

서초 반야회 총무 박홍우 판사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늦은 저녁에서야 가쁜 숨을 고르는 직장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직장 불자들은 '일과 수행'이란 만만치 않은 화두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지난 1월 12일과 13일, 직장불자 2명의 일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붓다의 법'과 '세간법', 두개의 법속에서 산다는 박홍우 판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불자라고 말한다.

손님 모두가 부처님 피안의 뗏목처럼 편하게

안양 운불련 유경순 기사

우리불자회는요

국세청 보리회

"중생 개개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져 도탄에 빠진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직한 백성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대살차니건자소설경>

건강한 조세 문화의 정착을 부처님 말씀에서 배웁니다. 납세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불자회. 부처님의 대자비 정신에서 신심을 키워가는 국세공무원 신행단체. 우리 불자회 국세청 보리회가 걸어가고 가야할 길입니다.

창립은 지난 96년 7월 30여명이 모여 서울 종로경찰서 경승실에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참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서원했던 도반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먼저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면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왔습니다. 또 봄 가을에는 평창 월정사, 상원사, 충남 갑사, 마곡사, 서귀포 월라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찾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신행활동은 현재 전국 6개 산하에 200여 명의 불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그간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기적인 회원들의 법회참석, 신입 회원의 가입 저조 등 한 때 불자회가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는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법회를 쉬지 않고 열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세무사불자회와 함께 불자님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불자신행상을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빠짐없는 정기법회 불심 기르기 원동력

조세업계 불자회와 지속적인 활동 교류



국세청 보리회원들이 지난해 개심사에서 개최한 합동 성지순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불교모임 선우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체청 보리회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불자회원을 늘리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별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불자회 내로 끌어안아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명산순례의 실시도 정례화해 불교문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특히 동종 조세업계 불자회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세무사불자회, 공인회계사불자회 등과 연합회 결성도 추진하고, 정기적인 합동법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국민의 심복이듯이 국민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리를 구하며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불자회, 보살도를 한발 한발 내딛고 실천하는 불자회.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국세청 보리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전을수 총무

법정 들어가기전 5분 참선

'활인' 화두 들고 마음 다스려

반야심경 되뇌이며 살리는 법대로 판결

서초 반야회 총무 박홍우 판사

'활인(活人)'이란 화두를 들었다= 1월 13일 오전 8시 반. '붓다의 법'과 '세간법', 두 개의 법속에서 사는 불자를 만났다. 불자법조인의 모임 서초반야회 총무 박홍우 판사(52 ·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 서류들이 수북이 쌓인 집무실에서 기자를 반겼다. 인사는 잠시, 곧바로 부심 판사들과 회의가 이어졌다.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만 2천여 페이지. 손 놀릴 틈이 없다. 양형을 조율하고, 판결문도 마무리해야 한다.

오전 10시, 박 판사가 판결문을 다시 들여다봤다.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20대 청년의 판결문이었다. 박 판사가 잠깐 동안 눈을 감았다. 5분간의 침묵….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제 결정은 최종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판의 가능성은 없었나, 양형은 적절했는가를 세간 법에 묻고 불법에 묻습니다."

박 판사는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참선을 한다. 화두는 '활인(活人)'을 든다. 판사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되새긴다. 20년 전 초임 판사 시절부터 판결 직전에는 반드시 '반야심경' 한문 넉 자를 사경했다.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서다.

"불교는 솔직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판사의 이 같은 마음공부는 72년 대학시절에서 비롯된다. 서울대 법대 '법불회'에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배웠고, 94년에는 헌법재판소 반야회를, 95년 서초반야회, 99년 창원지원에 불자회를 출범시키는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해왔다.

손님 모두가 부처님 피안의 뗏목처럼 편하게

안양 운불련 유경순 기사

달리는 법당', 부처님을 매일 태운다= 1월 2일 오전 8시 안양역. 역사에서 출근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유경순(50 · 법명 도연화) 前 운불련 부회장과 하루 동안의 불법합승(?)을 위해서다.

"유 불자님! 지금 어디세요?" / "네,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택시가 섰다. 창문 틈으로 경전 독송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타세요." 타자마자 차 안을 둘러보았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법당이다. 불상은 기본, 염주에서 진언, 풍경, 연꽃 장엄에 이르기까지. 법당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따로 수행할 곳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제 차가 바로 수행처죠."

첫 손님이 탔다. 이것저것 살펴보는 승객의 시선이 분주하다. 천주교 신도라는 손석훈(41 · 안양시 박달동) 씨는 "꼭 절에 온 것 같다"며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달리는 법당입니다." 거리의 포교사 유경순 불자가 미소짓고 있다.

차안 염주·연꽃·불상 장엄

타종교인도 기분좋게 승차

승객이 내리자 유 부회장이 말했다.

"저 만큼 하루에 많은 부처님을 태우는 불자는 없을 거예요. 모시는 손님 모두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피안의 뗏목처럼 가는 목적지까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데려다주니 이 같은 수행은 어디서 하겠어요."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했다. 승객들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불교를 믿게 된 인연, 기사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연, 운불련 신행활동…. 20여 년 전, 처음 핸들을 잡던 날, <반야심경>을 기기판에 붙이고 암송했다고 했다. 불자로서의 자기점검과 운전기사로서의 안전운행을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신행의 폭은 넓어졌다. 지난 98년에 운불련 안양지역회 창립을 주도했고, 2001년에는 전국 운불련 모임 가운데 첫 여성회장으로 활동했다.

"불교의 매력은 자유로움과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힘들어도 신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부처님 법 믿으면 되지요."

유 부회장은 올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제2의 신행활동을 시작할 생각이다. 일터불자들의 신행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유 부회장이 운행할 '달리는 법당'의 유쾌한 질주가 기대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구매고객 모두에게 고급원목단주를 증정합니다. 무료배송 (단 3만원이하 제품은 배송료 4,000원 별도)

[기간] 2004년 1월 14일 ~ 2월 13일까지 (딱, 한달간)



※ 마하몰에 직접 방문하시면 희담석의 효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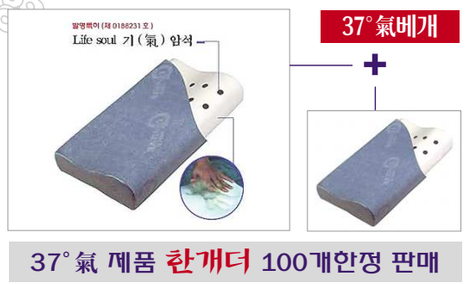
판 매 가 : ~~2,800,000원~~

⇩

특 판 가 : 2,380,000원

사 이 즈 : 90cm X 180cm X 10cm

※ 설치비 별도(10만원)



37°氣베개 +

37°氣 제품 한개더 100개한정 판매



황토달마 100개한정 판매



~~판 매 가 : 198,000원~~ ⇨ 특 판 가 : 98,000원

규 격 : 가로 25cm x 세로30cm

재 질 : 지리산 황토 100%

특 징 : 황토달마를 집안에 모시고 물을 뿌리면 겨울철에 가습기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 198,000원~~ ⇨ 특 판 가 : 158,400원

사 이 즈 : 38.5cm X 35.5cm 색 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 38,000원~~ ⇨ 특 판 가 : 30,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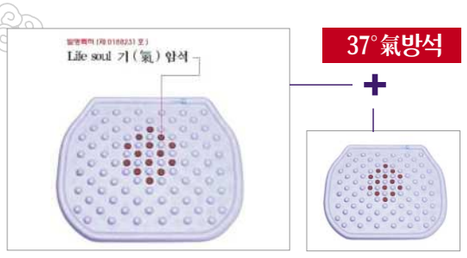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흥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 김용섭<여/66세, 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윗부분이 숨도 못 쉴정도로 아프던 지병 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으로만 약간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 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자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놀라와 했다.



37°氣방석 +

● 37°氣베개 - 일반 메모리폼 베개가 아닙니다

~~판 매 가 : 69,000원~~ ⇨ 특 판 가 : 60,000원(2개)

색 상 :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 47cm x 29cm x 8cm

● 37°氣방석

~~판 매 가 : 40,000원~~ ⇨ 특 판 가 : 20,000원(2개)

색 상 : 연보라, 베이지

효 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량에 좋습니다.





● 달마원목시계(원형, 팔각형)

~~판 매 가 : 55,000원~~

⇩

특 판 가 : 각 33,000원

재 질 : 체리목 크 기 : 400mm

특 징 : 고급 무소음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1년간 무상 A/S)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 02)732-1520

농협 : 053-12-113210 하동규

그림자극으로 본 서울 이야기



공연관람후, 무대 앞으로 나온 어린 학생들이 OHP 그림자 인형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림자가 역사를 가르치네

B.C 120여년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시대. 사랑하던 부인을 잃은 무제는 비탄에 잠긴다. '환영만이라도 나타나준다면….' 결국 무제는 궁중의 무술사를 불러 왕비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명한다. 그러나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낼 재간이 없는 무술사는 왕비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벽면에 비추는 꾀를 낸다. 어두운 등불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본 무제는 비로소 왕비를 향한 모정(慕情)을 달랬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자극은 210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2004년 OHP(투명필름)을 이용한 채색그림자극으로 재탄생했다.



2100여년전 그림자극 OHP로 재탄생 / 대형스크린 통해 생생한 느낌 전달

서울시 후원 교육극단 '달팽이' 공연 / T.I.E 방식 관객 배우 함께 문제 해결

"보신각이 문화재라고? 에이~ 말도 안돼. 문화재라면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도는 돼야지."

서울 달팽이 찌르가 투덜댄다. 처음 서울나들이를 하는 시골 친구 미르에게 63빌딩, 코엑스 몰, 놀이동산 등 서울의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싶은데 보신각을 보자니. 어쩔 수 없이 미르를 따라 종로 보신각으로 향한 찌르는 영역표시를 하겠다며 종을 향해 오줌을 싼다. 쉬~. 순간 찌르와 미르의 등위의 집이 사라진다."어? 우리의 집이 어디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이들에게 무학대사의 전신인 행상 아저씨가 다가와 보신각종이 화났다고 말한다. 그 화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의 보물 5개를 찾아야 한다는데….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공연되는 교육극단 달팽이(대표 박주영)의 채색그림자극 '클릭! 역사게임 서울이야기'(1월 31일까지 대학로 인켈아트홀 1관)는 실루에트(silhouette), 즉 인형의 그림자를 스크린에 비쳐 형(形)의 그림자로 연기하는 그림자극이다.

서울이야기는 기존 그림자극 형식에 OHP채색기법을 접목해 주인공들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OHP에 컴퓨터작업이나 빛이 투과되는 스텐드글레스물감 등을 입혀, 대형화면에 투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소형화면에 투영돼 극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할 수 없었던 전통 채색그림자극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색의 느낌을 좀더 명확하게 전달해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듯한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극으로 돌아가 찌르와 미르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울의 5대 보물을 찾아 나선다. 행상 아저씨가 건내준 역사시계 뿌뿌뿌와 함께 서울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四神)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만나는 찌르와 미르. 이들은 서울의 4대 문인 흥인문(興仁門), 숭례문(崇禮門), 돈의문(敦義門), 홍지문(弘智門)과 종각인 보신각(普信閣)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다섯가지 도리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보물은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다. 이때 한양천도의 주역이었던 무학대사가 찌르와 미르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던지고 사라진다.

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이미 네 개의 보물은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이에 힌트를 얻은 찌르와 미르는 4개의 문이 보물이며, 처음 여행을 시작한 종로의 보신각종이 마지막 5번째 보물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극장안 가득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무학대사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관객들은 찌르와 미르의 여정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정신세계를 하나둘 배워간다. 그리고 참다운 보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같이 예술장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극적기술과 방법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T.I.E(Theatre in Education)라고 한다. 서울이야기는 T.I.E 방식을 통해 관객과 배우가 극장안에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공연전 Pre-Workshop과 공연후 Post-Workshop을 통해 공연에서 다뤄지는 공연목표와 제기되는 문제들에 적극 참여한다. 즉 한양천도와 사대문과 보신각의 축조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한 도시계획이었다는 것, 그 안에 국가의 사상이 가시적인 형태로 도출되고 있는 철학적 사고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연 후 직접체험을 통해 인형극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인 터 뷰



교육극단 '달팽이' 대표

박주영

▶ OHP채색그림자극도 T.I.E라는 교육형태도 생소한데.

OHP채색그림자극은 중국 전통채색그림자극을 관객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기술로 변형시킨 것이다. OHP채색기법은 디지니 뮤지컬 '라이언 킹' 제작에 참여한 인형 제작 전문가 스티븐 캐플린이 처음 고안한 기법으로 국내에는 작년 8월 세계적인 교육연극축제 '달라!연극축제(DALA festival)'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10월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OHP그림자극 '나무꾼 할아버지와 이상한 샘물'이 대중에게 선보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12월에는 서울시 후원으로 서울 시내 10여군데 구민회관에서 채색극 '보신각 종소리가 서울에서 울려퍼지다'가 순회공연 됐다. 아직 도약단계 이지만 T.I.E교육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T.I.E는 교육연극으로 쉽게 말해 극을 통해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육연극으로 열린사회 공동체 지향
사회문제도 인형극으로 다룰 예정
학교 커리큘럼으로 활용될 전망

▶ 교육연극하면 어린이극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다. 서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극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의 사내연수 프로그램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 역시 본 극단과 한국교육연구학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성인단체들 대상의 사내연수, 문제해결을 위한 공연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문제를 다룬 '노라의 선택' 같은 사회문제들도 인형극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육연극은 T.I.E와 가상적 상황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D.I.E(Drama in Education)로 나뉜다. D.I.E는 쉽게 말해 역할극이다. 현재 본 극단이 서울시 교육청 특수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D.I.E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D.I.E 는 학교교육활동 및 심리치료, 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교육연극은 1965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연극은 교육대상과 교육환경, 교육주제, 교육목표에 따라 극의 형식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의 교육연극은 지난 10년 전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현재는 학교교육의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연극 교재가 계속 연구·개발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및 자치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전사회적인 열린교육 방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자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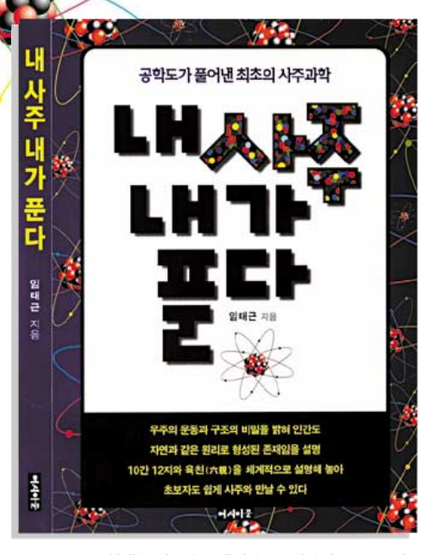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새해를 맞아 자신의 사주가 궁금한 분에게 일독을 권유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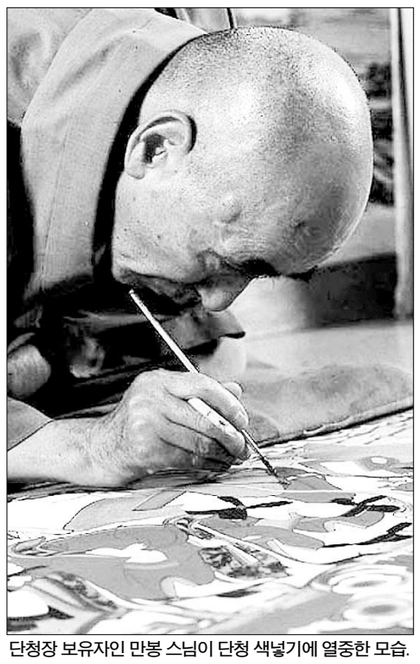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불교무형문화재 전승 · 보존 이대로 안된다 上 / 불교계 관심과 지원 현주소

불교문화 골격 지탱할 '힘'이 없다

기능전수 · 학술조명 뒷받침 제도 미약
'인재불사' 사각지대 … 행정절차 복잡


단청장 보유자인 만봉 스님이 단청 색넣기에 열중한 모습.

문화재청은 1월 12일 2004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와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90만원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21세기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운영 ·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UNESCO) 역시 10월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택, 세계유형문화유산과 함께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를 운영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종묘제례악'에 이어 '판소리'가 지난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돼 영산재 등의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외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아직도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걸음마 수준의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무관심에 노력도 없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불교 무형문화유산에는 단청장(제48호), 영산재(제50호), 목조각장(제108호), 대목장(제74호), 각자장(제106호), 주철장(제112호), 승무(제27호) 등이 있다. 이외에 지정돼 있지 않은 지화 장엄, 사찰 학춤, 사찰 음식 등을 포함하면 불교 무형문화유산은 무궁무진하다.

대목장은 전통사찰 건축양식 보존을 위해, 각자장은 세계 최고(最古)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역시 최고(最高)인 <팔만대장경>의 명맥을 잇기 위해, 주철장은 21세기 에밀레종 소리를 만들기 위해 불교계가 보존에 적극 나서야할 분야들이다. 공예계에서는 이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로 평가되지만, 불교계 내부의 노력은 전무하다. 불교무형문화재를 통틀어 단청장이나 영산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인들 개인의 노력에 의해 전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들은 '불교계'라기 보다 '공예계'에 가깝다.

조사 · 연구 미비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들 무형문화에 대한 역사적 기원이나 원형 복원을 위한 조사자료도 부족하다. 기본 자료 조사에서 활용연구까지 연구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범종 복원의 경우, 주철장 보유자인 원광식 씨는 오래전 맥이 끊긴 전통적인 밀랍 주조 방식을 복원했다. 그러나 원 씨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전통 범종 주조기법을 복원하는 동안 불교계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2002년부터 조계종은 전통 불교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화 장엄 장인을 발굴, 제작 과정을 자료로 남겼다. 올해에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래되는 사찰 학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불교 무형문화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물론 지금까지도 없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형 성보 문화재에 비해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현재 불교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무형문화 보존 단체를 조계종 문화단체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자 지정 공백 맥 끊어질 우려

영산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된 이후 벽응, 송암, 일응, 지광 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됐으나, 최근 몇 년간 보유자였던 스님들이 모두 입적해 보유자 가운데 생존인물이 없어 그 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현재 구해, 일운, 송강, 기봉 스님이 전수교육보조자로 영산재 보존회를 중심으로 그 맥을 잇고 있지만, 보유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조현중 사무관은 "현재 영산재 보유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자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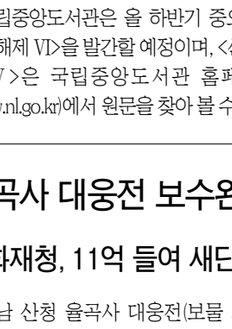
자격시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 지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보유자로 지정되면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1996년에는 사기장 지정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97년에는 단청장 지정 조사에서 보유자 후보의 친형이 자격심사에 참여해 입방아에 오를 만큼 객관성 시비는 계속돼 왔다. 한 단청장 전수교육보조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경력 · 실력 · 인격의 3가지 면에서 보유자 등 각각의 위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보유자 지정 과정에서 자격시비가 없을 때 비로소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희귀고서 해제본 발간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 V' 펴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고서 229종 633책에 대한 해제와 사진을 함께 수록한 <선본해제 V>을 발간했다.

<선본해제 V>에는 1451년(문종 1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과 보물 제965호인 <육경합부>도 수록돼 있다. <육본합부>는 조선 인수대비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불설아미타경>,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대불정수능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 등 6가지 경전을 모아 인출(印出)한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 하반기 중으로 <선본해제 VI>을 발간할 예정이며, <선본해제 V>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원문을 찾아 볼 수 있다.

율곡사 대웅전 보수완료

문화재청, 11억 들여 새단장

경남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이 2년여 동안의 보수공사를 마쳤다.

문화재청은 1월 14일 2001년 6월 말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에 착공했던 율곡사 대웅전의 해체보수 · 단청공사를 지난해 12월 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係) 건물로 내부에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조선 중기 건물이다.

해체 과정에서 대웅전의 어칸 종도리 하부에서 '康熙 十八年 己未月日 上樑記(강희 십팔년 기미월일 상량기)'라고 적힌 묵서명 기록이 나와 대웅전이 조선 숙종 4년에 대대적으로 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8>

생명, 우주 그리고 불교

연기적 인과 초월한 세계는 없나?
조건에 지배 안되는 '열린세상' 보라

지금까지 말했듯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연기적 세상이란 '부증불감'이라는 닫힌 세계 내에서만 성립되는 모습이다. 한편, 닫혀있다는 것은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연기적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열린 세상은 없는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빅뱅(Big Bang)을 들고 있다. 태초에 무한 질량의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된 큰 폭발로 우주가 생겨나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치 손전등을 켰을 때 작은 전구로부터 빛이 양쪽으로 널리 퍼져가듯이 말이다. 이 팽창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역사가 탄생하고, 빛의 속도라는 제한 요소 안에서 팽창하는 우주의 범위가 형성되고 있음은 영국의 호킹 박사가 쉽게 설명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라는 경계로 만들어진 이 한정된 우주 속에서 성립되는 연기적 세상은 인과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래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러면 이 빛의 속도를 뛰어 넘어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우주 밖의 세상은 어떨까? 그 세계는 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닫힌 연기적 세계도 포용하고 있을 커다란 우주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의거한 과학은 결코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은 인과가 떨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기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로 정리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과 선사들의 표현을 보면 닫힌 세계를 뛰어 넘어 넓은 열린 세계를 전해주고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닫혀있다는 것은 그 상태를 규정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연기적인 세계 속에서는 '없다'는 말이 '있다'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열린 세계에서는 그 세계를 규정하는 조건 자체가 없기에 '있다',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경이나 이러한 세계를 알아차린 선사들은 굳이 우리의 말을 이용해 '있다'는 것을 뛰어넘은 무언가를 표현할 때 '없다'가 아니라 '있지 않다'라고 표현한다. 깨어있는 자는 이 뜻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옛날 양무제도 달마대사의 그 넓은 '알지 못한다(磨云, 不識)'를 오직 연기적 작용만 아는 길들여진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 받아들여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알고 보면 '모른다'와 '알지 못한다'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다.

이 세계를 선사(禪師)들은 말을 떠난 자리라 굳이 표현했다. 아니 말로 갈 수없다 했다. 그것은 생명(生命)의 자리이다. 비록 생명체(生命體)는 연기적 작용이 성립하는 닫힌 세계 속에서 펼쳐지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윤회를 거듭하지만, 이 몸이라는 사대(四大), 육근(六根)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의 본 자리(本面目)는 중중무진 끝없이 펼쳐진 열린 세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맛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제1회 불교 어린이 천문학 교실

- 마음이 큰 아이들이 천재다 -

아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 · 도리천 · 사왕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가 실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임을 알게 하며, 수 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 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번 제1회 <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모든 교육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기 간 : 2004년 2월 4일(水) ~ 2월 6일(金) - 2박 3일 - (2월 4일 11: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타수행원」
✱ 교 육 비 : 150,000원(1인,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 30명(접수 순에 의함,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생과 그 어머니(중, 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1. 밤 별 보기 - 19:00 ~ 23:00 2.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서울대 교수)
✱ 교 통 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당일, 오전 11시까지)
✱ 담 당 : 혜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 비 물 : 방한모, 장갑, 양말, 방한화(천체관측 때 춥지 않게)
✱ 연 락 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dopiansa@kornet.net

주최 : 도솔산천문대 주관 : 파라미타수행원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마늘이 좋은걸 알면서 냄새때문에 망설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 · 장정 · 식욕부진 · 정장 · 변비 · 보온 · 향균 · 구충 · 정신안정 · 이뇨 · 혈압강화 · 각기 · 신경통 · 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회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행자님 모십니다
▷접수마감일 : 1월 30일
▷접수처 : 한국불교조계종유지재단 총무원 청운사
▷위치 : 경기도 여주(나이제한 없음)
031)881-3371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앙사 055-882-3455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 싶은 남여
행자님을 모십니다
031-868-1832~3
011-9822-6469
경기도 동두천 옥금산 불면암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불교 전통 의식과 국악예술의 만남
-예수재 천도재 점안식 49재등을환희심과 감동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017-856-56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 경남
011-9346-5719

함께 수행하면서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삼각산 원각사
02)391-5975
011-9971-5975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052-254-5125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016-787-9409

공양주 모십니다
▷ 침식 출퇴근 가능
어머님 합창단 지휘자 피아노 연주 자원봉사자 모십니다
031)978-9782
(경기도 광명사)

불사하시면서 평생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5세 미만 ▷ 충남
010-3146-0852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이천
031-641-6311

부전비구스님을 모십니다
▷ 대구
053)961-0224

1. 천일기도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 합창단을 이끌어주실 피아노선생님을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큰스님 밑에서 불교를 정법으로 배우실 행자님(남)을 받습니다
031-542-0295
011-9894-0777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북 경주시 양북면
054)776-7250
016-278-91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청 주
(50세 이상)
011-459-3282

부전스님과 법당보살님을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
016-521-0003
054-975-0003

천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부전 스님 모십니다
051-524-8932
보광정사

산세수려하고 매년 10월이면 법비가 내리는 영험도량에서 기도하실분 스님이 되고 싶은 남녀행자 모집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033)672-2900

배우자 구함
鄭惠溶(48세)
大田에서 인테리어(건재)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학사, 학림사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할 인연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하시고 인연이 되면 만나 뵙고자 합니다. 017-401-2023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50%이상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자 - 자 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H·P: 011-302-8435, 011-249-3378, 011-898-4680 e-mail: neungin@chollian.net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 2004년 2월 11일(화)-12일(수) 주 1회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인생역전, 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행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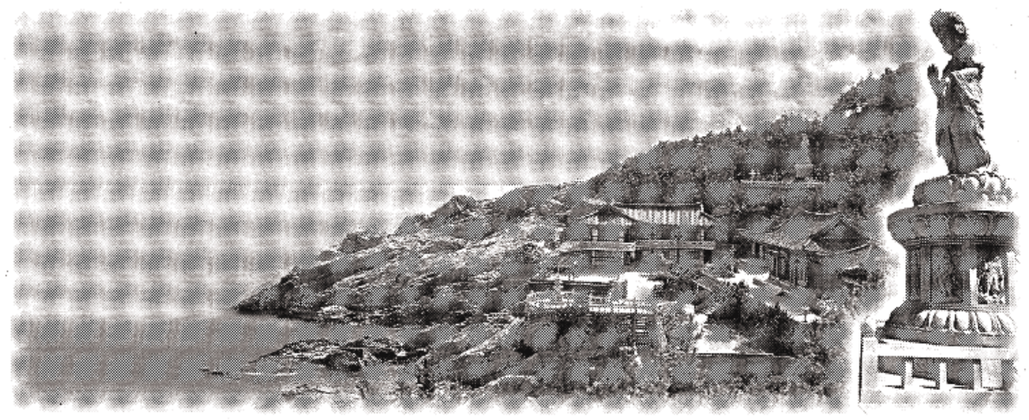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고급 사주프로그램 3만원
▶컬찬리 판매중 - 기간
▶고급형 사찰종무관리프로그램 증정 2004.1.31까지
▶고급 사주프로그램(시중동급제품 70만원)
- 사주내용 : 사주, 이사방위, 궁합, 택일, 작명, 부적(인쇄가능), 사주 전문가도 만족
- 계좌번호 359-04-534378(조흥 : 오정택)
- 연락처: 018-270-1856
- 본원기획 오정택 실장 - (주)지우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가입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당신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2. 4(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과 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높은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2. 6〔09:00~12:00〕 ※주말반, 개인지도가능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수준까지 지도해 드립니다.
▶ 개강 : 2004. 2. 6 (주 1회,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각본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남원 ●법당 : 20평 ●요사 : 60평 ●납골탑 : 100기 ●부지 : 2000평 ●가액 : 1억9천
- ●위치 : 경기여주 ●법당 : 15평 ●요사 : 70평 ●부지 : 2050평 ●가액 : 3억
- ●위치 : 충남서산 ●법당 : 20평 ●요사 : 110평 ●부지 : 900평 ●가액 : 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 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습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 찰 안 내

- ● 위 치 : 충남
- ● 부 지 : 1200평
- ● 법 당 : 11평
- ● 요 사 : 20평
- ● 가 액 : 2억 5천
- ● 위 치 : 경기
- ● 부 지 : 2000평
- ● 법 당 : 30평
- ● 요 사 : 2동 70평
-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 4500평
- 요사채 3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새로절을 불사할 분만 전화요망
- 납골묘 300기

041)841-0751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서 5분거리
- 건물 평수 : 총 40평
- 임법당 10평외 방4개, 목욕탕 2개
- 조건 : 매년 도지 18만원외 묘지관리
- 가액 : 6천 500만원

033)662-8713
010)3030-8713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서울 종로구 교북동 3층 30평
- 법당1, 종무소1, 방1, 주방1,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단, 관음, 단군탱화, 영단
- 가액 :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1개월정도 스님이 도울 수있음)

02)385-6708
011-392-6231

사 찰 안 내

- ● 위치 : 강원도 명산
- ● 부지 : 1500평 ● 법당 : 35평
- ● 목재 : (5포, 7포)
- ● 요사 : 70평(목재)
- ● 양도가 : 12억
-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 위치 : 충남 금산 소재
- ● 대지 : 400평
- ● 법당 : 25평(목재,황토)
- ● 양도가 : 2억2천
- ※ 수행 암자로 최적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법당 : 대지 97평,
- 1층에는 대웅전, 산신, 용왕단
- 법당 2층 : 천불전
- 요사채 대지 85평
- 지하 식당, 1층 사무실, 2층 살림집
- 가액 : 7억
- 가정주택으로 등록되어있음

055)288-083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토굴안내

- 위치 : 홍천 양덕원
- 건물 등기 20평
- 텃밭있음
- 가액 600만원

017-379-2201
031)772-6193
서암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부지 1천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41)567-0392
011)723-6640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흥덕사지옆 흥덕사원
- 평수 : 총 60평 법당 15평, 방 4개, 거실, 목욕탕, 부엌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1-806-4867

단독주택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46-312 (산, 임야와 인접하여 있음)
- 평수 : 대지 점유면적 약 120평 (대지 70평+국유지 약 50평
- 건물 : 약 35평(1층 슬라브건물) (방 4개+화장실3개+넓은거실) (6년된 신축건물로 건물상태 깨끗함)
- 주위환경 : 본 주택옆에 약 1100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형주차장, 체육시설, 휴게실등 편의시설 있음 수십그루나무, 탁트인전망, 그림같은 조경, 하루종일 새소리가 있는 도심속 전원주택이며 사찰用으로 개조가능함
- 가액 3억원(은행감정가 2억 8천만원) 융자 1억 7천만원(국민은행)

011-9914-8837(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 대지: 100평
- 임법당(임대) 방3개, 주방1개
- 가액: 7천만원

011-888-01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방동 계룡시 인접
- 대지 70평, 임법당, 건물 40평
- 방3개, 주방 1개
- 보증금 100만원, 월 17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와서 운영 가능

033)672-2900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40평
- 보증금 전세 4천500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옥상사용가능, 철학관으로 좋음

011)662-7372
016)344-1129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4층 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1개, 주방1개,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역학을 할 줄 아시는 분 환영
-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9852-8386
051)782-9386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33)766-0057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 선본사 방향
- 법당 : 목조 21평, 요사채 슬라브 30평
- 대지 180평, 노천 용왕당
- 입구까지 포장도. 주차 30대 가능
- 산세가 좋고 계곡물 흐름
- 지하수 1일 500톤. 창건 1년
- 가액 : 3억3천만원(중개불요)

011)860-201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교통 전철 편리.
- 상권 지역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16)368-691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문현동
- 대지 120평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 전세 5000만원

051)636-3418
011-876-864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선원 안내

- 위치 : 서이천IC 10분 거리
- 대지 278평, 건평 250평. 3층 건물
- 가액 : 4억
- 1 · 3층 홀 , 큰 방, 화장실 ● 2층 방 7개, 화장실

011)325-5199/031)632-5664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30평
- 보증금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11)662-7372/016)344-1129

양택·풍수·역학의 기초이론에서 고급 실전까지!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노영준 회장의 명저!

단 한권을 읽어도 풍수와 사주에 눈을 뜨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원리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든 이론과 실전 제시

전9권
양택풍수 초급 (실전인테리어)
양택풍수 중급 (주택인테리어)
양택풍수 고급 (고급인테리어)
명당의 기운 (패철사용법)
명당의 기운 (실전풍수)
명당의 기운 (패철화복론)
역학의 비결 (사주 초급)
역학의 비결 (사주 중급)
역학의 비결 (사주 고급)



경덕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653-40 백산빌딩
구입문의 / TEL 02)912-0856 917-6240 FAX 02)912-4438
전권 양장(각권 450~550쪽) / 가격: 각권 20,000원

운명을 알면 천하가 보인다!

명리학원리대전
크라운판 / 양장 / 796쪽 / 35,000원



경암 신영대 선생이 집대성한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

명리학을 새시대의 정신에 접목한 명쾌한 해설!

그림으로 배우는 사주원리
범전 김춘기 선생
크라운판 / 양장
409쪽 / 25,000원

그림으로 배우는 사주명변술 신살·격국 총정리
범전 김춘기 선생
크라운판 / 양장
465쪽 / 25,000원

原題 : 一片金 눈을 뜨면 땅속이 보인다
김선술 · 석한섭
신국판 / 반양장
298쪽 / 10,000원

구입문의
TEL 02)914-1621 FAX 02)912-4438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653-40 백산빌딩
백산출판사

일주문



동화사 승가대학 제1회 졸업식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1월 16일 동화사 화엄당 앞마당에서 강원 학인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대학 제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불교신문 지령 2000호 축하 리셉션

불교신문사장 향적 스님은 1월 27일 오후 6시 서울타워호텔 그랜드볼룸 신관 1층에서 불교신문 지령 2000호 발행 기념 축하 리셉션을 연다.



24일까지 괴목 대신제

충남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은 1월 24일까지 갑사와 계룡면 갑사동 인근지역에서 괴목 대신제를 봉행한다. (041)857-8981



김포불교대학 제1기 졸업식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김포불교대학장 월우 스님은 2월 7일 오후 3시 본관(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제1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 제45회 산행모임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북한산 일대로 제45회 산행모임을 가졌다.



공불련, 28일 신년하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1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청, 갑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한성대에서 명예철학박사 받아

세서미각(細書微刻)가 김대환 씨는 1월 16일 예술적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인정받아 서울 한성대학교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운불련, 2004년 임원단 회의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조홍인 회장은 1월 29일 김제 금산사에서 2004년 임원단 회의를 열고, 신년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대불청, 2월 1일 정기총회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은 2월 1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제47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04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한다.



'진흙에 물들지…' 출판기념회

청와대 前 시민사회국장 성재도 씨는 1월 17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군 포교 매진 특명 받았습니다"

김태복 장군, 27일 전역식

"지난해 불명예 전역을 당할 뻔 했지만 정식으로 전역식을 하게 돼 군인으로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2월 군검찰로부터 군법당 불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당한 뒤 계급과 직위마저 박탈당한 김태복 장군(60 · 혜천 • 사진). 지난해 9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부터 현행 군 인사법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받아낸 김 장군이, 1월 27일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인천 17사단 연병장에서 전역식을 한다.

김 장군은 헌재 결정 후 지난해 10월 27일자로 육군 현역 소장으로 복귀했다. 국방부에 6개월 연장 근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3개월 뒤인 27일 전역식을 하게 된 것이다. 1966년 육사 입교 후 만 38년의 군복무를 마치는 것.

"전역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명예회복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법당 불사가 뇌물수수로 확정된다면 이후 군 포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복명예회복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정산)는 지난해 위증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최모, 박모 소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

김 장군은 제9회 포교사 고시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김 장군은 "포교사로서 군 포교에 매진하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도/와/주/세/요

박원구 불자, 간이식 '인연'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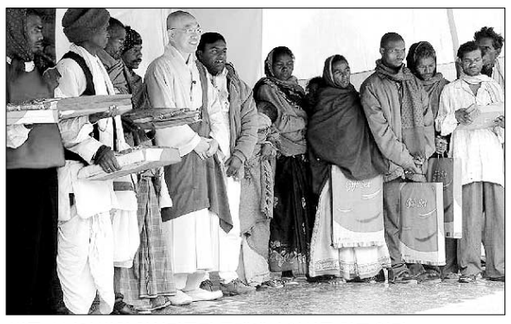
왕성한 불교 활동을 하던 한 청년 불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신속히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박원구 불자(사진)는 며칠째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간이식 희망자가 나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식가능 혈액형은 B형과 O형.

연락처: 011-9592-3509. 계좌번호 : 006-21-1103-644 국민은행(예금주 박원구)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10주년 법회 8일 현지서

JTS(이사장 법륜)에서 설립한 인도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교장 쁘리앙카) 10주년 기념식이 1월 8일 현지에서 열렸다.



법륜 스님이 법회 참석자들과 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 인도성지순례단과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및 선생님, 마을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2002년 기술중고등학교 건축 도중 무장강도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 설성봉 영가의 영가천도와 태권도 시범, 댄스 및 민속음악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수자타 아카데미는 10년 전 구걸하던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법륜 스님이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1993년,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신 전정각산 아래 둥게스와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땅을 기증받으며 시작됐다.

1997년 1월 수자타초등학교가 완공됐고, 2001년 지바카 병원이 지어졌으며, 2003년 1월 기술중고등학교가 들어서 현재의 수자타아카데미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 법륜 스님은 "이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고, 마을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지요"라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불국사서 신년포교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10~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과 불국사, 석굴암 등에서 포교원장 도영,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 포교지도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도영 스님은 입제식에서 "신년포교전진을 결의하는 오늘 이러한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서원과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포교전진대회에서는 포교, 신도단체, 직능단체, 교구본사 포교국장 등 포교, 신행단체 관련 대표자들이 모여 단체간 유대를 강화하고 내년 포교사업의 기조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포항시민 안녕 위한 신년법회



포항사암연합회(회장 경천)는 1월 14일 시그너스호텔에서 지역 사찰의 스님들과 불교계 대표, 정장식 포항시장, 공원식 포항시의회의장을 비롯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민의 안녕을 위한 갑신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길복지관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영등포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상길 관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쌀 모으기 행사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고 말했다.

산악인 불자들 통영 벽방산서 시산제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와 대구 관음사 · 영남불교대학 산악회(회장 한수범)는 1월 11일 경남 통영 벽방산 정상에서 제3회 합동시산제를 봉행했다.

이날 합동시산제에서는 영 · 호남 불자 산악인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인사

조계종 포교사단 집행부 △수석부회장 임희웅 △부단장 진철희 • 곽명희 △군포교분과위원장 한연수 △염불포교분과위원장 최원일 △계층포교분과위원장 강홍원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김활선.

서울 능인선원 신도회 △금강회장 강영식 △총간사장 장정희 △수석부회장 한동기 △부회장 양태식 • 이종원 • 심재영 △감사 김영하 △기획실장 조병옥 • 진윤옥 △홍보본부장 김용언 △교육연수원장 이철만 △봉축단장 선영석 △수련원장 연제성 △사경원장 이용규.



생활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전법사 대학 대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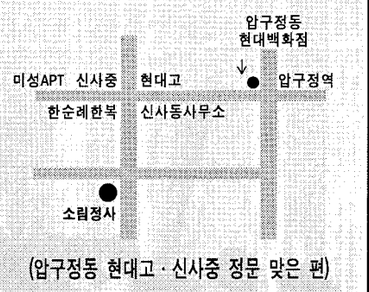
이시대를 대표할 불자님을 양성하는 최고의 수행과정을 지향합니다

자아완성과 전법도생 불교중흥의 원력을 성취하기위하여 신심있는 불자님을 위한
전법사 대학 수행과정을 특별 개강하오니 입문 동참하여 대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4년 1월 19일(월) 오후 1시
❀ 매주강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강좌내용 : 불교교리, 참선, 의식, 포교학, 상담학, 건강기공, 수지침, 동양철학, 건강 태극권
❀ 기 간 : • 기본과정 : 3개월 • 중급과정 : 3개월 • 고급과정 : 3개월 • 연구과정 : 3개월
❀ 대 상 : 1. 각급 불교대학 졸업자 2.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3. 불교 대학원 졸업자 4. 신행단체 임원 불자
5. 뛰어난 신행으로 전법사의 자질이 인정되는 자 ◎ 제1회 여전법사 과정임
❀ 교 수 진 :
• 불교교리 (불교계 최고권위의 교수님단) • 동양철학 (정현우 박사) • 수 지 침 (김두엽 선생)
• 법화경 (석지형 스님)

❀ 건강태극권 : 소림사 공법을 연마한 기공 대가의 건강태극권 특별지도
❀ 축원동참금 : 매월 20만원
❀ 특 전 : 1.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전법사로서 크나큰 공덕과 업적을 성취하도록 수준 높은 책임교육 실시
2. 수행과 전법에 모범적인 불자는 포상 및 적극 후원
3. 수료 후 포교원 혹은 포교당 개설시 적극 후원
4. 장학금 지급 (전법사대학 수행 불자 전원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佛"자 100만자 수행의 원력으로 순금분 · 오죽주액 · 경면주사등으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친필조성한 최고급 "佛"자 족자 무상보시



(압구정동 현대고 · 신사중 정문 맞은 편)

서울 소림정사 · 불교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 3443-9871~7 / 511-6210~5 (FAX:511-6214)



불자 세상보기

임 영 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독도, 우리땅 독도여!

최근 독도의 그림이 들어간 환경 생태계 우표 발행을 둘러싸고 일본 정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가관이다. 한 장관은 자기들도 독도가 들어간 우표를 발행하자고 하는가 하면, 수상은 독도가 엄연히 자기네의 땅이라 천명하였다.

그 장관은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여 양국 정상의 만남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람이고, 수상은 담화 발표에 앞서 전격적으로 일본의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함으로서 식민지통치에 치를 떠는 우리 국민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인물로 일본 극우파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그 섬에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독도와 그 주변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영토확장에 집착이 강한 섬나라 사람의 근성 때문이다. 중국 · 대만과는 조어도열도(鳥魚島列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열도의 반환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동경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꾸라지마(櫻島)는 간조 때에 약간 물 밖으로 나오는 암초와 같은 곳인데 이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쏟아 부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인 것이다.

일본에게 독도는 1905년 러시아 발틱 함대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일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때문에 대한제국도 전혀 모르게 무단 점유한 일이 있던 유서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국제법상 영토점유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보다 일찍 인지하고 실효적인 점유를 계속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5세기 초엽인 조선 태종(太宗) 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2조(「鬱陵)군청을 台霞洞에 두고, 그 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 · 石島를 관할함)로서 근대적 영토편입 요건을 갖추었다.

그 중간에 한반도 해역 전역에 내려진 해금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잠깐 독도의 존재가 잊혀진 적이 있었으나, 강원도 연해지방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인지하였고, 18세기 말엽인 조선 숙종(肅宗)때에 울릉도 수토제도가 확립되면서 다시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인지의 영역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것도 울릉도와 혼동하는 정도였고, 이 같은 상황은 20세기 초엽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직전에 와서야 인지가 확정되는 정도였다.

또 이 고시가 국제법상 영토편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의 일이었던 데다가 일개 지방청의 고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고, 전략상 필요에 의해 취해진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여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주장을 계속하는 까닭은 제2차 대전의 패망을 만회하기 위한 우익정치인의 배외감정 앙양책과 저널의 무분별한 논조에 그 원죄가 있다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조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까지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게다가 잠깐 달아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저들이 깔보는데도 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승가교육을 '선교육 후득도' 체제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선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구(니)계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높은 자질의 수행자를 보유하여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겠다는 조계종단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그만큼 수많은 개선책이 제시되어온 승가교육의 체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번의 개혁이 피상적인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말고 승가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 해결책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선득도 후교육'이냐 '선교육 후득도'냐가 승가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피교육자인 스님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또 불교 다방면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들이 제공되지

승가교육이 중요한 이유

않는다면 단순히 선후를 뒤바꾸는 것으로 승가교육이 혁신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육내용과 현대적인 요구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복되는 교과과정을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가장 효과적이고도 밀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교육 기관을 통폐합하여 좀더 대규모의 교육장을 확보하고, 그 교육장의 시설과 교수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승가 교육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승가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 질 높은 피교육자(스님)를 확보할 수 있다.

불교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스님들의 자질과 권위를 불교신도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높이 인정하는 것이 불교 중흥의 초석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종단의 총력을 모아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불교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체계 갖추기를 촉구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아름다운 참회

악업을 저질렀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하고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악업보응경〉

후안무치(厚顔無恥).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의 하는 꼴에 이보다 합당한 말이 있을까 싶다.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할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그들의 특수한 신체구조(발뒤꿈치 수준의 안면 피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도 예외적 존재는 있는 법. 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참회록은 쓰레기더미 속에 짓눌려 시들어가던 희망의 싹이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묵인한 무력함이 부끄럽고, 묵인을 넘어서서 어느새 동화되어간 무감각함이 부끄럽고, 미숙한 자기 확신을 진리인양 착각한 무지함이 부끄럽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심 무시하고 배척한 편협함이 부끄러우며, …선배들께 감히 용퇴를 요구한 그 용감함이 부끄럽습니다.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이를 버리려는 데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대로 이제 실행하려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내탓이오'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세훈 의원의 결단을 다른 의원과 비교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초점을 비껴가는 일이다. 그의 돋보임은 '참회'에 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웠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유난히 참회가 강조된다. 허물없이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는 아예 허물을 모르거나 알고도 고치려하지 않는 데 있다. 인간됨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짓, 그것이 참회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계 나눔운동에 박수

올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이 예년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 등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올해 불교계에서 '나눔운동'을 벌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조계종을 비롯한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 소외계층을 위해 각종 후원활동과 모금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나눔운동이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자들의 동참이 없다면 벌이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인 종단과 단체는 물론 이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홍보, 회원관리, 이벤트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나눔운동은 불자들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은 이웃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마성찬(이천시 관고동)

도롱뇽 캠페인의 뜻

얼마전 대구 시내에 나갔다가 지율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대구에 와서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봤다. 신문지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 도롱뇽 소송현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있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텐데…. 무심코 지나칠 법하건만 스님이 중간에 있으니 불자로서 지나칠 수 없었다. 매스컴에서 봤던 지율스님은 생각보다 참으로 자그마한 체구에 평범한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러나 이 대구 도심 한복판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뭇 생명의 어머니 모습이었다. 진실을 가지고 선 저 당당함이 지금까지 마구 밀어붙였던 불도저를 멈추게 한 것이리라.

누구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나 역시 환경문제의 심각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을 뿐 마음으로 느끼진 못하고 있었다. 이제 도롱뇽의 친구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판장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엽서'를 봤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만물이 함께 존재하고 살고 작용함을 얘기했다. 그대로 진리를 보고 있음이리라. 실로 지구에 인간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 학생들의 서툰 그림에서 발하는 생명의 빛은 지나는 이들의 발을 멈추게 했고 동화되게 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편하려고 도롱뇽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라고 했다. 부디 이 생명의 소리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울려퍼지기를 바라며 소송인단에 서명을 했다.

배수경(대구시 황금동)

비구니 스님들 '화이팅'

조계종 총무원에 비구니부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첫 총무원 비구니부장을 임명한 데 이은 파격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불교계는 이런 변화에 둔감한 반응을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심지어는 사회를 선도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사회적 병폐인 여성차별의 온상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의 비구니부 신설 움직임은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종단내 존재하는 비구니에 대한 차별을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올해 8월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층 변화된 한국불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순진(서울시 상계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적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적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적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세계도황청 초대도황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교주 도불도주 추대



◇ 도황에 추대된 미륵대도 교주 도불도주

국제불교승가회에서 만장일치추대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서 대법회

국제불교승가회 주최 국운융성 기원 국제고승 백고좌 대법회(2003.12.24 청주시민회관)에서 대법왕인 도황에 미륵대도금강연화종의 도불도주가 추대되었다. 이날 추대법회는 국제불교승가회 세계도황청 조직위원회(이하 승가회 도황청)에서 세계도황 추대를 위한 인물 선정작업 및 추대위원회 선임 작업을 착수한 지 50여일 만에 봉행된 것이다.

승가회 도황청은 초대 세계 도황 추대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황으로 추대된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교주 도불도주의 추대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추대식은 국내 대승여래종, 선화종, 한국불교조계종 등 20여개 종단의 종정(대승왕)과 총무원장(승왕)및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스리랑카 등의 종교 지도자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고승백고좌 대법회와 도황 추대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국제불교승가회 회장 동암스님은 "90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세계불교의 교류와 동반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 온 국제불교승가회가 이제는 유명무실한 종단의 통합을 통한 한국종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대승적 실천승가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황으로 추대된 도불도주는 게송을 통해 "삼라만상 중생이 본래 성품대로 태어났으니, 정서적인 일념의 생활속에 성취가 되고 신심이 떨어지면 바로 지옥이요, 쉬지 말고 일념으로 정진하면 바로 도성이노라."고 밝히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국제불교승가회 관계자는 "민족종교인 미륵대도 금강연화종의 도불도주가 도황으로 추대된 이번 행사는 교리와 신앙의식이 다른 불교단체인 국제불교승가회가 종파를 초월한 범불교 차원에서 미래 종교화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 2003년 12월 24일 청주시민회관 백고좌 대법회

도황(道皇)

수행이력

나의 安胎故鄕은 無極나라이고 父母님은 太極 양위분이시다.
그리고 姓名은 一字無識이라 하고 나의 道號는 三皇이라 하며 學歷은 日月學院을 마치고 大道德 직업에 종사하며 現在까지 一平生 風雲 세월따라 修道生活을 하며 四時經典으로 중생제도에 여념이 없었으니 神秘하기가 至極에 달하고 奧妙하기가 精誠에 이르는 것이니라.

開天日月이요 開地風水이며 開人心性이니라
開空玄通이요 開然眞理이며 開經道德이니라

兩白山 浮石寺에서 千日기도회향 偈頌

木佛께서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土佛께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石佛께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銅佛께서 미관상에 털 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紙佛께서 가슴을 열고 닫는 것을 보았고, 肉身佛께서 머리에 세 줄기 불빛을 뿜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三生이 一心이로다.

偈頌

佛生我 報恩出世 如是說法 所傳以書
佛養我 報恩出世 奉法弟子 見聞覺之
佛教我 報恩出世 須免苦獄 當乘榮樂
佛悟我 報恩出世 解脫三途 周廻還生
南無阿彌陀佛 南無地藏大佛

이 설법을 지면으로 전할 것이니 봉법제자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지옥을 면하고 극락에 오를 것이며 삼악도를 벗어나 인도환생 할지니라.

노자부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가부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신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삼십년 만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봉법제자들은 나를 잘 몰라도 저 하늘에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성직자들은 나를 몰라도 유불선 성현님과 모든 선각자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신도들은 나를 잘 몰라도 천지신명님께서 나를 상세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자연 세계에서는 나를 너무나도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를 잘 알고 있듯이 성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천지신명님께서 나를 잘 알고 있듯이 신도 여러분들께서도 불원지간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세계에서 나를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세계 모든 종교의 대표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고 주인공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 세상에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나 어지러운 사회에 무엇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삼일도 앞날을 예측할 줄 모르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고 교화한다는 것이 하늘 보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가슴 아프게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각자께서 비결록이나 예언록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당래 미륵존불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해인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다고 하셨으며 금강연화대불님께서 주인이 된다고 하였고 건곤부모님께서 스승이 된다고 하였으며 메시아라고 하는 미륵성현께서 신부지(神不知)라 귀신도 알지 못하게 제민구세하시여 새로운 도덕 용화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륵부처님의 정법진리를 의심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구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고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 이 사바세상에 이미 하강하시여 대도덕법으로 억조창생을 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깨달았다 할 것이며 감히 누가 무엇을 안다고 소리를 낼 것인가.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성운이 다한 종교 속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말세 세상을 만드는 마군이에 불과하였었고 무엇을 아는 체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요괴에 불과하였으니 앞날을 훤히 내다보시는 성자가 계시다면 어찌 자비로운 눈물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륵부처님께서 전무후무한 신통력으로 죽을 곳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망하는 곳에서도 전화위복으로 성취케 하는 오묘하고 신비한 비결이 숨어있으니 첫째로는 양심의 신통력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진실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정직의 신통력으로 사회를 구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행화의 신통력으로 가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고이래로 이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나투시는 성현은 만고이래로 없었다고 확신하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미륵대불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신통력으로 자유도덕 세상을 창조하시고 평화도덕 국가를 창조하시며 정의도덕 사회를 창조하시여 온 인류를 먹이고 입히시어 살리시는 이치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진실 되게 앞으로 깨닫고 또 깨달아야만이 죄업의 인과가 소멸되어 겁운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행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가회와 미륵대도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세계에 종교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승가회와 미륵대도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마장이 따르고 곤란의 시련에 부딪치더라도 능히 극복하여 참고 견디어서 세계 종주국으로 발돋음하는 바탕의 일원이 되어 힘쓸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도설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오늘 국가운을 융성하게 하는 법회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법회와 계율을 수지하는 법회와 도황을 추대하는 대법회에 동참하신 봉법제자 여러분의 참다운 성취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말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출세 종교인이 되어 막식막행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자. 정도(正道)를 닦아 새로운 도덕세상을 창조하여 칠대조상부모님을 지옥에서 왕생극락케 하는 자가 되자, 계율을 지켜서 용화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조상부모님의 인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내 자손을 건지는 자가 되자. 미륵부처님의 제자로 인류의 스승이 되어 오만 년 동안 인도환생하여 자손만대로 부귀공명을 누리는 자가 되자.

彌勒大聖 阿彌陀佛
彌勒大聖 阿彌陀佛
彌勒大聖 阿彌陀佛

森羅萬象 衆生이 本來 性品대로 태어났으니 情緖的인 一念의 生活속에 成就가 되고 信心이 떨어지면 바로 地獄이요 쉬지 말고 一念으로 精進하면 바로 道成이노라.

南無彌勒大佛

미 륵 대 도
(사)미륵종교 협의회
(재)대도문화재단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84-3번지 전화 032)833-9095 팩스 831-8967

미 륵 대 도

미륵(彌勒)이란 말을 파자해 보면, 彌는 '찰 미'로서 천지인이 하나로 합치어 우주에 가득찬 것이고, 勒은 '굴레 륵'으로서 우주에 가득 찬 것을 끌고 간다는 뜻으로 본이삼고일인지상(本而三罟一絪之像)이라, 세고리를 한고리로 꿰어 이끌어 가는 행종사상이 미륵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인 합치어 하나의 정리(正理)가 되고, 선불유의 종교가 합치어 하나의 정법(正法)이 되며, 성심신이 합하여 하나의 정인(正人)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서 셋이 하나로 합치는 삼합일리가 되어야 비로서 正이 되는 묘행정리(妙行正理)의 일월도덕진리가 삼대(三大) 만고대성(萬古大聖)의 황중통리(黃中通理)이다.

미륵대도 종지(宗旨)

삼재응합의 일원지도와, 유불선 삼합일법과, 성심신 삼합일교의 삼인세전법칙과 천지무량지대(天地無量之大), 황인무위지도(皇人無爲之道), 진인무상지덕(眞人無上之德)을 구명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상제천지님의 자연정리를 교근으로 삼고, 민족시조님의 삼진귀일대리에 순응하여 홍익이념을 한민족의 가훈으로 정립하여 조석으로 문안봉심케 하며, 단군자손인 구세주 미륵대성의 묘행정리의 일월도덕진리로 인류를 용화세상으로 제도 교화하여 신령통달케함을 정명하야 일법일법을 깨달아서 만법귀일케하고, 일도일도를 닦아서 대도귀일케하며, 일교일교 가르쳐서 대덕귀일케하는 삼대원리로써 인류를 평등화목케하여 경건곤(敬乾坤)사상으로 제민구세함을 영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륵대도 발상성지

선각자께서 비결록에 지교한 엄택곡부 이인횡삼십이월록(二人橫三十二月綠)의 인천시 남구 옥련동 송도 청량산입니다. 하늘의 칠성봉으로 이루어진 청량산 혈맥은 바다의 어룡이 봉황으로 우화(羽化)하여 구만창천을 나르는 형국으로 천지님께서 하갈하실 천장지비(天藏地秘)의 생도량입니다.

미륵부처님 출세성운

석가부처님께서 미륵삼부경에 "56억 7천만겁(五十六億七阡萬劫) 후에 용화세상이 온다."고 예언하셨으니 미륵부처님의 육불용천 진리로 해석해 보면 '오십(五十)'은 미륵성현께서 '중앙무기오십토성운(中央戊己五十土聖運)으로 출세하신다는 뜻이며, '육억(六億)'은 '육인립일십(六人立日心)으로 서있는 여섯 사람의 마음이 태양같이 밝다는 뜻이니 육불세존이신 미륵성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부처님은 앉아 있는 좌불이지만 미륵부처님은 서있는 입불로서 진애세상에 출세하신다는 오묘하고 신비한 이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칠천(七阡)'이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며, '만겁(萬劫)'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된 세월을 뜻하는 것으로, 미륵성현께서는 천지창조 음양지신(陰陽之神)이신 칠성의 견우직녀 평등대운에 전생뿌리를 두시고, 성혼성(成婚聖)으로 처자식을 거느리고 제민구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지평등대불운이고, 선후중천오만대운이며, 전후정오운도(前後正午運度)의 삼일의성(三一義誠)사상이며, 금강연화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대상

창조주 천지님과 구세주 미륵대불님이시며, 건곤대성전(乾坤大聖殿)에 천지인 도법교와 원정방 대도덕진리를 표상하신 삼불세존 해인대불(海印大佛)님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내부신장이신 관성제군님을 모시어 신앙하고 있습니다.

미륵대도 경전

현문통천과 묘리각지의 묘과를 증득하신 도불도주님께서 하원갑자년(1984년)에 미륵대도 금강연화종을 세우면서 양심의 청정성(淸淨性)과, 진실의 자비심(慈悲心)과, 정직의 오륜행(五倫行)을 설교하신 경전으로, 건천(乾天)을 설하신 금강대장경과 곤지(坤地)를 설하신 연화대장경이 있으며, 천지인 도법교(道法敎)를 설하신 대도경, 대법경, 대교경과, 성심신을 바탕으로 한 대원경, 도원경, 덕원경과 대자연의 삼라만상을 설하신 천원경, 지정경, 인방경 등의 전무후무한 경전으로 오만대운의 법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으로 이루어진 용화세상에서는 미륵부처님 명호로 념선(念禪) 정진하여 천지인의 진기(眞氣)에서 나오는 오색의 36가지 텔레파시를 소생시켜야 전생 죄업의 인과와 온갖 마장재장을 소멸하여 일만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남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로는 칠대 선망부모님을 이고득락케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며, 빈천고에 빠지는 자손들을 건지어 천추만대로 부귀공명을 누리게하는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입니다.



‘보람의 뜨락’ 심/영/미 이사장

그대로 받아 들이면 행복이 와요

‘보람있는 집 – 민수네’

강릉시 교동 부영아파트에는 이런 글귀의 문패가 붙어있는 집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지만 이곳은 특별한 천진불(天眞佛)이 모여 사는 장애우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인 ‘보람있는 집’. 아파트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최용석(25), 김현기(26), 김민수(24), 권미선(24) 등 장애우들이 사회복지법인 ‘보람의 뜨락’ 심영미(48) 이사장과 함께 가위로 종이를 자르며 재활교육을 받고 있다.

아파트에 지체 장애우 주거공간 시작한지 5년 그룹홈 50여명 이용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미선이는 잘도 잘랐네.”

일반인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위질. 그러나 장애우들에게는 근육을 움직이는 일종의 재활놀이다.

심영미 이사장이 장애우 그룹홈의 문을 연 것은 1999년. 당시만 해도 그룹홈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다 아파트에 장애인 주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심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본인 스스로가 선천성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24)을 둔 부모의 입장이었기에 장애우들도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나 또한 정신지체 아들을 둔 부모이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지만, 정신 지체인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숙해지는 반면 마음은 언제나 아이로 남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을 함께 사는 즐거움과 보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과 합심해 처음 그룹 홈을 만든지 이제 5년. 지금은 ‘보람있는 집’과 단기보호시설인 ‘보람의 집’, 주간보호시설인 ‘배움터’, 생산물 판매시설인 ‘강릉공판장’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도 4명에서 시작해 현재는 모두 50여명에 가깝다. 앞으로 교동 택지지구에 장애우를 위한 전용 공간을 지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심 이사장은 하루 24시간이 짧기만 하다. 오전 6시 기상해서 복지법인내의 4개 시설을 둘러보고 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강릉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강릉시장애인연합회, 강릉복지관 등의 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녹초가 되지만 그는 자신을 쳐다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금방 피곤이 녹아 없어진다.

“좋아서 하지 않으면 절대 이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부모처럼 아들이 장애인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맑아지고 장애우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니깐요”

그룹홈, 중·단기 보호시설 장애우들과 심영미 이사장은 요즘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매주 일요일이면 장보기, 노래방 가기 등 세상속으로 외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것은 사찰문화기행. 부정기적으로 강릉 지역 사찰을 단순히 참배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아이들은 자연을 접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아들도 지체, 친구들 어울리며 밝아져 불황에 돈 걱정 … 전용공간 마련이 ‘꿈’

“아들이 성공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베드로 학교에 입학할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불교계에서도 장애우를 위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때문인지 아이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지만 가끔 사찰과 유적지로 문화기행을 갑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다녀왔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이들이 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즐거워했습니다.”

법인의 시설 규모가 커지면서 심 이사장은 최근 고민이 생겼다.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 심 이사장은 그동안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원장’, ‘이사장’ 등의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장애우들을 위해 ‘보람있는 집’ 옆 집 두채를 거액의 자비를 들여 임대했고, 국가 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시설 운영자금도 매년 자비를 들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더 이상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장애우들을 돌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늘 행복하다.(033)647-2700

농협 172996-55-002382 예금주 보람의 뜨락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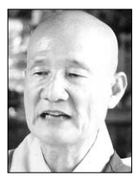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2>



부사의한 빛, 무량광 그리고 무량수

'이 마음의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들이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시다면, 우리는 결정코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붓다의 자비, 원력을 믿고 열심히 염불해야 합니다. 죽어서 가져가지 못할 재물, 명예만을 좇는 범부 짓일랑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소아(小我)를 버리고 선근공덕을 쌓고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나라와 세계평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외도(外道)를 멀리 하고 계율은 목숨같이 받들어 지켜야만 합니다.

독자 여러분, 붓다의 대해로 드는 관문이 무량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붓다의 경계입니다. 이제 무량광을 보아야만 붓다의 진신(報身)을 친견하게 됩니다. 이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경에서 말하는 800 눈(眼)의 공덕을 지은 수행자도 무량광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대에 붓다 이룰 부처님 아들만이 봅니다. 억겁의 업장과 습기가 녹아 없어져야 하고, 탐진치 삼독 등 번뇌가 녹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위신력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화엄경>에서 발바닥, 발가락, 양 무릎, 눈썹 사이 등 네 곳에서 부처님의 방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무량광으로 이뤄진 불신이 필요에 따라 방광하는 것입니다. <대반야경>에선 무려 41군데 몸 부분 부분에서 방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열반경>에선 "부처님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춘다"고 기록하고 있

무량광은 지혜이자 자비 견성은 붓다되는 첫 관문

부사의한 빛덩이를 봄이 없이 '나도 붓다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무량광(無量光) 무량수(無量壽)이기에 삼세의 여래가 하나입니다. 무량광으로 이뤄진 불신에서 백천만억의 화신을 냅니다. 이 무량광은 지혜 자체요 자비 자체가 됩니다. 청정 자체여서 부처님의 8만4천 신통과 삼매의 원인이 됩니다. 외도를 항복받는 힘이기도 합니다. 무량광의 기능은 실로 불가사의 합니다. 중생의 눈앞에 있지만 그 천문학적인 광도를 지닌 무량광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은 중생을 교화하실 때 화신(응화신, 변화신)으로, 그것도 비몽사몽, 꿈에 나투시어 이끄십니다.

무량광은 '무아 속 절대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즉 진불에 근거합니다. <금광명최승왕경> 제2권에 "화신과 응신은 이름을 붙여 그냥 있다 하는 것이요, 법신은 참으로 진실하게 있다는 것이다. 법신은 앞의 두 몸(화신과 응신)을 위하여 근본이 되는 것습니다.

이처럼 여러 대승경전에서 많은 붓다들이 계심을 볼 수 있는데도, '마음의 부처'요 '마음 밖에 부처를 구하는 것은 사마외도'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空)엔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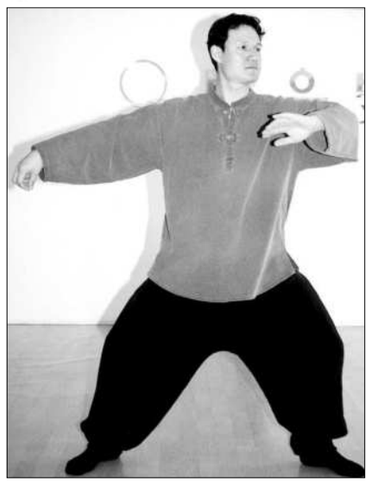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에 나오는 불성(佛性)이라는 말은 부처될 수 있는 가능성, 종자(種子)를 뜻합니다. 생각 이전의 마음, 본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견성(見性)이 바로 성불(成佛)이 아니라, 붓다를 이루어 가는 기나 긴 여정의 첫 관문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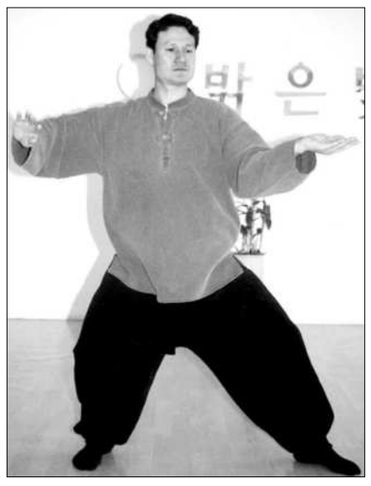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보물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자리, 내 주인공을 찾아 마음 속에 잠복해 있는 보물들을 개발해 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견성해서 자유와 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윤회의 속박을 벗어나 해탈 오계(悟界)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禪 태극권

만나봅시다 ▮ 심신수련센터 밝은빛 박종구 원장









작고 느린 것으로 크고 빠른 것 제압
환자 마음 안정시켜 심리치료 활용

"태극권 수련시 '한 생각도 없이 응해서 하라(應物自然)'는 이치만 터득되면 모든 동작이 다 태극권이 되어버립니다."

1월 1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심신수련센터 밝은빛'. 태극권과 선(禪), 명상을 함께 지도한다는 안내문을 보며 들어선 수련센터에서 만난 박종구(사진) 원장은 대한우슈태극권연맹 회장이란 묵직한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37세의 젊은 무도인이었다. 하지만 15세부터 태극권과 선(禪)을 공부해 이미 '무림고수'의 반열에 오른 그의 말에는 부드러운 가운데 상대를 압도하는 내면의 힘이 느껴졌다.

10여년전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과 선우회 대선행 보살로부터 참선을 배웠다는 박 원장. '움직이는 선(禪)'으로 불리는 태극권을 통해 참선 공부의 전기를 얻었다는 그에게 태극권이 '동선(動禪)'인 까닭을 물었다.

"태극권 수련을 하면 할 수록 세속의 고뇌들은 차츰 씻겨지고, 어느새 마음의 고요와 평화의 세계가 펼쳐지는 묘미가 생깁니다. 수련 도중 각각의 자세가 바로 잡히고, 그 상태에서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생각마저 떠나는 순간, 몸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무아의 경지는 참으로 황홀할 만큼의 기감(氣感)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상태는 참선에서 화두를 잡고 몰입하는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원장은 무술 초식(招式, 무술 동작들)의 발전 과정과 절대적인 힘과 조화를 추구하는 단계를 지나 '초식의 무용(無用)단계'에 이르면 선의 경지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뤄 득력(得力)하면 차츰 초식이나 형태가 없어지게 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 조차 필요 없어지고, '상대와 내'가 일체가 된 동일감을 맛보게 되죠."

이 때는 상대방의 무술동작이 형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수준까지 다다른다. 상대와 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마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자연스럽게 응하는 '응물자연'의 상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태극권에서는 동작시 '마음 속에 한 생각도 없이 일관(一貫)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누가 부를 때, '응!' 하고 대답하는 바로 이때와 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내 몸안에서 그것에 일관되게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태극권에서 믿음의 중요성은 선과 마찬가지다. 이를 테면 태극권에서 상대방에게 경(勁)을 쓸 때, 발이나 팔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이것을 못 믿게 한다. 태극권에서 3년에서 10년까지의 숙련기간이 걸리는 것은 이것을 믿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된다. 태극권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고, 느린 것으로 빠른 것을 제압하는 것이다. 흔히 '넉 냥의 힘으로 천 근을 튕긴다(四兩撥千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는 이유는 못 믿기 때문이라 한다. '초발심이 바로 깨달음'임을 강조하는 선문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

이밖에 태극권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요령 역시 마음을 중시함을 볼 수 있다. '마음으로써 기를 운기(運氣)하고 기로써 몸을 다스리고 움직이라.' '뜻(意)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가르침은 예민하게 깨어있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심지어 태극권의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 역시 선의 방하착(放下着) 원리와 다름없다. 기나 마음이나 뜻의 작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태극권의 기본 요령

- 마음으로 운기하고 기로 몸 다스려라
- 힘쓰지 말고 뜻 사용하라

동중정(動中靜), 정중동(靜中動)의 원리와 동작을 통해 심신합일의 경지를 추구하는 태극권. 지극한 마음의 평화와 함께 기의 활달한 유통을 가져다 주는 탁월한 효능으로 현대인에게 무예로서 뿐만 아니라 심신건강법이자 수행법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기공과 명상의 효과도 탁월해 '궁극의 기공'이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는 태극권은 참선 수행자에게도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경험담이다.

그가 태극권과 선의 공통점을 찾아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태극권의 성취가 깊어질 수록 무언가 허전함을 느껴 차츰 선(禪)적인 방면에 심취하게 됐죠. 선은 태극권을 하기 전부터 공부해 오던 것이었지만, 태극권에서 말하는 태극음양의 이치는 어떻게 몸에서 실현될 것이며, 이것이 몸에서 실현이 되더라도 어떻게 도(道)와 일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러한 그의 오랜 의문은 95년을 전후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중국 북경의 천단공원에서 추수(推手, 태극권의 대련)를 하다가 사기종인(捨己從人, 자기를 버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름)의 이치를 터득하면서 태극음양의 이치가 탁 터졌다. 그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선의 이치 또한 나름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그에게 태극권의 동작 하나하나는 선기(禪機)가 충만한 것이었으며, 도와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제 박 원장은 선과 태극권의 원리를 응용한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면서, 건강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태극권을 지도하고 있다.

박 원장은 무예와 양생을 아우르고 그것을 뛰어넘어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대중화하고 있다. 소우주인 우리 몸 속에서 밝게 깨어 빛나고 있는 본성을 이끌어내 대우주와 합일하고 그 비밀을 엿보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밝은빛 태극권'이라 이름한 것도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는 본성의 빛을 발양하여 하늘의 비밀을 탐색하고자' 한 까닭이다. (02)534-9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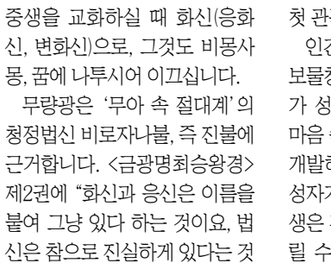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리 강좌 (18기)

불교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불교교리 및 불교의식을 혜거스님께서 직접 알기쉽게 강의 하십니다.
기도와 참선, 의전 등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개 강
2004년 2월 25일 (수)

시 간
매주 수요일 – 오전 10:30 ~ 12:00
오후 1:30 ~ 2:30
(점심공양 제공)

기 간
4개월

※ 문의 및 접수 :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전화 : 02-445-8484
fax : 02-445-8043

佛紀 2548 年 謹賀新年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석봉 (전도용)
부 종 정 혜 공 (이재선)
총무원장 혜 광 (사일복)
종회의장 추 봉 (정금호)
사정원장 정 봉 (류해원)
재정원장 청 봉 (이인교)
포교원장 지 운 (윤태영)
교육원장 진 봉 (김정완)
수선원장 오 봉 (김규채)

총무부장 청 봉 (이인교)
교무부장 혜 정 (조경자)
재무부장 지 겸 (김복남)
규정부장 허 부 (이부영)
사회부장 성 원 (이경호)
문화부장 혜 곡 (임병희)

불기 2548(2004)년 3월 25일(음, 윤 2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충주(중앙탑) 국운융창 국태민안 기원 만등불사 대법회에 각 사암 주지 큰스님께서는 지극한 애종심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근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3-44번지 혜림사(내)
전화 02)379-4631-2 / 전송 02)379-4632

체위-호흡 조화로 우주의 氣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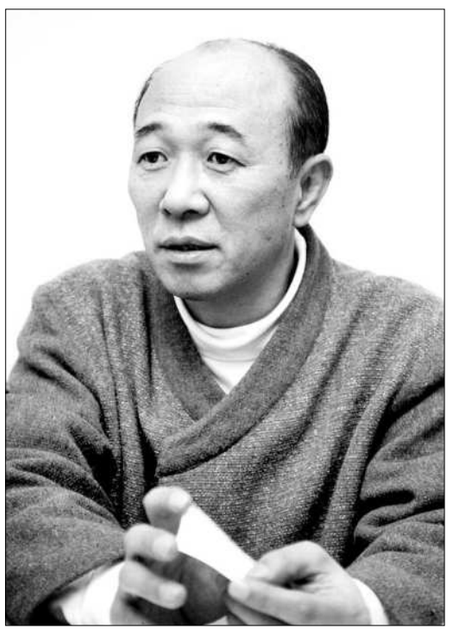
한국요가연수원 이태영 원장에게 듣는 '하타요가'

요가 서적, 요가 비디오, 요가 웨어, 요가 수련원 등이 문화의 중심에 서있는 시대. 2004년 현재, '요가'가 바야흐로 화려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을 달궜던 요가가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붐을 타고 대중 속으로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것. 이 같은 인기와 관심은 다양한 변용으로 이어졌다. 참선요가, 도교 요가, 심지어 기독교 요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요가가 특정 사상에 맞춰 변용되는 실정이다.

"요가는 해탈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법으로, 요가학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가 수행은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공유하는 실천 행법이지요."

요가의 '격렬한' 유행이 그 고유한 바탕을 흐리지 않을까 하는 기자의 우문(愚問)에 이태영(59)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은 요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얘기를 시작했다. 그런 그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요가에 대한 오해'. 신체를 꼬아대는 운동법 수련이 곧 요가라는 인식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인식은 우후죽순 생겨난 요가 강좌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대부분의 요가수련원에서는 아사나(체위법) 수련에 강좌의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정도다.

"호흡법이 따라주지 않는 체위법 수련은 무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접하는 하타요가는 체위법과 호흡법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요가이지만, 호흡을 제대로 가르치는 수련원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요가연수원 이태영 원장

그래서 이 원장은 "대중의 감각적인 요구에 영합하지 않을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강좌의 절반을 호흡법 지도에 할애하고 있다. 요가에 있어 호흡은 단순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생명체가 우주의 기(프라나)를 받아들이는 작용이다. 하타요가에서는 '인간은 대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이며, 언젠가는 대우주와 합일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주에 이를 수 있는 호흡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가의 고전인 <요가 바샤>에서도 "호흡보다 우수한 고행은 없다. 호흡에 의해서 모든 오염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빛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수련생들은 이 같은 개념을 숙지하고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간다. 그 가운데 미용 등 즉각적인 효과에 치중했던 이들은 40분 이상 이어지는 호흡법 시간을 견디지 못해 도중하차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흡의 묘를 느끼기 시작하면 점차 달라질 수밖에 없다.

1월 9일 한국요가연수원 관악수련원에서 만난 20여명의 수련생들은 40분의 아사나 과정을 마친 후 저마다 안정된 호흡법으로 하타요가를 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숨을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하는 '복식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련 정도에 따라 숨을 1초에 한 번씩 마시고 내쉬는 정뇌호흡을 지속하기도 하고, 항문의 괄약근을 조이며 들숨 날숨의 비율을 조절하는 승리호흡법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들은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하타요가 최고의 경지인 '완전호흡법'에 이르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날마다 반복한다.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 필요치 않은 상태이며, 심리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대상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완전 호흡의 상태. 이 호흡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명상이 된다.

> "호흡법 무시한 체위법 무의미
> 완전호흡 상태는 곧 명상"

그래서 수련원에서는 하타요가의 체위법과 호흡법을 끝낸 후 짧은 명상시간을 두고 있다. 또한 손으로 피부를 마찰하는 등의 중국 선도의 도인(導引)을 빌어 수행의 전 단계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세심한 정성 또한 각별하다.

이처럼 '호흡이 살아있는 하타요가'를 수련한 이들은 호흡과 명상을 위주로 하는 철야정진 모임을 꾸릴 정도로 그 수행열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편안한 옷차림에 올곧은 몸으로 매주 요가 삼매에 젖어드는 정진회원들. 소중한 신체를 다스려 해탈을 꿈꾸는 이들을 보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라는 웰빙의 본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관악수련원=(02)888-5087, 분당수련원=(031)781-6879, www.yogakorea.com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철학 경계없는 실천 행법"


한국요가연수원 관악수련원에서 하타요가 호흡법에 몰두하고 있는 요가수련생들.

대구녹색연대, 단식명상캠프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1월 27일~2월 1일 영천 보현산 수련원에서 단식명상캠프를 연다. 건강과 명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풍욕, 냉온욕, 된장찜질 등의 자연건강법 실습과 채식관련 건강법 강의를 비롯, 절수련 · 요가 · 국선도 · 춤세라피 등의 수련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학생 이상이면 참가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참가비 20만원. (053)428-7165

'월출산 氣'를 관광상품으로

전남 영암군이 '기(氣)마케팅'을 활용한 관광산업 전략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암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인 월출산과 기를 주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문화 콘텐츠센터 건립을 비롯, 기 관련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2008년 완공 예정인 기문화 콘텐츠센터는 영암읍 개신리 일대와 월출산자락 20만평에 기과학연구소와 체험관, 수련관, 전시관, 교육관, 상품관, 사이버 공간 등을 갖춰 건립된다. 기체험관에서는 초감각체험, 기체험, 경락체험 등을, 기수련관에서는 전통무예,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전시관에서는 건강과 기문화산업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며 교육관에서는 생활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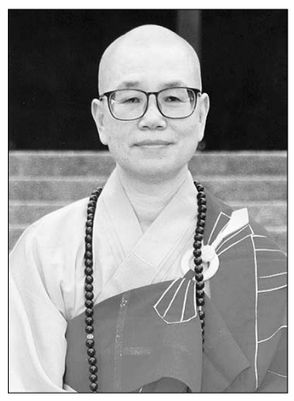
한편 영암군은 '氣 @Yeong-am'을 개발해 이미 브랜드 이미지 상표 및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이 스님 (下)

불가능 모르는 대학승

성운 대사는 자이 스님의 자질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타이쫑에서 자이 스님을 처음 본 후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내줬는데, 특히 순간 잡지<각세>에 대해서는 자이 스님이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당시에 성운대사는 자이 스님이 언젠가는 <각세>의 주필이 될 것이라 했는데, 과연 자이 스님은 불학원에서 공부하던 3년 동안 <각세>의 주필을 맡았다. 이 시기 동안 자이 스님은 성운 대사의 각별한 지도와 노력으로 원고 교정에서 출간까지 많은 일을 배웠으며, 이러한 것이 거름이 되어 훗날 <불광대사전>의 편찬까지 주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9년, 성운 대사는 불광산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이 스님을 자혜(慈惠), 자가(慈嘉) 스님과 함께 일본 교토의 불교대학에 유학시켰다. 여기에서 자이 스님은 사학(史學)을 전공, 4년 뒤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불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대자유치원을 운영했다. 그 당시, 자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30, 40대의 어엿한 사회의 중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10년만에 불광대사전·대장경 완성
참고자료만 트럭 몇대 분량 달해

자이 스님은 그 후 짱화(彰化) 복산사(福山寺) 주지 겸 복산사불학원원장을 역임했으며, 이 때부터 <불광대장경>과 <불광대사전>의 편찬이라는 중임을 맡아 이 후 10여 년 동안 여기에 매진했다. 물론 이 중간에 <보문>지의 발간과 <불광산 소개> <성운대사 강연집>과 <불광학보> 등의 발간에 참여했다. 그러나 자이 스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불교사를 정리한 <불교사 연표>, 그리고 <아함장>과 <불광대사전>이다. 1977년 성운 대사의 발원에 의해 '불광대장경 편수위원회'가 성립되면서 시작된 <불광대장경>의 편찬사업은 현재 <아함장> 16책, <선장(禪藏)> 51책, 그리고 <정토장>이 완성을 보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한문경전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고증과 주석을 가하고 표점을 찍어 완성한 <불광대장경>은 여러 판본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불교사연표>도 자이 스님이 주관한 것으로 수많은 자료를 조사해 완성한 것이어서 많은 불교학자들의 요긴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불광대장경>과 함께 동시에 진행된 <불광대사전>의 편찬은 장장 10년이 걸린 대역사였다. 총 2만2,608항목에 달하는 불교용어를 수록한 <불광대사전>은 참고자료만도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자이 스님은 인도 태국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몇 차례나 오고 갔다. 한 번 교정에 최소한 6명 이상이 참여하여 4교까지 보았으며, 자이 스님이 끝까지 직접 교열한 것만도 3차례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광대사전>은 착수 10년만인 1988년에 완성을 보았으며, 그 해 대만의 최우수도서상인 '도서출판금정장'을 수상했다. 이 대작불사는 자이 스님의 능력과 강인한 의지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자풍의 유순한 비구니로 보이나 불심으로 무장된 정신력은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하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인것이다.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그 시절,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 <불광대사전>의 편찬에 이용할 정도였다.

자이 스님은 사찰의 운영에 있어서도 한적한 복산사를 1회 법회에 3000여명이 모이는 규모로 발전시켰으며, 중부지역의 양대 불광산 사찰인 동해도량(東海道場)과 원림강당(圓林講堂)이 모두 복산사를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이 스님은 항상 스스로를 불광산에서 가장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해 한다.

김재경 기자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출강 · 통신)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양성을 위한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지도자로서 위의를 갖추고
섭화중생하며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충만한
법사(法師)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 출강반 ❷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 사진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6. 교육장소 : ❶ 서울 본 대학 ❷ 부산 학습 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4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가능)
※ 전화문의 하시면 모집 요강과 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권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 품수와 법사법위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용성 스님(1864~1940): 전북 장수 生. 해인사 극락암에서 화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선학원 설립.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동참. 선농일치와 경전한글화운동 등 펼침.

네티즌 교리문답

절을 세번하는 이유는?

문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잖아요? 그때 삼배를 올리는데…. 절을 세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귀의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ID '지혜성')

답 1 : 부처님(불), 부처님의 가르침(법), 불교 공동체(승)에 귀의하고 예경한다는 의미로 절을 세 번 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절을 하되, 결국은 자성불(내 마음의 부처) 즉, 자신의 몸을 끌고 댕기는 '그것'과 하나된다는 마음을 내어야 겠습니다.(ID '푸른바다')

답 2 : "거룩하신 불보(佛寶)와 법보(法寶)와 승보(僧寶)께 귀의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계(戒) 정(定) 혜(慧) 삼학을 이루오리다" 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삼배(三拜)를 올릴 때 불자의 마음은 계정혜 삼학으로 복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ID '삼배2')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㉗

견성성불(見性成佛)-14

꿈, 착각 모두 허망 "중생이 본래 부처"

지난 회의 글에서, 본각(本覺)을 강조하느냐 시각(始覺)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의 수행론이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본각을 강조한다 함은 모든 중생이 있는 그대로 이미 깨달음을 성취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오래 전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선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번뇌 하나 덜고 말고 할 것 없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입장을 표현한다.

처음에 그 표현을 언급할 때, 번뇌라는 것이 워낙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말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중생은 번뇌 속에 살기 때문에 중생이다. 번뇌란 온갖 탐욕과 어리석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번민과 고뇌, 괴로움이다. 중생에게 번뇌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번뇌가 아무리 엄연한 현실로 여겨진다고 해도 번뇌란 실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불교, 적어도 대승불교 교리의 입장이다. 번뇌를 엄연한 현실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요 번뇌이다.

중생은 언제부터라 할 것도 없이 오래도록 꿈속에 빠져있다는 표현이 경전에 자주 나온다. 중생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이 현실이요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실은 꿈일 뿐이니, 꿈을 현실이라 여기는 어리석음까지도 깨어난 진짜 현실에서 보면 꿈속의 일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본다는 비유도 자주 등장한다. 허공에 꽃이 춤추니 신기하여 저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다가 꽃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갔을까 의아해한다. 옆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 보았을 뿐이라고 일러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상이라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꿈 또는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사건이 필요하다. 깨어보면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요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원래 제 자리일 뿐이지만, 아무튼 깨어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이른바 임제종 전통에서는 그 깨어나는 사건을 중시한다. 이를테면 시각(始覺)을 중시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꿈속에 있건 깨어나 있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뿐임을 강조할 수도 있다. 꿈이나 착각은 실체가 없고 허망하니 깨어나니 어쩌니 할 것도 없다. 이미 모두가 본래 깨쳐 있는 부처님이니, 부처가 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성불하겠다고 작정하고 좌선하는 것은 도통 잘못이다. 그냥 무작정, 즉 뭘 어쩌겠다는 의도 없이, 부처님으로서 턱하니 앉아있는 것이 좌선이다. 일본에서 조동종을 일으킨 도겐(道元)은 그것을 일컬어 지관타좌(只管打坐)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래 이미 깨쳐 있는 이가 행하는 수행이라고 해서 증상(證上)의 수(修)라고 일컬었다. 이것은 이를테면 본각(本覺)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두 수행론이 정반대되는 양극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수행론이다. 깨친 이들의 입장에서야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하나의 실상일 뿐이지만, 꿈과 착각 속의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자니 이런저런 처방이 나왔을 터이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의 법문

형상 · 말 · 행동 따라 고통 없애줘

일체 세계에 두루 머무르며 자비 실천

선재 동자가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한 덕 주야신(普救衆生妙德主夜神)'이 있는 곳으로 가니, 그 주야신은 선재 동자를 위하여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시키는 해탈'의 신통한 힘을 보이고, 여러가지 거룩한 몸매로 몸을 장엄하며, 양미간에서 '지혜의 등불을 두루 비추는 깃발(智燈普照幢)'이라고 하는 큰 광명을 발하였다. 그 광명은 한량없는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으며, 모든 세간을 비추고는 선재 동자의 정수리로 들어가서 온 몸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재 동자는 '끝까지 청정한 바퀴삼매(究竟淸淨輪三昧)'라고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즉 그는 납납의 티끌 속에서 끝이 없는 세계의 생멸변화, 우주의 구조, 모든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세계의 여러 길에서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을 보았는데, 온갖 때와 여러 곳에서 여러 중생의 형상과 말과 행동과 이해를 따라서 방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알맞게 교화하면서 중생들의 고통과 공포를 없애주고 있었다.

이때 선재 동자는 이 주야신의 이런 신통의 힘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경지와 두루 나타나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는 보살의 해탈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 엎드려 예배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다. 이때 선재 동자는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에게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어떠한 행을 닦아서 청정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주야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알기 어려우니 모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승(二乘)들도 헤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무른 이의 경계이며,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이의 경계이며,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의 종자를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의 경계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 지니는 이의 경계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야신은 자기가 터득하고 있는 법문의 유래를 그의 본생(本生)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지나간 옛적 티끌 수겁 전에 사천하의 염부제에 '보배꽃 등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비로자나 묘한 보배 연꽃상투'라고 하는 전륜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의 이름은 '원만한 얼굴'이었고, 딸의 이름은 '넓은 지혜의 불꽃 미묘한 덕의 눈'이었다.

수미산 티끌 수의 부처님이 그 곳에서 출현하셨는데, 첫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보염묘덕당(普智寶焰妙德幢)'이었다. 그 여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 앞에 나타나서 법륜을 굴리고 낱낱 세계에서 한량없는 중생에게 나쁜 길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하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량없는 중생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보살의 도에 머물게 하며, 보살의 훌륭한 행과 원에 들어가게 하고, 보현의 청정한 행과 원에 머물게 하기도 하였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성중에 이르러 큰 광명을 놓아 모든 것을 비추고 지금 이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이때에 전륜성왕의 딸은 보현보살의 모습을 보고는 환희한 마음으로 "원하옵건대 나도 그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지혜의 광명이 되어 저들의 캄캄한 무명을 깨뜨리게 하소서.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이 선지식을 항상 떠나지 말게 하여지이다"라고 발원하였다.

그 때에 전륜왕은 권속과 함께 나서 부처님을 뵙고 여래의 출현을 찬탄하며 가지 가지의 광대한 공양거리를 허공에 가득히 장식하였다. 전륜왕의 딸도 장신구를 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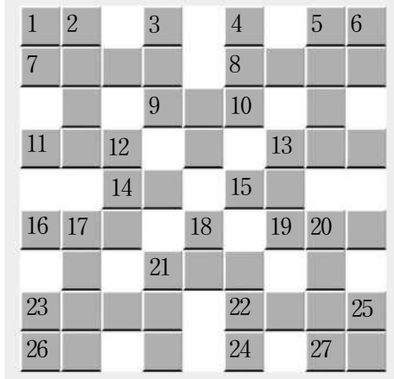
이 때 여래께서 경을 말씀하시니 전륜왕의 딸이 이 경을 듣고 일만 가지 삼매문을 성취하고, 한없이 거룩한 여러가지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큰 서원을 일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서원과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려는 서원 등 열 세계의 티끌 수 서원바다를 세워서 보현보살이 가진 큰 서원을 성취하려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과거 무수한 세계에서 항상 보현보살의 인도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고 무량한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며 그분들이 설하는 법문을 들었다. 그리하여 저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지혜 광명을 얻고 모든 보현의 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지금의 보구중생보덕 주야신이다.

보구중생묘덕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시키는 해탈'법문은 보살이 세간에 머무르면서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법문이 근거로 하는 선지식은 보현보살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일체 세계에서 두루 널리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현행이라고 하는 점이다. '널리 중생을 구호하는 묘한 덕(普救衆生妙德)'이라고 하는 주야신의 명칭도 결국은 보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전기를 일으킴 5.(보살의 최고위)열 가지를 능히 암 7. 군말 없이 곧장 본지를 말함 8. 색이 곧 공과 같다 9. 일체의 사물은 모두 변하여 일정한 모습이 없음을 관하는 것 11.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출입구 13. 산을 오르기 위해 조직된 무리 14. 발톱과 어금니, 매우 긴요한 사람이나 물건의 비유 15. 큰 산 16. 지도에서 표준해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 19. 불사 등에 동참해 기부할 것을 호소하는 글귀 21. 대나 짚으로 엮어 물건을 담는 그릇 23. 형제와 자매 24. 어떤 일의 중심이 되는 세력 26. 재물이 많은 사람 27. 수량을 셈.

세로 1. 건축이나 비석 따위의 기초가 되는 단 2. 바르게 사물을 볼 수 없는 전도된 마음 3. 이전부터 머릿속에 들어 있는 고정적인 관념 4. 색상이 없음 5. 열 숟가락의 밥이 한 끼의 식사가 된다는 말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 6. 농구나 축구 등 경기에서 공격 시간을 늦춤 10. 머물러 집착함이 없음 12.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이나 선박을 구조 하는 선박 13. 등산할 때 쓰는 모자 17. 많은 제자 가운데 특히 뛰어난 제자 18. 실제의 형편 20. 연꽃이 만발한 극락세계 21. 삼매에 든 경지 22.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기계 23. 언니의 남편 25. 반대의 순서로 계산함.

우리 불상의 美 제대로 알겠네



자신감 넘치는 모델링으로 생명력을 구현하고 있는 금동연화관사유상(국보 83호).

'불교조각 Ⅰ·Ⅱ'

강우방 외 지음

도서출판 솔 / 각권 2만5천원

"불상은 부처, 곧 '깨달은 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진리'라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을 조각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 불상이다. 그러므로 불상에 담겨진 조형언어를 올바르게 읽게 될 때, 우리는 부처의 본질에 닿을 수 있다."

우리 미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불교조각, 그 중에서도 불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 조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불교조각 Ⅰ,Ⅱ>가 나왔다. 이 책은 도서출판 솔과 방일영문화재단이 모두 12권으로 펴낼 예정인 '한국美의 재발견' 시리즈의 3, 4권으로,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인 강우방 교수(이화여대)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인 곽동석 · 민병찬 씨가 필자로 참여했다.

고교생 눈높이에 맞춰
독창성 · 변천사 등 조명
제작 과정 상세설명 눈길

강 교수는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 실현된 미와 생명을 통해 오히려 종교적 체험에 접근하게 된다. 불상 조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형언어를 통한 신과 인간의 탐구이자 자아의 발견이다"고 말한다.

이 책은 크게 한국 불교 미술의 원류와 아시아에서의 위치 조명, 불상의 개념 해설, 제작과정을 소개한 부분(Ⅰ권 1장)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조각 특징과 그 흐름을 조명한 부분(Ⅰ권 2장~Ⅱ권 3, 4장)으로 나뉜다.

1장은 한국 불교 미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의 장이다. 강 교수가 쓴 개설 성격의 '한국 불교 미술의 참모습'은, 일반적으로 여래를 중앙에 두고 좌우로 보살상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중앙에 봉지보주보살을 두고 양 옆에 더 크고 우람한 여래상을 배치한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432호)과 중국의 영향을 받되 그것을 발전시켜 더 크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사유상(思惟像)을 탄생시킨 전개과정 등을 예로 들며 한국 불교 미술 나름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불상 (아미타 삼존불 · 아래)과 달리 중앙에 봉지보주보살을 두고 양옆에 더 큰 여래상을 배치한 태안 마애삼존불(위).

또한 석굴암 본존불을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상으로 보는 것이나 흔히 도깨비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하여 귀면와(鬼面瓦)라 불리는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용(龍)의 얼굴을 보고 새긴 용면와라는 주장 등 강 교수의 미술사적 지론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상의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민 '불상의 재료' 부분이다. 기존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금동불과 석불, 철불, 건칠불 등 불상의 제작 과정을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권 2장부터는 국 불교 조각의 특징과 그 흐름을 짚어본다. 우리나라 초기 불상인 선정인(禪定印) 여래좌상을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보살상인 반가사유상, 그리고 한국적 불교 조각의 매우 중요한 특수성이자 우리 불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화강암 석불 등 8가지 주제에 따른 삼국시대 불상 30점을 소개하고 있다. Ⅱ권 3장과 4장에서는 불교 조각의 황금기인 통일신라시대 불상 43점과 사회 · 종교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상 변천상을 이 시대 불상 24점의 모습에서 찾아본다.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쓴 이 책은 다양한 도판과 함께 책 사이사이에 배치된 '알아두기' 코너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부록에서는 불상 및 보살상의 세부 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한 · 중 · 일 주요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 중 · 일 불상연표'도 실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불교미술 가운데서도 불상만큼 시대나 국가, 시기, 지역, 민족의 다양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장르도 세계 미술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불상이 죽어 있는 우상이 아니라 각 시기 각 지역 사람들의 미의식과 그들이 절실하게 희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에의 동경과 경배의 염(念)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Ⅰ권 18p, '한국 불교 미술의 참 모습' 中)

▷"고졸(古拙)한 미소란 얼굴 전체가 아니라 양 입가만을 살짝 눌러서 표현한 고대 조각의 미소를 말한다. 입으로 짓는 미소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 불상의 얼굴 표정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정형이 없고 얼굴이 저마다 다르다. 한마디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친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정은 순진무구한 미소와 뜬 듯 감은 듯 가녀린 눈매로부터 나온다." (Ⅰ권 135p, '우리 불상의 한국적인 특징' 中)

▷"7세기 말부터 새로운 지평을 열기 시작한 불교 조각은 8세기 중반에 이르러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불상을 만들어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자 불교 예술품인 석굴암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된 뛰어난 조형성을 갖춘 금동불과 석불들은 한국의 불교 조각이 8세기 중반에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말없이 대변해주고 있다." (Ⅱ권 61p, '최고봉에 도달하다' 中)

전문가 서평



'디자인을 공부…'

시마다 아쓰시 지음

디자인하우스 / 1만원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을 얼핏 보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책쯤으로 생각하기 싶다. 그러나 이는 편견이다.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좁은 의미에서 전문 디자이너가 시각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넓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이너인 동시에 디자인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디자인이란 단어는 잘 알다시피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어원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영어의 'design'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 책은 전문 디자이너에게는 깊이 있는 디자인 철학과 역사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적어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껍데기만 만드는 개념이 아닌 역사 · 문화 · 사회 등의 유기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을 지닌 활동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필립 B. 멕스는 '디자인은 즉시성과 무상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좋은 디자인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보여주는 감흥과 같은, 오랜 시간이

디자인 중심 철학은 '사람'

장르별 전문가 15인이 쓴 에세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디자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지금의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요소가 디자인 결과물에 담겨 있어야 비로소 훌륭한 디자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과 역사, 디자인과 사회, 디자인과 시대 등의 유기적인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결과물일 때 디자인적 결과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은 이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은 디자인 중에서도 건축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이론 등 각기 다른 디자인 장르의 전문가 15명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인 디자이너가 자신이 연구한 바와 필드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며 느낀 점, 그리고 생활 속의 디자인처럼 일반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다. 각 글의 마지막에는 글을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더 넓은 독서를 위하여'라는 코너를 통해 글 내용과 관련된 책이나 지은이의 생각을 부가적으로 언급하여 더 심층적인 연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어 디자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된다.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판에 나가 생활을 배우는' 시점(視點)을 견지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마음으로 귀결되는 활동'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그래픽, 인테리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등의 구분을 넘어선 다채롭고 폭넓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 편의 수필처럼 써내려간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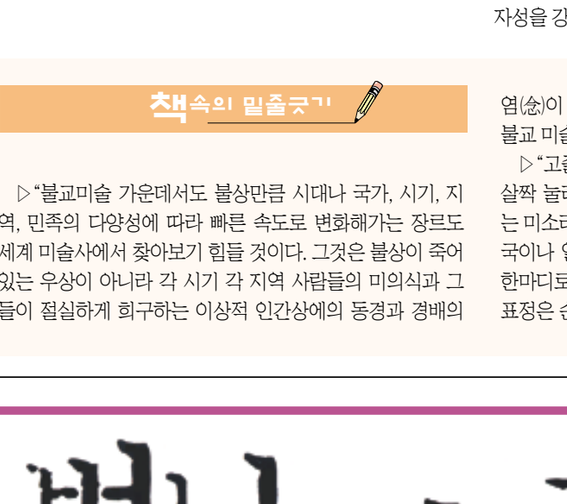
번뇌 업 고통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업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

번뇌 · 업 · 고통이라는 주제는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시각은 어느 종교에서나 일치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이유와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방안을 철저히 인간 자체에서 찾고 있는 종교가 불교이다. 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이 운운 하면서도 그 실상을 지나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를 취급한다.

정승석 지음 / 신국판 / 318면 / 8,500원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전화 : (02) 732-2403 ~ 4 / 팩스 : (02) 739-7565 민족사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그들은 왜 세상에 돌아왔나



'파계-계율을 깨뜨리어 지키지 않음'
'환속-다시 속인으로 돌아옴'

이 두 단어는 수행자에게 있어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환속'은 곧 '궤도이탈'이자 '실패'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6년간의 비구 생활을 접고 컴퓨터 수리공이 된 정연(가명) 스님.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직시한 후 미련없이 승복을 벗은 그는 "옷을 벗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냐"고 말한다. "마음은 편하게, 밥은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종단의 컴퓨터를 무료로 수리하고 인터넷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처럼 <환속>은 전에 성직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일상인으로 돌아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어린 나이에 언니를 따라 들어간 수녀원이 결코 환상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22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카타리나 수녀님, 야학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혈육보다 더욱 진한 모정을 느끼고 이들의 엄마가 되기 위해 환속한 효인 스님, 한 여자를 사랑해 사제복을 벗었지만 그녀에게서 '옛날의 바오로 신부님을 사랑했지 지금의 당신을 사랑한 적 없다'는 말을 듣고 방황했다는 바오로 신부님, 자신의 지병이 다른 수도자에게 폐가 될까봐 수도원을 나왔지만 노숙자들을 돌보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테파노 수사님 등 5명의 사연이 담겨 있다. 지은이가 1999년부터 5년간 취재해 90분짜리 테이프 36개에 수록한 열분 가운데 다섯 분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

성직자로 살다 일상인으로 돌아온 사연과 깨달음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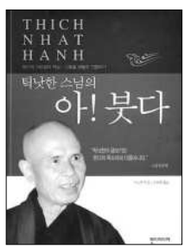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은이는, 성직의 길을 택할 때만큼 많은 고뇌를 필요로 하는 '환속'을 결코 중도하차나 인생의 낙오로 바라보지 않는다. 진정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가정도 작은 절 아닙니까? 식구들이 나의 도반이 된 셈입니다"(정연 스님), "나 같은 사람에게 출구는 반드시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땀을 흘려야 하는 농사일, 그 자체가 수도 아닐까요?"(카타리나 수녀) 등 이들의 깨달음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자 구도자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의 가르침

'아! 붓다'
틱낫한 스님 지음 / 진현종 옮김
반디미디어 / 1만1천원



삶은 고해(苦海)일까 행복일까?

틱낫한 스님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접함으로써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방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성제·팔정도 등 교리 쉽게 풀어

<아! 붓다>는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등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교리를 틱낫한 스님 특유의 평범하면서도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낸 '불교해설서'이자, 교리에 담겨진 진리를 토대로 일상에서 걷기와 호흡을 통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행안내서'다. 흔히 불교 이론과 수행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틱낫한 스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삶 속의 행동 방식이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틱낫한 스님의 책들이 명상수행 안내서 일색이었던데 비해 이 책에서는 정통 교학에 기반을 둔 선사이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책을 옮긴 진현종 씨는 "국내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책 대다수가 틱낫한 스님을 음유 시인이나 무종파 영성 지도자로 포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틱낫한 스님의 불교적 정체성 간과한다면 그의 이론과 실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교리의 단순한 설명 대신 부처님과 제자간의 대화를 예로 들며 가르침의 참 의미를 전하고 있다. 또한 불교 전문용어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병기하고, 이를 틱낫한 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옮긴 용어도 소개한다.

특히 스님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개념인 '전념(專念, mindfulness)'에 대해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 설명한다.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전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행선(行禪, walking meditation)을 비롯한 프랑스 수행공동체 플럼 빌리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수행이 바로 이 전념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분단을 넘어 원융무애의…'
학담 스님 지음
큰수레 / 각 1만6천원, 1만8천원

"민족분단은 고통의 근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학담 스님의 불교통일론을 담은 책이 나왔다. 지은이는 <분단을 넘어 원융무애의 생명바다로 Ⅰ, Ⅱ>에서 불교 철학적 시각으로 통일을 전망하면서 민족간 화해협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족분단의 질곡은 대중 모두의 삶을 규정하는 소외와 고통의 근원"이라는 지은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분단의 장애와 분단이 주는 상처,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1권에서는 원효 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하고, 통일운동을 불교사상적으로 성찰해 본 글들을 담았다. 2권은 통일운동을 생명의 보편적 해탈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으로 보고, 통일을 위해 종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새로나온 책

■<예불이란 무엇인가>(정각 스님 지음, 운주사, 8천원)=10여 년 만에 선보인 <예불이란 무엇인가>의 개정판. 정각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예불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지은이는 "예불이란 불교 신앙의 기본이며, 불교 교의의 핵심이 그 안에 망라되어 있다"고 말한다. 1부는 현대화에 맞춰 불교를 설명하며, 2부는 전통적 관념 아래 예불에 깃든 불교의 우주관을, 3부는 예불문을 통한 불교의 기초 지식을, 4부는 불교의례 속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각각 논한다.



■<연기법, 우주의 진실>(신용국 지음, 하늘북, 5천4백원)=<실천불교>의 저자인 신용국 씨가 '연기법'을 풀이한 책. "연기법을 현대의 언어로 해석해 보고자 했다"는 지은이는 "진리라고 말해지는 법 중에서 인간을 구속하거나 무릎 꿇게 하지 않는 법은 연기법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연기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불교의 문제들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최성호 지음, 전우문화사, 1만2천원)='조선시대에는 왜 한옥을 즐겨 지었을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축가인 지은이는 <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에서 한옥에 담긴 아름다움과 그 시대의 지혜와 정신을 읽는다. 구시대의 유물이나 문화재가 아닌, '생활을 담고 있는 집'으로서의 한옥을 살펴본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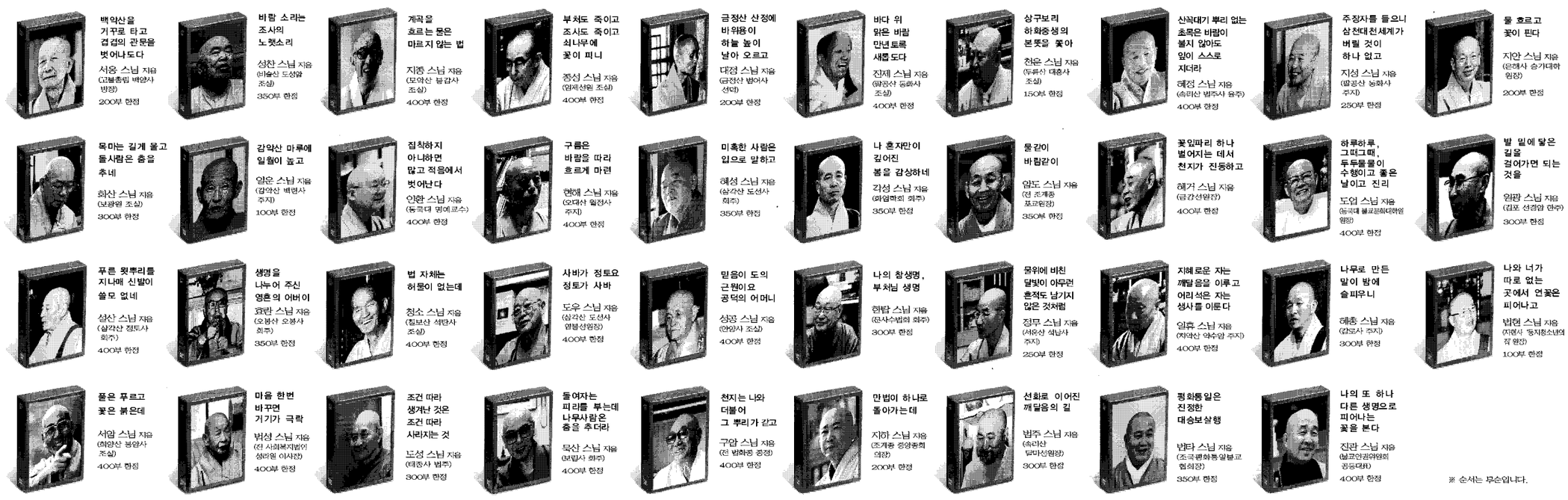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3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낫한	장경각
4	완벽한 참선법	우룡 스님	좋은인연
5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6	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	이거룡	한길사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8	불교로 보는 채근담	홍자성	들녘
9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 순서는 무순입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정상구 (청주시 주성동)

해회처(解悔處) 가는 길 <상>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하얀 목련꽃이 전해주는 봄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르릉….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시골에서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님과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무렵 받은 아내의 전화는 청천벽력과 같이 내 가슴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전화에 그저 사무실의 천장만 멍하니 바라 볼 뿐이었습니다. 한 세상을 사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하시고 고생만 하시다 이렇게 훌쩍 떠나신 두 분이 안쓰럽다는 생각에 이르자 어느새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몰아 청주의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영안실에는 먼저 도착한 동네 어르신들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장례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이웃사촌들의 위로를 뒤로하고 영안실로 급하게 뛰어 들어가 보았으나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찾아뵈었던 어머님은 하루 사이에 고인이 되시어 오늘은 영정으로 맞아주시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란하던 우리 집안의 시련과 역경은 이렇게 큰며느리 두 분이 함께 떠나시며 눈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을 잃은 배는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듯 구심점을 잃은 우리 집안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면 파도가 이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려졌습니다.



그림 · 문병성

동생들의 사업은 점점 부진해져 갔고 하늘나라가 그 어디라고 2년 뒤에는 젊은 제수씨 마저 두분 곁으로 훌쩍 떠나며 불행의 속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가속도가 붙어 가는 듯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잔잔한 웃음꽃으로 살아오던 행복은 바람결에 날아가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어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 갈 무렵 나는 직장인 은행에서 고향 인근지역인 증평지점의 책임자로 임명되는 영전을 하였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난날 중학을 졸업한 둘째 아들이 전기도 안들어오는 산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라 하셨던 어머님…

서울로 떠나가는 급행버스에 까까머리 아들을 태워 보낼 때에는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버스가 눈에 보이지 않을때까지 손을 흔들며 '건강한 몸으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고 빌고 또 빌어 주시던 어머님…

서울의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은행시험에 합격하자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로 동네 어르신들께 후하게 잔치를 하셨다는 자애로우시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함께 하지 못한 영전의 기쁨은 그리 길지를 못했습니다.

부임 한 달이 되어 갈 무렵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생이 임대로 경영하던 주유소를 사게됐노라"하시며 대출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동생의 지난날 신용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버님은 동생을 도와줄 것은 몇 차례 더 말씀하셨고 그 간절한 말씀에 내 마음은 서서히 흔들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다 은행의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 보았으나 진날 날 동생의 신용이 변변치 못함을 소문으로 알고는 이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번의 차주는 동생이 아니고 아버님이시며 무엇보다 내 퇴직금으로 책임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대출을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대출금 이자는 첫달부터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집안의 시련을 덜어보고자 의도했던 생각은 애당초 소망일 뿐 연체는 점점 장기화되어 급기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태로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지점경영과 끈끈한 직원인화를 유도하여 전국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양하는 명문 지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 "고향 은행 지점장 부임 최고 실적 달성 앞두고 동생의 연체문제 불거져 30년 직장생활 접어야"

집안의 대출금 연체문제로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상사인 내가 저하시키는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행과 보증인과 집안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나는 동생을 불러 주유소 매각을 유도했으나 매매는 성사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고향집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연일 지진이 난 열도처럼 흔들리는 소식만 들려오더니 끝내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마저 빚 때문에 팔려나갔다는 소식을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전옥답은 어떠한 땅일까요?

그것은 모든 집안의 정신적인 지줏대이자 선조님들의 피와 땀이 흠뻑 배어있는 삶의 젖줄이며 효를 실천하는 도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그것이 쇠퇴의 제물이 되어 팔려 나갈 때 아무런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을 생각해보니 아주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 밤잠을 설치며 지내던 나는 퇴직금으로 집안을 살려보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퇴직문제를 그려보니 지난 날 주경야독하며 공부한 딸과 노력이 아까웠고 신혼 초부터 시동생 둘과 시누이 둘의 뒷바라지를 하며 고생해온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中>



백유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을 하 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첫날 예불할 때, 머리가 숙여지지 않았었다. 불상은 우상이라는 관념의 때가 묻어 있어서 하심이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이 불교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쉬어져 버렸다.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반대관념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쉬어 버렸다.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아니, 관점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야 옳을까?

그랬다. 그 전까지는 점심이면 친구들과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사먹었는데, 그 즈음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학생회 방을 향했다. 혼자 예불을 드리고 법정 스님이 번역한 작은 <수타니파타>를 읽고 잠시 좌정하고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오후 수업을 들었다. 얼굴에는 빛이 났고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해졌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없었지만, 기운이 넘치고 마음이 고요한 채 유지되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너 요즘 이상해 졌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사냐?" 이렇게 물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정말 그랬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깨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의과대학은 학습할 양이 엄청나서 공부하는 데 지치곤 한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글자가 깨알 같은 의학서적을 오랜 시간 읽고 있자니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내일이 시험인데, 쉴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활자를 읽는 그 놈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예정한 분량을 모두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다. '참 신기하구나…' 그랬다.

그러나 그 뒤로 잠시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다가 3학년 여름 방학 때 순천 송광사 수련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스님들의 웅장하면서도 비장미 넘치는 새벽 예불 소리에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공명하면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 그친 후 가슴에 담아두었던 찌꺼기가 다 빠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다. 일과 후 술 마시고 카드 놀이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불교신문은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었다. 당시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선을 보이기 이전이라서 적적한 공중보건의 생활에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기다리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송광사 새벽예불에 감동…정진 계속
"진료는 내 안의 부처님이 하는 거야"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내가 전공한 가정의학은 가족간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정신적인 응어리에 의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 병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면 그 배후의 심리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환자 상담하는 일이 하도 힘이 들어서 하루는 가끔씩 찾아뵙던 스님께 "스님, 요즘은 제가 마치 사람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같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나는 더 그래. 나야말로 쓰레기통이야. 중생들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그래서 중생들이 정화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힘을 얻는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하시며 환자들을 부처님으로 관(觀)하고 진료를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부처가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관하라고 하셨다. 그 뒤부터는 환자를 볼 때 힘들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진료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속)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



붓다를 공경하는 방법

불자들은 세 가지 보배, 즉 불보, 법보, 승보에 귀의한다. 오늘은 귀의의 대상이 되는 붓다와 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정각을 성취하여 붓다가 되었다. 우리는 정각의 내용을 법이라고 한다. 선후 관계에서 보면 법이 먼저 실재하고 있었고 이 법을 붓다가 증득한 것이다. 붓다가 법을 깨달은 이상 법과 붓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중생에게 있어선 붓다라는 인격은 무형의 법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난해한 법을 붓다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우리 중생은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중생에겐 붓다가 법보다 먼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에겐 사정이 다르다.

<잡아함경>의 '존중경'에 의하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직후 붓다는 다음과 같이 사색하였다고 한다. "공경할 대상이 없어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괴로움이다. 공경할 대상이 있으면 상하 순서가 있고 안락을 얻어 머문다. 자못 천신 · 인간 등 일체 존재들 중에서 에게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신을 보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가르쳐 준 법을 보아야할 것임을 훈계하고 있다. 붓다는 자신의 몸을 지칭하며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보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긴다. "법(法)을 보는 것이 여래(如來)를 보는 것이고 여래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붓다의 육체조차도 만들어진 유위법(有爲法)으로 반드시 무상(無常)의 법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붓다를 공경하는 길은 붓다의 가르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 여로에서 크게 중병을 앓은 붓다를 목격한 제자 아난다는 붓다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편 스승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 왔다. 붓다는 슬픔에 잠긴 아난다에게 80이라는 고령의 나이를 먹은 당신의 육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난다여! 나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고 나의 인생 여정은 이제 막을 내리려 한다. 나는 이제 팔십 세가 되

무상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가르침 실천함이 진정한 공경

내가 구족한 계(戒) 삼매(三昧) 지혜(智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이 가장 수승하다. 이것을 공경하고 존중하자. 오직 정법(正法)이 있어 나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여 붓다가 되게 하였다. 내 마땅히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자. 그것에 의존하여 머물자." 붓다는 정각 직후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도 당신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대신 붓다가 구족한 법이 가장 수승하므로 그것을 공경하자고 결심하였다. 붓다가 존경의 대상으로 삼은 법은 계 등 5가지가 나열되고 있지만 요컨대 열반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모든 가르침에 다름 아니다.

오로지 당신을 붓다로 만들어 준 정법을 존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기의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도 보인다. 붓다라는 한 개인보다도 법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을 다음의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칼리(Vakkhali) 비구는 심한 병고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붓다를 친견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 붓다에게 가지 못하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에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자 붓다는 몸소 박칼리 비구를 찾아가 육신의 무상함을 가르치고 붓다의 곁을 떠나 홀로 수행하라고 조언한다. 붓다는 박칼리 비구 었다. 비유하면, 낡은 수레가 여기저기 수선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의 몸도 그러하다." 붓다는 당신의 몸을 낡은 수레에 비유하며 붓다의 육신도 결국 소멸될 것이니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증득한 정법은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다. 영원한 정법을 언설로 설명해 놓은 붓다의 가르침은 그의 법신(法身)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중생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붓다를 공경하는 길은 붓다의 가르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입멸직전 붓다가 사라 쌍수 하에 누워 있을 때 천신들이 천상에서 온갖 종류의 꽃과 향료를 가지고 붓다를 공경하였다. 붓다는 이러한 외형적인 공경의 의식을 거부하고 대신 법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거대한 사찰을 건립하고 화려한 금동 불상을 모시는 불사도 중생들에겐 필요하겠지만 붓다는 그런 것 보다 당신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자 개개인이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에 숨어 있는 번뇌의 적을 퇴치하고 붓다처럼 열반에 이르는 것이 진정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도임에 틀림없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허상의 그림자 벗어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지상 백고좌

설 산 스님

(전국염불만일회 법주)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말고 부처님 생각하면 극락



"욕심 버리고 순리대로 생활하

"서울에 살고 있는 1천만 인구 중에 극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서울 평창동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계신 설산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 대뜸 스님은 이런 물음을 던지셨다.

"현대의 첨단 과학 문명은 인간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상의 그림자에 속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만든 본질은 보지 못하고 허상의 그림자에 속아 살고 있다 그 소립니다. 불교는 이러한 중생의 아픔을 제거하고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은 무엇일까요? 허상에 속지 않고 자연 그대로, 순리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요 극락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30여 년 넘게 염불수행에 매진해 온 스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돈과 명예를 좇으며 하루하루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우리네 삶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하루 24시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기 무릎이라도 한 번 꼬집어 주십시오. '아프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십명왕생(十名往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말의 참뜻은 염불하는 방법만은 알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며, 1초가 다시 1초를 거듭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불을 걸으면서도 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하고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서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다보면 조용한 가운데 '쿵'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이 이 소리를 자꾸 좇아가요. 그게 바로 염불하는 소리였어요. 이후 염불로 불법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후 한국전쟁으로 건봉사가 폐사되자 스님은 이곳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1974년 1만일 염불수행을 서원한 스님은 매일 새벽 4~5시와 오후 6~7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일념에 들었다. 2001년 10월 만일염불정진을 회향한 스님은 이듬해 다시 만일염불 입제에 돌입했다. 건봉사에서 250여 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만일염불정진을 발원한 것이다. 평생을 염불수행에 매진하고 대중들에게 이를 널리 펼치겠다는 스님의 마음이 담긴 발원이다.

"염불은 밑천이 안들잖아요?(웃음) 또 염불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염불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세계에 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염불해 보세요.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변하지 않듯,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호를 외우되 하루나 이틀 내지, 혹은 7일간 일심으로 산란하지 않으면 목숨을 마칠 때에 임해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聖衆)들이 나타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염불에는 크나큰 공덕이 있습니다."

스님에게는 요즘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바로 염불수행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염불을 하려는 불자들은 많은데 가르침을 배울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염불을 기복신앙으로 여기거나 참선보다 낮은 수행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염불정진은 불자들의 지극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불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정토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얼마 전 열반한 청화 스님과 함께 우리나라 염불수행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설산 스님은 어떻게 염불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14살에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인 건봉사에 들어가서 사미 생활을 했어요. 그때 강원과 염불방, 참선방이 따로 있었는데 강원에서 경전을 읽

■ 설산 스님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설산 스님은 14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계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 10하안거 성만.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후 한때 교육사업과 연극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나 65년 청담 스님의 법상좌로 들어가 '설산(雪山)'이란 법호를 받았다. 현재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배달문화선양회장과 설산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회고록 <뚜껑없는 조선 역사책>과 사찰안내서 <명산고찰따라>, 청담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집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 등이 있다.

모 2004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 강원사교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2. 학교 연혁

1982. 10. 18.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불교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
제1회 입학식(김병규 초대학장 취임)불교학과 개설
1983. 6. 1. 본교 교명을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84. 9. 1. 제1회 졸업식
1985. 2. 20. 제2회 졸업식
1985. 11. 11. 중곡동 임시교사에서 성북동 중앙불교회관으로 교사 이전
1986. 2. 25. 제3회 졸업식
1987. 2. 20. 제4회 졸업식
1988. 2. 23. 제5회 졸업식
1988. 5. 28. 제3대 이영무 학장 취임
1989. 2. 25. 제6회 졸업식
1989. 5. 1. 제4대 이재복 학장 취임
1990. 2. 24. 제7회 졸업식
1990. 3. 1. 범패과 신설 및 기숙사 개설
1991. 2. 24. 제8회 졸업식
1991. 3. 1. 불교미술과 신설
1991. 9. 14. 제5대 정태혁 학장 취임
1992. 2. 22. 제9회 졸업식
1992. 3. 1. 유아교육과 신설
1993. 2. 20. 제10회 졸업식
1994. 2. 26. 제11회 졸업식
1994. 3. 1. 한의예과 신설
1995. 2. 25. 제12회 졸업식
1996. 2. 10. 제13회 졸업식
1997. 2. 27. 제14회 졸업식
1998. 2. 24. 제15회 졸업식
1999. 2. 26. 제16회 졸업식
2000. 2. 24. 제17회 졸업식
2001. 2. 24. 제18회 졸업식
2002. 2. 27. 제19회 졸업식
2003. 2. 27. 제20회 졸업식

3. 특 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 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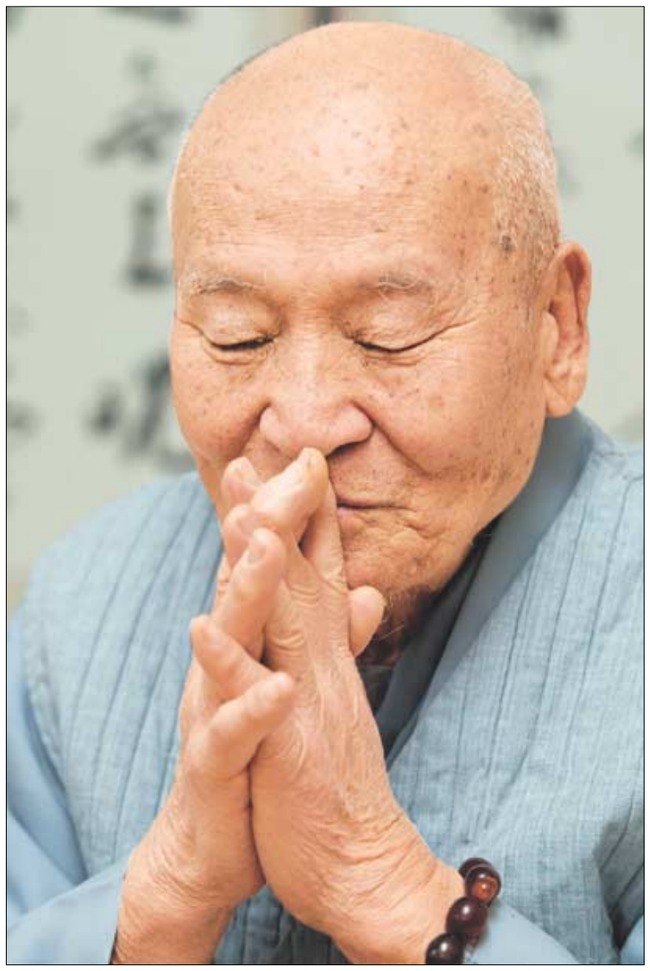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14일 (토) ~ 2004년 2월 18일 (수)

5. 전형일
· 2004년 2월 21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6.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동 292-1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HP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시 • 도교구종무원
· 경서원(조계사앞) TEL. 02-733-3345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한국불교태고종 종 립 동 방 불 교 대 학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언제 어디서고 염불하라"고 당부하는 설산 스님. 스님은 "염불을 지극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 만물이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

스님의 왼쪽 발에는 발톱이 하나 밖에 없다. 발톱이 붙어있어야 할 다른 네 발가락은 스님이 스스로 잘라버렸다. 일제의 학병에 끌려갈 수 없다는 항거의 표시였다. 사람들이 스님의 성치 않은 다리에서 지난 역사의 비애를 읽는 것도 이 때문이다. 60여 년을 절뚝이며 살아왔으니, 오른쪽 다리인들 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지팡이와 벽을 의지하지 않고는 걸음을 옮기기 힘들지만 "아직 염불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건강하다"는 것이다.

"늙어서 그런지 낮잠도 많아 졌다"고는 하지만 매일 5시에 일어나 염불로 하루를 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스님이 '조선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만해 스님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만해 스님에 관한 대부분의 글이 스님의 시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나는 스님의 일대기를 쓰고 싶다"는 것이다.

"요즘은 부쩍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만해 스님에 얽힌 이야기들을 쓰느라 더 그렇겠지만 내가 보고 자란 건봉사의 산과 바위와 나무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정겹게 다가올 수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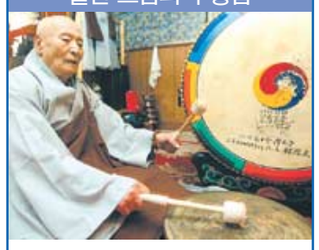
만해 스님 일대기를 쓰는 것 외에 시(詩)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스님이지만, 건봉사가 생각날 때면 읊조린다는 시 한 수를 들려주셨다.

낮달이 걸려 있는 소나무 가지 바위 아래
주리면 열매 따고 풀섶으로 바람 비 가려
옹달샘에 달빛 움켜 마시면 저 멀리
도솔천 별빛이 진주알처럼 흘어진다
연(緣)은 무상(無常)이요, 정(情)은 환멸(幻滅)인데
산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오
–스님의 시 '산거(山居)' 전문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이 곳이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저는 염불을 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염불을 통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곳이 바로 극락이지요."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설산 스님의 수행법



북·징 두드리며 하루 세차례 염불

설산 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세 번, 새벽 5시와 오전 11시 10분, 저녁 6시에 각각 20~40분씩 염불 수행에 매진한다. 스님은 염불을 할 때 번뇌와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북과 징을 이용한다. 전통 염불법에 따라 앉은자리 왼쪽에는 북을 앞에는 징을 놓고 아미타불을 호명한다.

"쇠를 치는 것은 불가에서 지옥문을 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염불을 해서 지옥문을 열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북을 치는 것은 고통 받는 축생의 육신을 모두 쉬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염불하면 새소리 나면 새소리를 쫓고 바람소리 나면 바람소리를 쫓게 되고 잠도 쉽게 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북과 징을 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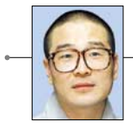
스님은 염불할 때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북과 징을 치는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염불의 전부"라는 스님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해를 관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을 한다. <관무량수불경>에 나오는 극락세계 직관방법인 '일상관(日想觀, 서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일념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염불을 시작하고 끝낼 때는 머리를 조아려 "아미타부처님 예를 드리오니 높으신 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극락세계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하고 기도를 올린다.

"언제 어디서나 염불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염불을 지극히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돌도 개울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서봉 스님



겨울은 언제나 햇살을 찾아 걸음을 옮기게 한다.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햇살은 따뜻함을 넘어 정겹기까지 하다.

춥고 외로울 때 그리고 문득 수행의 자리가 쓸쓸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 햇살처럼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

사람 사는 것의 큰 보람과 의미는 주변 사람들에 있다고 한다. 주변에 좋은 벗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보람을 만난 것이고, 좋은 벗이 없다면 그것은 삶의 보람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다. 마치 꽃이 향기가 있음에 벌과 나비가 찾는 것과 같은 의미다. 주변에 좋은 벗이 없다면 내 삶에 향기가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일이다.

내게는 많은 도반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정답게 다가오는 도반 하나가 있다. 서봉스님. 서먹서먹 하고 조용하던 모임 자리도 서봉스님이 동참하면 금방 재미있고 흥겨운 자리로 변하고 만다. 그의 지방색 짙은 경상도 사투리와 그리고 그 연장에서의 영어 발음은 웃음을 자아 내기에 충분하다.



그림 · 문병성

그와 가끔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 곳에서 만나는 그의 영어 발음은 진가를 발휘한다. 경상도 사투리가 영어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그는 외국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가 물건을 살 때면 사는 물건 보다 그의 목소리와 억양이 더 귀를 잡는 것은 경상도 사나이의 주체성이 강력하게 밴 그의 영어 발음과 억양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죽을 듯이 웃어 댄다. 그래도 그는 줄기차게 경상도 영어로 물건 값을 묻고 깎는다. 그 모습이 참 순수하고 명랑해 보인다.

대개의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또 잘 하는 사람들은 티를 내는 법인데 그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기 식으로 말하고 또 자기 식으로 흥정하는 모습은 그의 삶이 얼마나 명랑하고 구김 없고 순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웃으면 고개를 돌려 함께 웃으며 물건 값을 흥정하던 그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는 또 대단한 기억의 소유자다. 그가 있으면 우리 자리에 화제가 넘치는 것은 그가 조계종의 모든 야사를 두루 꿰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문중의 계보며 스님들의 일상사를 그는 정말 잘도 기억하고 있다. 그와 내가 똑같이 들은 이야기를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는 또렷이 기억해 내고는 한다. 부처님 재세 시에 그가 있었다면 그는 능히 아난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의 경상도 사투리에 담긴 스님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재미가 있다. 동시대를 살았어야만 알 수 있을 듯한 이야기를 한참 후배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나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때로 '서 박사'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내 도반 중에는 박사라 호칭 되는 스님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봉 스님이다. 다른 한 스님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능해 종단 정치와 세속 정치에 탁견을 소유하고 있고, 서봉 스님은

재치있는 입담과 하심으로 사랑 · 나눔 실천하는 스님

절 집의 야사에 한 소식을 이루고 있다.

두 스님이 만나 서로 입을 열면 용호상박의 쌍벽을 이룬다. 가히 입담 고수들의 대결이라 할 만큼 흥미진진 하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논쟁을 펼치다가 다시 일보 물러서 양보하는 척 하다 기선의 제압을 시도하는 그 모습은 무림의 한 장면처럼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대개 고수들의 싸움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승부는 언제나 후일의 일전을 기약하며 호탕하게 끝나고는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봉 스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심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언제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한다. 함께 자고 일어나면 먼저 이불을 개는 것도 그리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 하는 것도 서봉 스님이다.

전혀 싫은 기색 없이 방을 닦고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는 정말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인가를 다시금 느끼고는 한다.

한번은 내가 체했을 때다. 손수 마을에 내려가 약과 따는 기구를 사와 내 열 손가락을 다 따주었다. 그것도 그냥 따 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두드리고 팔을 주무르고 난 후에 따 주어 나를 감동시켰다. 사랑이 가득한 그의 따주기 덕으로 나는 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를 만나면 겨울 추위 속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가 사랑과 나눔의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송이 송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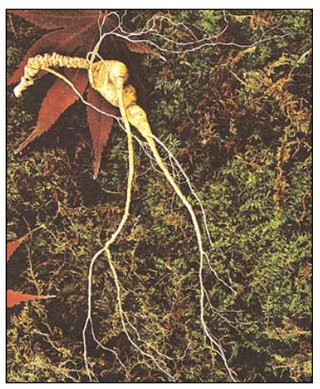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긴~~~ 설 연휴 아이들과 손잡고 놀자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려 눈길을 끈다. 눈썰매, 연날리기 등 놀이체험과 재활용 캔을 활용한 만들기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길어진 설 연휴를 맞아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전국 도심 곳곳서 다양한 체험행사

눈썰매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 풍성
재활용 캔 이용한 만들기 교실 '눈길'

△ 양평 옛날 썰매장(www.swdad.com)

양평 옛날 썰매장에서는 2월 8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 '아빠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날리기, 짚풀로 만든 공으로 얼음판 위에서 축구하기 등 아빠세대의 추억의 놀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설 연휴 앞 뒤 날인 21, 23일에도 개장한다. 접수 인원은 1일 20가족으로 제한돼 미리 예약해야 한다. (02)575-5569

△ 서울랜드

서울랜드에서도 방학맞이 체험학습장 행사가 한창이다. '전통공예 체험장'은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작가들의 지도로 연, 팽이, 탈 등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칠보공예교실, 한지공예 교실, 석화 공예교실, 전통 문화재 블록 체험 교실 등 총 8개 교실로 운영된다.

또 캔모델러 조원주 씨와 함께 재활용캔으로 로봇, 새 등을 만드는 '재활용 캔 모형 만들기 교실'도 열리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이 한창이다. 재활용 만들기교실과 공예교실(아래). 사진제공= 서울랜드

재미있는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기회다. (02)504-0011

△전통문화행사

가족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도 설 연휴를 전후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은 1월 21일~24일까지 신년맞이 굿, 차례상 진설법과 세배 등 예절 강좌 등이 열리며 역사박물관에서는 22~23일 민속놀이 체험, 새해 소망편지쓰기, 궁중복식 입고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는 복주머니 나누기, 떡매치기 등의 행사가 열리며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맞이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김두식 · 한상희 기자

■전통문화체험행사 일정

장 소	일 시	행 사 명	연 락 처
남산골한옥마을	21~24일	차례상 전시, 민속놀이 체험, 예절강좌 등	(02)2266-6923
역사 박물관	22일~23일	소망편지쓰기,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	(02)724-0111
운현궁	22일	우리가락 민요한마당, 토정비결 보기 등	(02)766-9094
서울놀이마당	22일	남사당놀이, 줄타기, 가훈써주기 등	(02)414-1985
국립민속박물관	21~24일	택견시연, 북청사자놀음, 새해맞이 굿 등	(02)734-1346
정동극장	21~25일	전통무용, 전통음악, 사물놀이 공연 등	(02)751-1500
한국민속촌	21~2월 8일	설과 보름 세시풍속 체험	(031)286-2111
롯데월드민속박물관	21~22일	고전해학극 '호평전' 공연, 장승만들기 등	(02)411-4761
어린이대공원	21~25일	널뛰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등	(02)450-9334
전주국립박물관	21~2월 5일	설맞이 문화축전, 전승민속놀이 등	(063)223-5651
엑스포과학공원	21~25일	떡메치기, 복주머니 나누기, 우리명절한마당	(042)866-5114
국립대구박물관	20~23일	다식 만들기 등 문화체험행사	(053)768-6051
통도판타지아	22~25일	윷놀이 · 널뛰기 · 제기차기 · 투호 · 탈떡먹이기 등	(055)370-3000~8

설날특집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7:05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08:10 사라진 것들에 대하여
11:10 웃음가득, 정감가득 고향가는 길
15:00 노래로 듣는 연하장
17:05 우리시대 선지식을 찾아서
18:15 오늘 같이 좋은 날
20:05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노래

Btn 불교TV <ch 32>

21일 14:25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22일 09:10 단청장 김성규
23일 12:50 정률 스님 찬불가
24일 08:30 성운대사 불경강좌
25일 14:20 석주 스님 특별강좌
26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7일 21:1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설날특집 우리시대의 선지식을 찾아서(21~23일, 17:05)-우리시대의 선지식들로부터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 21일부터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22일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의 법문, 23일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의 특별 대담이 차례로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설날특집 정율스님의 찬불가 교실 (1월 23일 12:50~13:50)-설하면 떠오르는 세화, 복조리 등 옛날 풍습들을 이야기해 본다. 또 세계 이웃 나라들의 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방청객들에게 복주머니에 덕담을 넣어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무공해 식물성양초

보통 양초는 공업용 파라핀으로 만들어 오래 켜두면 냄새, 그을림이 생기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자열매에서 기름을 추출, 식물성 왁스를 혼합해 만든 이 제품은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도 길다. 값 5만 6천원. (02) 732-1520



한국 선화 · 석불사진 네팔서 선보인다

카트만두 나인갤러리
김대규 · 이근후 초청전


김대규 作. '달마도'.

달마도 등의 선화와 서산 마애석불, 칠불암 석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석불사진 100여점이 네팔불자들에게 소개된다.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나인 갤러리는 한국의 불교미술을 소개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주간 '한국 예술가 특별 초청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가수이자 화가인 김대규 씨와 이근후 열린마음클리닉 원장이 초청됐다. '100개의 선이미지(100 Image of Dhamma)'라는 주제로 100여점의 선화를 선보이는 김대규씨의 전시는 개막일인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또한 '한국의 석불 100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근후 박사 사진전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열린다. 전 이화여대 의대 교수인 이근후 박사는 20여년간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이끌며 전국의 불상을 참배하고 연구해왔다. (977)1-4428694, gallerynine@wlink.com.np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게시판

함께 떠나요

■ **서원사 동계수련회**

경남 창원 서원사는 1월 21~23일 신행활동의 경험이 많은 불자를 대상으로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55)291-6405

■ **삼보사 중학생 겨울불교캠프**

삼보사는 1월 27일~28일까지 경북 의성 고은사에서 중학생 겨울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 영어경전 사경, 불교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3)763-5223

모집합니다

■ **승가대 보육교사 신입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은 2월 28일까지 2004학기 제 14기 보육교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주 · 야간반 각각 100명. (02)929-5004

■ **파계사 영산율원 연구생 모집**

파계사 영산율원은 2월 5일까지 영산율원 학인 및 비니원 연구생을 모집한다. (053)982-2223

■ **무료 정보화교육대상자 모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중 상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02)989-4215

공부합시다

■ **근본불교 수행도량 집중수행**

'근본불교 수행도량'은 2월 13~19일(6박7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반야로까 성오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51)632-8488

■ **우곡선원 초심자 참선교육**

우곡선원은 초심자들을 위한 제 18, 19기 참선교육을 부산과 서울선원에서 실시한다. 부산선원(051-740-6288)은 1월 27일~2월 7일(2주간), 서울선원(02-2055-3111)은 2월 3~14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10시에 각각 열린다.

■ **4념처관 무료 공개강좌**

서울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2월 3일부터 한달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강의실에서 '4념처관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강사는 심념처(心念處)를 위주로 4념처를 지도하는 묘원 법사다. (02)980-2377

극장가



곰이 되고 싶어요 (The Boy Who Wanted To Be A Bear, 2002) / 가족, 애니메이션 / 75분
계봉예정일: 1월 30일
감독: 야니크 하스트럽
출연: 오토 브랜덴버그, 앤 클로슨, 조빔 보제 헬리앙 등
곰이 되고 싶어하는 한 에스키모 소년의 이야기를 덴마크의 거장 야니크 하스트럽 감독이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시켰다. 2003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2003년 시카고 국제 어린이 영화제 심사위원상,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 부분 출품작.



스파이 키드 3- 게임 오버 (Spy Kids 3-D: Game Over, 2003) / SF, 모험, 가족 / 84분
개봉예정일: 2월 5일
감독: 로베르트 로드리게즈
출연: 안토니오 반데라스, 칼라 구지노, 알렉스 베가
2001, 2002년 개봉해 미국에서만 2억만 달러가 넘게 벌어들인 가족용 SF 모험 시리즈다. 특급요원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재능이 뛰어난 주니와 카르멘 남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다.



그녀를 모르면 간첩 / 코미디, 로맨스
개봉예정일: 2월 13일
감독: 박한준
출연: 김정화, 공유, 남상미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얼짱' 아르바이트생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삼수생의 이야기. 모대학 앞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실제 있었던 해프닝을 소재로 했다. 대역이 필요 없었던 김정화의 액션연기도 눈여겨 볼만.

공연

국립국악원 새해 특별공연



국립국악원은 1월 2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설 특별공연 '점하나로 여는 새해'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다시 면을 메워가며 올 한해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기획 된 것. 새해의 첫 점을 찍는 의미에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선과 면을 체워가는 과정을 가야금 독주, 승무, 종교제례악 등을 통해 형상화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명우 이매방 선생이 직접 출연해 승무를 공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시

서옹 스님 사리친견법회 · 사진전

백양사는 1월 30일 오전 9시 백양사 참사람수행관에서 서옹 스님 사리친견법회와 사진전을 연다.

이날 공개될 서옹 스님의 사리는 명당수에서 수습된 참사리 4과와 습골과정에서 나온 사리 1백여과이다. 또 명당수를 담았던 항아리와 서옹 스님의 생전 모습을 찍은 사진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061)392-7502

인사동 심여화랑 베트남 화가 특별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심여화랑은 연중 상시로 '배트남 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현재 베트남의 박수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부이 후안 파이를 비롯해 명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홍 비엣, 강한 색과 선이 특징인 레 탕 손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02)739-7517

서양음악과 12간지의 만남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의 서양악기와 클래식 음악의 이미지를 동양의 12간지에 접목시킨 최성숙 문신 미술관장의 '녹턴 그리고 카프리치오' 전이 1월 31일까지 서울 광화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12마리 동물들의 모습이 작가 특유의 간결한 터치를 통해 유머 있게 그려지고 있다. (02)6303-1919

< 20면 「상식 퍼즐」 정답>

기	전		감		무		십	지
단	도	직	입		색	즉	시	공
	몽		관	무	상		일	
비	상	구		착		등	반	대
		조	아		대	산		
동	고	선		실		모	연	운
	족		삼	태	기		화	
형	제	자	매		중	심	세	력
부	자		경		기		계	산

설날 편하고 멋스런 생활한복 입어 볼까

생활한복 구매 요령



생활한복은 소재에 따라 평상복 뿐 아니라 예복으로도 어울린다. (사진제공 : 돌실나이)

설, 추석 등 명절이 돼도 거리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사람은 보기 힘들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종종 눈에 띈다. 단정함과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적당히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생활한복은 학교 교복, 단체 유니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생활한복은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생활한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경기침체로 의류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요즘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한복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반 한복보다 저렴하고 활동이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기 사극의 영향으로 드라마 주인공이 입었던 옷을 응용, 전통의 라인과 현대의 감각을 접목시킨 생활한복도 선보이고 있다. 또 차츰 예복화 되면서 면 소재 중심의 제품에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제품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실크·면·폴리 등 소재 다양 튀는 디자인 보다 심플한 파스텔 톤 좋아

△ 이렇게 고르세요

생활한복을 고를 때는 천연소재인지 확인해보고 피부색과 체형에 어울리는지를 고려해 디자인과 색상을 결정한다. 저렴한 가격만 고집하거나 유행에만 신경쓰면 금세 싫증날 염려가 있다.

바늘땀선, 안감마무리 등 전체적인 바느질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평상복으로는 질 좋은 면으로 자연스러움을 살린 편안하고 손질이 간편한 제품이 적당하다. 명절에는 실크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화사한 제품이 좋다.

중년 이상은 한 벌로 갖춰 입는 편이 좋고, 젊은 세대는 캐주얼하게 변형된 저고리, 조끼 등을 적절히 코디해 입는다. 또 화려하고 튀는 디자인보다는 베이지, 카키, 연한 분홍 등 파스텔 톤에 장식이 덜 들어간 옷이 어울린다.

뚱뚱한 체형은 저고리보다 치마를 길게 입는 대신 천이 뻣뻣하고 주름이 많은 것은 피해야한다. 마른 사람이나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입는다. 생활한복과 함께 천으로 만든 작은 가방, 앞이 둥근 통굽 구두 등을 맞춰 입으면 돋보인다.

△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일반한복보다는 저렴하지만 보통 생활한복 한 벌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10만원부터 30만원 선까지 종류와 소재에 따라 다양하다. 어린이용은 한 벌에 보통 9~15만원. 단품의 경우에는 저고리 3~6만원, 바지 6~7만원 선이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생활한복 브랜드 본사직영 상설할인 매장에서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생활한복도 명절 때가 되면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연휴를 맞아 생활한복 할인 행사를 벌인다. 생활한복전문 브랜드 '질경이'는 1월 한달 간 서울, 대전, 울산 등의 대형할인점, 백화점에서 1만원~ 19만원까지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질경이 측은 "생활한복에 관심 높은 고객들을 겨냥해 평소에 매장에서 접할 수 없었던 제품들도 선보인다"고 밝혔다.

가격 10만~30만원 선 할인매장 · 재래시장 가면 최고 50% 싸게 구입

혼수 전문점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동대문 종합시장이나 남대문 중앙상가 등의 혼수전문 재래시장에서는 혼수용 한복 뿐 아니라 생활한복도 판매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로 4~5가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한복 전문시장으로 유명하며 매장의 40%가 생활한복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 매장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새해 아침에 만난 우바이

청년여성문화원 진민자 이사장



지난 2003년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된 진민자(60) 청년여성문화원(이하 청여원) 이사장. 보건복지부 가정의례 심의의원,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 대표, 대학 겸임교수, 구 · 시청 등 관공서에서의 특강, 각종 출판물의 기고 등 현재 하는 일들을 헤아려보면 20가지도 넘는다. 어렵게 짬을 낸 가운데 기자를 만나 차근차근 자신의 생활철학을 이야기하는 진 이사장의 모습에서 바쁨보다 인연 따라 행동하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1985년 청년여성문화원을 설립한 이래, 페미니즘의 동양적 접근을 주창해온 진 이사장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은 불교였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서양의 페미니즘을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은 오히려 사회문제의 대안을 동양사상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라면 더더욱 우리 문화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 생활과 사상, 전통을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전 이사장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 빠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7년이다. 60년대 대학시절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소위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유교적 분위기의 엄격한 집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 당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 법학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진 이사장에게 주변 사람들은 사찰을 찾아가보라 권유했다. 이때 인연을 맺게 된 분이 탄허 스님이다.

"여성 · 사회문제 대안 동양사상에서 찾아야"

"빈털터리 학생을 절에 기거하게 해주신 게 감사해 스님을 도울 일이 없을까 궁리했지요. 마침 당시 스님께서 매진하시던 <신화엄경합론>등 경전번역의 교정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이후 탄허 스님의 어깨 넘어 접하게 된 불교경전에 매료돼 진 이사장은 법학에서는 손을 떼버렸다. 이를 계기로 불교, 도교, 유교전통 등의 동양철학 공부에 6년간 몰두했다. 젊은세대를 대상으로 교육과 행동으로 영향을 주자는 움직임에서 청년여성문화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여성은 가정과 사회의 중심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 주부에게 바른 사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불교의 정신이다 아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근하지만 몸에 밴 습관처럼 만들어줘야지요."

생활양식과 의식 속에 우리 전통문화와 동양사상을 스며들게 해야한다고 강조한 전 이사장의 정신은 △양성 평등의식 함양 및 여성인력 개발 △동양사상과 생활문화 운동 △평등 가정의례 실천 및 보급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이라는 청여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청여원은 특히 20년 가까이 젊은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진행하고, 잘못 알려진 가정의례를 바로잡는데 애써왔다. 전 이사장을 이를 통해 참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정한 운동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여원을 오랜 세월 이끌어 온 뜻입니다."

진 이사장은 앞으로 의식 있는 젊은여성 30여명을 10~15년에 걸친 장기교육을 통해 진정한 여성지도자로 양성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진 이사장의 희망 속에서 한국 여성의 미래가 보인다.

한상희 기자

인터넷 · 백화점 · 놀이공원 무료이벤트 이용하세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 웹하드 토정비결 · 스키 강습 등 다양

지난해부터 계속된 불경기 탓일까. '공짜', '무료'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 진다. 설 연휴를 전후해 인터넷,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곳곳에서 각종 무료행사를 벌이고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무료정보를 살펴본다.

△인터넷

연휴를 맞아 이쪽저쪽 인사할 곳이 많다. 일일이 연하장이나 이메일을 보내지 못할 때는 간편하게 문자메시지로 대신하자. LG텔레콤 홈페이지(www.lgtelecom.co.kr)에서는 새해인사용 단문메시지(SMS)를 20건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이벤트를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인터넷에 자신의 저장공간을 이용해 자료 저장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하드디스크 서비스 웹하드(www.webhard.co.kr). 데이콤은 웹하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25일까지 펼친다. 웹하드 유료회원이 아니면 누구나 원고지 100만 여장, 사진 1천여장이 저장 가능한 300Mbyte를 15일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주운명학(sajucyber.com/tojung/index_giljae.php3), 디지털 토정비결(cherry9980. nalove.org/tojung.htm)에서는 무료로 갑신년 토정비결을 볼 수 있다.

△레저

모처럼 맞게 된 휴일, 가까운 눈썰매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 안산 사계절 썰매장 아이랜드는 1월 23일까지 오전 10~11시 사이 한복 입은 고객과 원숭이띠(80년 생)에 한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031)492-0030

스키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다. 무주리조트는 1월 18일부터 2월 말까지 중급자용 슬로프(루키힐) 하단에 위치한 하프파이프코스에서 무료 강습을 실시한다. 홈페이지(www.mujuresort.com)에서 쿠폰을 출력 받아 신청해야 한다. (063)322-9000

△ 백화점, 할인점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로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무료로 배달해줘 기억해두면 선물하는데 편리하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는 매장에서 선물세트 5만원 이상, 상품권은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달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점에서도 선물세트를 3만원 이상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이 무료다.

제3회 전국 불교만화공모전

최고상 ★문화부장관상★ 에 도전하세요

★ 총 2,000만원 고료!
★ 2004년 1월 31일까지
★ 누구나 참여가능!!

분 야
애니메이션, 인쇄만화, 캐릭터 및 기타
(편수제한없음/컴퓨터 제작품은 CD와 프린트물 제출)

접수처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2번지 9통 11반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
불교만화공모전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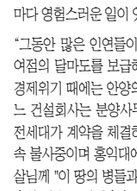
문의전화
(서울) 02-3392-0334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www.okbuddha.com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北支部 : (054) 553 - 5145
大邱支部 : (053) 641 - 2334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한배달 '품다 강좌'



알고 마시면 맛 향 두배



서울 종로 한배달 사무실에서 열린 '품다(品茶) 강좌'에서 수강생들이 고려다원 하서룡(사진 위)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차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차 고르는 기준

■ 마른 찻잎의 생김새

–크기가 고르고 가지런해야 한다. 깨진 잎이나 덜 펴진 잎, 줄기 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찻잎은 색깔이 윤택하고 단단하게 말려져 있어야 한다. 덜 말린 잎이나 뭉쳐진 잎이 있으면 좋지 않다.

–백호(白毫, 찻잎 뒷면에 있는 흰털)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차가 좋다.

■ 찻물의 색 · 향 · 미

–색은 맑고 투명해야 한다. 찻물이 혼탁하거나 가루나 검은 티가 많이 가라앉는 차는 좋지 않다.

–은은하고 맑은 향이 나야 한다. 발효나 저장을 잘못하거나 오래 묵은 차에서는 쉰 냄새와 뜬 냄새가 난다. 비릿한 풋 냄새와 탄 냄새가 나는 차도 좋지 않다.

–제대로 만든 차의 맛은 달고 부드럽다. 상쾌하면서도 짙은 감칠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한 차는 쓰고 떫은 맛이 강하게 나고 뒷맛이 텁텁하다.

■ 우려낸 찻잎의 모양

–찻잎의 생김새와 빛깔은 균정(均整)해야 한다. 창기(槍旗)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오늘 처음으로 마셔볼 차는 백차입니다. 백차는 성상(成相)이 가지런하지만 성질이 차고 냉합니다. 녹차에 비해 달지만 맛이 농후하지 못해 생산과 소비는 많지 않습니다. 찻물이 우러나는 시간은 일반 차의 2배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1월 9일, 고려다원(www.hadongtea.com) 하서룡(사진) 대표의 '품다(品茶) 강의'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의 한배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1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의가 시작되자 수강생들은 찻잎을 나누어 받은 후 찬찬히 모양을 살펴보고 각자의 다기에 넣어 우려낸다. 차가 우러나는 상태를 관찰한 후 한 모금씩 마셔보며 향과 맛을 감상한다. 틈틈이 차의 특징과 느낌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차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차의 맛과 향을 감정하는 '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만큼 다양합니다. 또 비슷한 이름의 차라 할지라도 산지와 등급, 제조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품다'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나 만드는 이 모두에게 중요한 기본 바탕입니다."

'품다 강의'를 맡고 있는 하 대표는 우리 차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해 차의 맛과 품질을 제대로 감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차 산지 등급따라 천차만별
> 茶인 증가, 감별 능력은 부족
> 소비자 직접 평가가 중요

"사실 국제적인 품다 기준은 차 무역이 활성화된 20세기 초에 완비됐습니다. 차를 수출, 수입하는 차시장에서 이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산지역이나 제조방법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없는 까닭에 대체로 찻잎의 채취시기로 차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전'이나 '세작', '중작' 등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찻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등급을 결정하는 유통 시스템이기에, 간혹 차의 맛과 향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정부나 차 관련 공식 기관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기 보다 직접 차를 소비하는 사람이 품다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맞는 차도 선별할 수 있고 차의 품질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하 대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등급의 차를 마셔봤을 때 종합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포장된 상태에서 차가 판매되는 우리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다양한 차를 직접 마셔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강좌를 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의는 1시간의 이론 강의와 1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차에 대한 기본지식과 품다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직접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그 맛을 평가한다. 강의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국내외의 대표적인 녹차와 발효차 30여 종을 마시게 된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다도를 전공하고 있는 김미라(31) 씨는 "학교에서는 차를 직접 마셔보는 실습이 부족한데 이번 강의에서 다양한 차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차를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 대표가 말하는 '좋은 차'란 무엇일까?

"우선 차는 마신 뒤 개운해야 합니다. 우리기 전 찻잎의 모양은 고르고 가지런해야 하고 우렸을 때 균일하게 우러나며 맛과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우려낸 후에는 찻잎이 가지런하고 깨진 잎이 없을 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오묘한 향과 맛을 즐기는 것을 두고 차를 '몸'으로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자신의 체질과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신의 체질과 차의 성질이 맞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02)747-898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문화 교육현장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선방의 차향기 세상으로…

'행복한 삶,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전통문화인 '차문화'와 21세기의 화두로 급부상한 '사회복지'와의 만남을 시도한 부산여자대학교(이사장 정상구)의 차문화복지과는 단연 돋보인다.

2003년 학부 최초로 차문화복지과를 개설한 부산여대는 불가(佛家)의 선방에서 명맥을 이어온 차문화를 현대의 복지현장에 적용하려는 신선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학 부설 차문화복지연구회는 차를 통한 치료법인 '다촌치료법'을 개발, 정서 장애아, 비행청소년, 노인 등에 적용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차문화와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책을 내고 차문화와 사회복지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다촌 치료법' 개발 효과 입증
정서, 신체 장애 등에 활용

차문화복지과는 차를 우리고, 차를 마시는 행위 모두를 복지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찻잔을 잡거나 차를 따르는 행위 등의 행다(行茶)를 신체 기능 향상에, 차를 마시며 나누는 다담(茶談)를 정서적 기능 향상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차문화복지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노인복지분야에 다회(茶會)를 접목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아동치료, 장애치료, 정서치료 등에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80명의 졸업생을 낸 차문화복지과는 주간반, 야간반 각 40명을 모집하며 야간반에는 차에 대한 사랑을 복지현장에 쏟으려는 60대 학생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교과내용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비롯 행다실기, 다도, 예절, 차의 성분과 효능, 꽃예술학, 다구 감상, 차와 사회복지, 다촌치료연구 등의 과목이 망라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실습실에서 실습도 빼놓지 않는다. 다도사범 1급, 사회복지사 2급, 다도전문지도사, 예절전문지도사 등의 자격증이 주어지며 졸업 후 복지관, 학교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차문화복지과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치료 복지를 거부한다. 차문화의 생활화로 화(和) 경(敬) 검(儉) 진(眞) 정(靜)의 차문화 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중심의 사회가 실현되어야 차문화복지과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인터뷰 정영호 학과장

시설·교육 프로그램 세계적 수준



"가장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차문화를 복지현장에 적용하면 가장 세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영호 학과장은 차문화복지과의 학문적 연구와 적용은 현대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차박물관, 다도관, 다촌관 등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차문화복지과의 전망은 더욱 밝다는 게 정 학과장의 설명이다.

정 학과장은 "앞으로 다촌치료법의 연구 및 개발에 힘써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선진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반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소제와 뿌리,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임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참선교육 63기 교육(2월 10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리를 뛰어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항상 같이 했으나 지난번에 바다 건너갔다 온 이래로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안에 만나뵌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저쪽이든 바다 건너 이쪽이든 멀고 가까움은 없겠지만 모두들 한국보다는 달리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생활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우리는 그래도 좀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내가 아침 새벽에 나가면 남편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고, 부부가 교대로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이런 가정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서(經書)를 가지고 풀이를 해서 강의를 해준다거나, 또는 백팔배를 한다든가 오백배를 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느꼈고 또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2, 3년만 넘어가면 젊은이들이 더 바쁘게 뛰어야 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네들도 그렇고 중년 되신 분들도 그렇고, 애들까지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뛰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남을 쫓아가기보다는 앞서서 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절에 다닌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바로 행선(行禪)입니다. 그런고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마는 들이 아닌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참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버리는 마음,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행이 나올 때는 항상 평등 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는 전부 도반이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로구나, 어마어마한 공부로구나.'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할 수가 없으리만큼,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이만하면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천체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물질이 나왔습니까? 우린 자비의 칼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서 악의 조건, 선의 조건을 다 우리 마음으로써 잘 보고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손아귀에 다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챙겨 들으시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밝고 밝은 시대에 연구를 해낸 물건들이 모두 전쟁하는 데 쓰이고 모두 죽이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마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 의해서 그런 연구를 제재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못해보고 맛도 모른다면 그 하나마저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타개를 못하고 조절 못합니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거니와 사회도 이끌어나갈 수 있고, 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내 집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집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내 집만 지키고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실험하고 체험해서 스스로 단단히 지키고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역사를 가져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이하고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그뿐이니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인 그 뜻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몸을 내가 벗어나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그러니까 요거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한테 운이라도 띄워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대국에서는 연구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떡하면 빛처럼 빨리 가서 큰 잠수함이나 비행기 같은 것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 어떡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조그맣게 새조떡 두어 개 한데 뭉친 것처럼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도 크나큰 거를 다 흡수할 수 있을까, 또 요만한 덩어리를 아주 작게 해서 큰 덩어리를 반 쪼개낼 수 있을까? 어떡하면 음과 양을 한데 합친 탑지기나 망원경까지도 조절하고 컴퓨터까지도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모든 거를 다 알고 보고 행해서 미리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타개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연구들을 서로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련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재빨리 할 양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좀더 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연구를 빨리 해서 우리는 살고 상대는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좀 조절해서 안유하게 만들어 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합니다. 현재는 쌍방이 똑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죽으니까요. 양쪽이 다 죽지 않고 한쪽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을 까뒤집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서 그것을 모두 보고 듣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알고 이런 재료가 여러분한테 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보는 거 듣는 거를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이 끌어오는 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첨보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구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을 충만히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보이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죠? 물질로 볼 땐 '자석'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들 마음공부에서는 '자력'이라고 합니다. 안 그럴까요? 내가 표현이 틀렸을까요? 난 여러분처럼 용어를 잘 알고 그러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이끌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도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고도 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무한의 모든 것을 다 내도 줄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느니라. 삼천대천세계 우주 모두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생(四生)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좁쌀 한 알갱이에 다 운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도 그릇이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참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절에나 다니고 뭐, 음식이나 놓고 빌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났으면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자석이라고 합시다. 자석이 이만한 덩어리라면 요만한 덩어리로는 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큰 바위에 계란 갖다가 붙이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석이 크다면,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자석이라면 모두 거기 가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태양에도 달세계에도 모든 것이 그 분야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덩어리 바깥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방울 같은 그런 아주 좁쌀 같은 거, 또 하다못해 콩 같은 고런 거, 물질이 아닌 물질, 물방울 같은 게 그 덩어리를 돌면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원을 안 한다면 터져버릴는지도 모르죠. 안에서는 안에 대로 조절을 해서 마음을 내면 내는 대로 복사체제로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들이고 내는 것을 완화되게 조절을 하죠. 통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던가요. 우리네 마음은 수시로 촐나촐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자동기입니다. 지금 어디 뭉쳐서 매여져 있는 게 아니라 자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자동기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여여한 자동기인데도, 자동적으로 마음 내는 대로 살게끔 고등 동물로, 즉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거의 습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마음이 자기를 옹겨매 놓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 건데도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뛰는데 졸장부의 걸음걸이는 백 리를 뛰어도 한 걸음 뛴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버리는 마음

여러분은 육신으로써 벌어먹으려고 돈을 쫓아서 그냥 막 뛰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끌어도 다 불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걸음을 뛰어도 뛰는 거지 몸뚱이로 그걸 쫓아서, 요만한 걸 보고 쫓아서 그냥 뛰면 몸뚱이 고달프죠, 병생기죠, 집안에서도 가족들을 잘 못 지키죠? 신경질이 나니깐 또 화목하지 못하죠? 그러니 일일이 손해 아닙니까? 일일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날 위해서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둘이 아닌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몸뚱이가 이 집 가서 한 철, 저 집 가서 한 철, 저기 가서 한 철 살면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할까요? 어떤 게 또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내 형제라고 할까요? 부모는 누구나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똑같은데 언제 적 부모를 내 부모라고 하고 언제 적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조상과 육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몸을, 응신(應身)할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의 은혜! 모든 것을 한데 합치면 어떤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의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친정어머니도 내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곤란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아니까요. 사람은 거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
마음으로 살면
보고 듣고 다 할 줄 알고
나 아님이 없으니까
어디 가나 통과 통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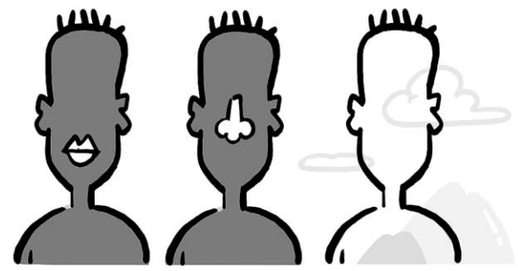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도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앞의 걸 해결하고 넘어가라

짓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마음, 의리와 도의를 지키는 마음, 이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마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새로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서를 뒤집어보면 현재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과학적으로 가고 지금 자동기로서 물질이 돼 있듯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혹성이 돌아가고, 별성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공부인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먹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냄새나 맡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사는 생명들이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냄새 맡고 사는 세계, 먹고 사는 세계,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산다, 죽은 영령들도 냄새를 맡고 살기 때문에 시식을 지내준다는 둥 천도를 해준다는 둥 온통이 야단이 나는 거지 현실에서 자유자재하고 살면서 그 의식을 다 떠났을 때는 그건 죽어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야지 냄새나 맡고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곧바로 얘기해 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면 보고 듣고 다 할 줄 알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통과예요. 통과, 통과, 통과입니다. 그러니깐 표현하자면 주장자 하나 딱 들면, 똥그란 것이 하나 거기 얹혀 있는 셈이나 한가지니 그거를 들면 그대로, 그대로 통과죠, 다. 그냥 아무 데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그런데다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옛날에 어느 사람이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것을 그냥 뺏어 먹으려고만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요. 아휴,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기 어떤 사람 있어요. 남의 것도요, 돈을 꿔줄 때에 삼십억짜리면 한 삼천만 원 꿔주고서요, 몇 해를 끌다가 나중엔 결국 제 걸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떡하든지 소송을 걸어서까지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쓰죠. 그렇게 남의 걸 뺏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종이냐 선종이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선(禪)에는 악종도 없고 선종도 없다 이러지마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계는 악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악종은 선종을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선종이 도리를 모르면은 무의식중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악종에게 먹혀요.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끌려서 그 입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은 선종의 입을 벌리면 모든 악의 조건과 악종이 전부 선종의 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불바퀴에 굴려서 나오게 되면은 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 종류였다 해도 그냥 마음이 안이하게 되고 그 불씨로서 자비한 마음을 닮아서 체인지가 되어가지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종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죽어서도 아주 악 두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생각이 악이니까, 악씨가 그냥 수만 개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와서 어느 동네 어느 나라를 덮쳤단 말입니다. 덮쳐가지고는 그냥 막, 말하자면 그 영력의 피를 그냥 빠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모두 병들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타서 쓰러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 그럼 중국이라고 합시다. 그래 이웃 나라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막 그렇게 악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종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반짝반짝하면서 돌아다니는 벌레 있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반딧불, 반딧불처럼 보이면서 사람 속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있는 거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 과학이 지금 이 현상세계고 바로 우리 사는 이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이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큰 돌 속에다가 자그마한 돌을 넣어서 벌려가지고 자력으로써 다 끌어들인 거죠. 안 그럴까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 속에다가 다 가둬놨단 말입니다. 가둬서는 깊은 물 속에다 탁 처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깐 왜, 꽃이 시들었다 물을 주면은 피어나듯이 그렇게 선종이 피어난 겁니다.

시간을 지킬줄 알아야 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킬줄 알아야 해요

내가 예전에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괴질로 인해서 다 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는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수십만 명을 다 건졌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닫아서는 천길 만길 물속에다가 가둬넣어 놓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아닌 반딧불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악의 씨죠. 그것을 전부 가두어놓으니까는 화초에 물을 줘서 살아나듯이 그 사람네들이 모두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거든요. 그러고는 타서 흡집이 났던 것도 자동적으로 꾸덕꾸덕해지고 낫고 말입니다. 그분이 또 겉으로는 전부 약을 발라주고 다니면서 다 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건 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십니다. 나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도가 있기 이전에, 도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라 이거야. 앞에 닥치는 거를 마다하고 큰 거를 잡으려고 뛰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도를 얻기 보다도. 그래서 도를 찾는다, 도를 이룬다 이러기 이전에 사람 노릇을 한다면,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죽으러 가는 소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소 하나도 '너의 육신이 소니까, 사람한테 그 고기를 먹히고 너는 인간으로 환토를 해야지.' 하고서 그 소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탁 넣으면 소가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전부 알아버려요. 그러니깐 소가 금방 사람이 돼요. 금방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잘 나에 사람이 됐어요. 육신만 없다 뿐이지. 육신은 가요, 지금. 의식을 빼놓으면 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큰 돌 같은 망치로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건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이예요. 의식을 빼니까, 마취한 거와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면서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모습만 각각이지 그 마음이야, 슬픈 마음이야 어찌 돌이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선고를 받고 끌려갈 때의 그 마음이나 소가 죽으러 가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한데 넣었을 때 두드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의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냥 내가 된 거죠. 내가 돼서 내가 또 좋은 데로 천도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

458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2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혐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의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몸이 물을 만날 때…



▌목욕으로 겨울철 건강 지키기

미국 FRB(연방준비은행) 위원장직을 오랫동안 연임한 80고령의 그린스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의 건강유지법이 바로 '목욕요법'이라는 것을 아는가? '목욕'을 단순히 씻고 닦는 행위로 생각하는 독자라면 이번 기회에 '물'과 '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몸의 자연치유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목욕요법의 원리와 그 구체적 치료방법을 알아본다.

⊙ 목욕요법의 원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근육의 긴장이다.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액순환 장애는 내장기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해 각종 심인성(心因性) 질환을 유발한다.

목욕요법은 물을 이용해 질환의 근원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시도다. 근육이완은 모세혈관의 확장과 혈액순환 정상화를 돕는다. 이에따라 노폐물의 배출 또한 촉진된다.



각종 질환의 근원인 근육 긴장 완화
신진대사 원활로 노폐물 배출 촉진

⊙ 목욕요법의 종류와 방법

▶ 냉온욕

찬물과 더운물에 번갈아 들어가는 물치료법의 일종이다. 피부가 수축확대를 거듭하기 때문에 온탕욕에 비해 노폐물 배설 및 피로회복 효과가 크다. 자율신경조증, 관절 강직이나 류머티스 질환, 신경성 통증에 효능이 있다.

◇방법

온탕은 41~43도, 냉탕은 14~18도가 적당하다. 처음에는 냉욕부터 시작해, 전신 냉욕 1분 · 전신온욕 1분을 8~11회 반복한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도 좋다. 냉탕에서는 굳어진 근육과 염증부위를 주물러주고 온탕에서는 가만히 몸을 펴고 앉아 있는다.

◇주의점

찬물에서 시작해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음에 냉탕입욕이 곤란할 경우 온욕으로 시작하는 것도 허용된다. 38도 이상의 열이있는 사람은 냉온욕을 삼가야 하며, 고혈압 · 협심증 · 동맥경화 환자 역시 냉탕입욕시 혈압이 상승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가볍게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대신한다.

▶반신욕

반신욕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38도 정도의 물에 명치 아래, 즉 하반신만 20~30분간 담그는 목욕요법이다. 하반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리통, 자궁 통증 등의 부인병을 비롯, 전립선 이상 징후와 치질이나 하지 정맥염, 만성위염이나 위 · 십이지장 궤양 등에도 효과가 크다. 미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온욕이 어려운 고 · 저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 계통 질환자에게도 권장되는 목욕법이다.

◇방법

미온탕에서 3~4분간 몸을 담갔다가 나와서 3~4분 쉬는 것을 반복한다. 탕에 있을 때는 발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무릎을 펴고 굽히는 등의 가벼운 움직임을 내는 것이 좋다. 약 20분 정도 지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몸에서 땀이 흐른다. 욕수에 약쑥이나 알로에 분말(차숟가락의 3분의 1 정도)를 넣으면 목욕직후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의점

탕에 들어가기 전 몸에 물을 미리 끼얹지 말아야 한다. 발만 물에 적신 후에 하반신을 담근다. 입욕해 있는 동안에는 팔도 물에 담그지 말아야 한다.

▶ 각탕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시건강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목욕치료법인 각탕은 장딴지 아래만 뜨거운 물에 담그는 요법이다. 전신욕보다 '발한' 효과가 오히려 뛰어나 간단한 방법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법

물통이나 대야에 40도 전후의 물을 발목 혹은 무릎 아래까지 잠길 정도로 부은 뒤 발을 담근다. 이때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이불로 상체를 덮고, 약 5분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 온도가 1도씩 오르도록 조절 해준다. 대개 15분이 경과하면 전신에 땀이 배어나오는데 이때 냉수대야에 발을 1분간 담가주면 좋다. 끝난 후에는 30분 이상 평상에 누워 쉰다.

◇주의점

각탕 후 바로 옷을 갈아입으면 몸이 금세 차가워지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40분 정도 몸을 덥게 하고 누워있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발을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둬야 한다는 것. 또한 각탕 후 1시간 이내에 수분과 비타민 C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데, 물을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을 마셔야 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도움주신 분=분당차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호준 교수, 경희대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이종수 교수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❸

마음에도 영양소가 필요하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세가지 특성



그림 / 김영민

마음의 세 가지 속성, 즉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사트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늘 건강하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힘이 넘친다. 그들은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질병의 정신적 근원을 차단한다. 또한 늘 선한 것을 찾고 구도자의 입장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로서의 사트바는 진정한 건강과 치유의 원천이다.

'라자스'는 내적 평화를 찾기보다는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온다. 라자스는 욕망과 왜곡,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일어난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좇고 탐닉하여 불안정성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통증과 흥분, 그리고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사트바 – 많으면 건강, 영적인 힘 증가
라자스 – 욕망 · 왜곡 등 외적 행복 추구
타마스 – 정신을 보지 못해 자아 격리

'타마스'는 우리의 인식력을 약화시키고 본질을 가리우는 무지로부터 온다. 육체에 매달려 정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인식과 깨달음이 없는 한 우리는 타마스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침체, 퇴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라자스와 타마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며 라자스는 에너지의 지나친 낭비로 결국은 타마스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자극적인 음식, 술, 성생활 탐닉 등은 처음에는 라자스로 시작되어 라자스를 자극하나 결국에는 피로와 에너지의 붕괴로 타마스에 이르게 된다.

이들 세 가지 속성은 다시 여러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색깔로 표현하자면 사트바는 흰색에 비유된다. 깨끗함과 균형을 상징한다. 반면 라자스는 빨간색으로 행동과 열정이 합쳐진 것을 나타내며 타마스는 검은색, 어두움과 망상을 나타낸다. 시간으로 볼 때 사트바는 낮이며 맑음을 상징한다. 라자스는 해뜰 때와 해질 때를 나타내며 타마스는 밤과 어두움으로 대변된다. 에너지는 어떤가? 사트바의 에너지는 중립적이며 균형적이다. 라자스는 적극적, 활동적이다. 반면 타마스는 소극적, 활동 지연을 나타낸다. 세계(world)로 본다면 타마스는 천국, 공간, 평화를 가진다. 반면 라자스는 대기, 폭풍우 지역, 타마스는 지구, 중력권, 무기력이다. 더 나아가 우주의 단계로 살피면 사트바는 이상적, 라자스는 섬세함, 별, 순수한 형태지만 타마스는 천함, 물리적, 육체적이다. 자연계로 볼 때는 타마스는 영적이며 선, 성자를 의미하나 라자스는 인간 세계, 타마스는 동 · 식물로 대변된다. 마지막 의식 상태로 볼 때 사트바는 '깨어있음'이고 라자스는 꿈, 타마스는 깊은 잠의 상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육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올바른 영양소가 필요하다. 마음의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감각 기관을 통해 얻는 경험과 감동들, 나아가 더 깊은 의식세계에 필요한 정신적 훈련 등이다. 그러나 마음의 첫 영양단계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어짐을 알아야 하겠다. ■포천중문의대 교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가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자의 가족사랑
정녕 어떻게 하여야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평화와 행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주요목차〉
Ⅰ. 자녀 사랑의 길
① 집착부터 비워라
② 불교의 자녀 사랑법
③ 자녀를 위한 기도법
Ⅱ. 부모사랑 · 부부사랑
① 효도로 부모사랑을
② 원만한 부부사랑의 길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보왕삼매론 강의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3,500원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3,500원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한 법문집.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한 불자의 필독서 입니다.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일러주고자 총 49가지 이야기로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법공양문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감명깊고 배움 깊은 글 총 45편의 법문을 모아 일타큰스님의 뛰어난 한문솜씨로 글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이해하기 쉽게 엮었습니다.
천수경 천수신앙 혜국스님 지음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일평생을 참선정진에 몰두하신 혜국스님이 선적인 안목으로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엮었다.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보자. 나를 향상시키는 깨달음의 길로 능히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심중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신정 · 반야의 육바라밀 수행은 모든 불교신행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며, 불자들을 향상시켜 업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방법 뿐만아니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여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예불문의 뜻과 함께 삼보 · 부처님 · 보살 · 10대 제자 · 16성 · 오백성 · 제대성중 등의 면모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7,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불자의 살림살이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
〈차례〉
Ⅰ 부처님을 믿는 불자 Ⅱ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정
Ⅲ 복을 가꾸며 사는 불자 Ⅳ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Ⅴ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인도그림기행 33

원시의 삶에 비친 만다라 세계

그림·글 이호신

사탕수수 바람속으로

(기원정사 길목의 여정)

붓다의 다비장(라마브하르 스투파)에서 한국의 절, 대한사로 가는 길.

절 입구에 세운 입간판은 하나를 네 개로 분할했는데 태극기와 대한사(글씨), 인도기와 불기를 하나로 엮은 것이 인상적이요, 특별한 디자인 감각이다.

이역만리 땅에서 1991년에 터를 잡았다는 절은 한 스님(性觀)의 헌신, 한 생을 바치려는 열정으로 가꾸어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돌을 깨는 현지인들. 먼 옛날 인도에서 동해로 흘러온 불교가 이젠 그 흐름을 거슬러 한국인의 의지에 인도인이 동참하는 역사, 다시 만개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꿈!

일행들이 한 동안 불사에 동참하는 사이 절 주변을 둘러보자 저 멀리 담장너머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숨차게 달려가 살펴본 즉 사탕수수 줄기를 끓여 설탕을 만드는 광경이 아닌가.

대나무처럼 곧게 쳐낸 줄기들을 기계 속에 넣어 잘게 분쇄하고 그것을 우물같이 둥근 거대한 돌솥에다 물과 함께 풀고는 불을 때 푹 고는 장면이다. 수공으로 설탕을 만드는 풍광은 그야말로 인도의 체취로 뭉클한데 멀리서 보았던 연기는 사탕수수를 고는, 구름바다 같은 수증기였다.



작업-설탕만들기 (92.5×42.5cm).



사탕수수 (32.5×49cm).

사탕수수는 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수수와 비슷하며 회백색 꽃을 피운다. 줄기에서 짠 즙을 고아 설탕을 만드는데 인도 갠지스강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다. 사탕제조는 물론 이거니와 주스로도 마시는 인도 농경지역의 생계수단 이요, 생필품인 것이다.

이제 기원정사(祇園精舍)를 향해 길을 떠나니 사탕수수의 바람은 어느새 사방에서 몰려온다.

안개와 먼지, 쇠똥과 목가, 만다라의 삶과 예술, 성자와 걸인, 경적과 침묵, 원시의 풍경과 삶이 묻어나는, 시간을 잃은 신의 나라에 더 하여 '사탕수수의 나라' 로 부르고 싶은 인도.

광활한 대지에 끝간데없이 펼쳐지는 초원은 어김없이 사탕수수의 물결로 하늘 향해 손짓하는 수직과 수평의 상응(相應). 바람이 어지러이 훼방을 놓는 만큼 더 웃자라는 진초록의 향연, 실로 거침없는 대지의 노래여.

앞을 보니 또 사탕수수의 진군. 트럭 위로 쌓을 수 있는 데 까지 높힌 사탕수수 더미는 예전 데칸고원을 지르며 마주쳤던 우마차의 장엄과는 또 다른 감동이다. 백미러가 무용지물임은 당연하고 저 위태로운 덩치와 키로써 질주하는 사탕수수의 진용(陣容)을 대체 무엇으로 막으랴.

군데군데 마을마다 드러나는 사탕수수 기계는 집집마다 등불 같고, 길 주변 호수에 비친 풍광은 길 따라 대지와 하늘을 바꾸어간다. 거꾸로 보는 세상, 인식의 일탈.

염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쇠똥으로 온통 외벽을 치장한 듯한 ㄱ자 집들이 즐비 한데 우람한 고목에 빈대떡처럼 붙여놓은 쇠똥. 그 나무 뒤에 숨어 손을 흔드는 붉은 사리의 소녀.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쓴 새카만 아이들이 열지어 가다 손을 흔들어 주면 마치 무슨 함성을 지르듯 반기며 눈빛이 반짝인다. 어느 생인가 한번쯤은 마주했을 인연이련가.

이제 저무는 언덕 햇살 속에 쇠똥을 거두는 아낙들. 그 쇠똥을 소쿠리에 이고 둑길로 걸어오는 소녀들. 어릴 때부터 쇠똥을 분료로 여기지 않고 생활자원으로 인식하여 살아온 저들에게 나그네는 마냥 이방인일 뿐이다. 긴 막대를 이용하여 숲 속에서 망고를 따는 늙은이의 주변에 검은 소. 한 쌍의 왜가리가 그 소등에 올라타 펄럭이며 나래 펴는 장면이라니...

한국·인도인이 하나된 대한사 불사 현장

거침없는 대지에 펼쳐진 진초록의 향연

인종과 국경, 그 장벽을 넘어 인간본연의 가슴으로 흘러들고 나는 반가움과 그리움 앞에서 나그네는 절망한다. 차마 붓끝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공허감에서 부르고 싶은 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 1805). 그가 만약 이곳을 지났다면 어찌 했을까.

촌철살인(寸鐵殺人), 포복절도(抱腹絶倒), 아포리즘(aphorism)의 달인인 연암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여행의 기록이지만, 거기에 담긴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과의 '찐한' 접속이고, 침묵하고 있던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발견의 현상이며, 새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경이의 장이다. 주체도 대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렬한 흐름만이 범람하는 광야 혹은 평원. 때론 더할 나위 없이 경쾌한가 하면, 때론 장중하고, 또 때론 한없이 애수에 젖어들게 하는 , 마주치는 것마다 강렬한 악센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공간적 편력, 그것이 『열하일기』다." (고미숙)

그는 또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고 하였거니와 내 어찌 코앞의 생(生)을 놓고 여행기나 풍문에 빗대어 그려갈 수 있을까. 차라리 무지의 소치를 범할지언정 그림자 흉내는 거두어야 하리. 따라서 연암은 내게 절망과 함께 용기마저 선사한다. 인도의 생생한 기류 속에 자신을 던지라고, 그냥 너의 붓을 들라고.

잠시 지나온 풍광이 상념 속에서 아릿한데 이번엔 코끼리의 행차다.

가로수를 정비하는 용역을 사람이 아닌 코끼리에게 맡긴 셈인가. 코를 높이 들어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코로 감아 자르는 일이 너무도 신통하다. 드물게 보는 장면이라 차를 내려 다가가니 코끼리를 탄 주인이 서커스 흉내를 낸다. 루피를 의식한 탓에.

그 광경이 가상하여 루피를 내밀자 코끼리가 날름 코로 받아 말아 올려서는 주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가. 모두들 영물이라고 찬탄하며 변절의 세상에서 모처럼 주인을 위해 사는 '충직' 을 떠올려야 했다.

서서히 잦아드는 어두움. 사탕수수도 칼바람으로 날이 서 가는 시간, 아기를 앞가슴에 품고 짐을 머리에 인 아낙이 귀로를 재촉하고 있다. 그 어둠 속에서 눈썰매를 끌 듯 형이 등에 줄을 매 동생을 태우고 들길을 가는 정다운 모습이 또 아슴푸레 하다.

마침내 종일을 달려온 여정의 끝, 숙소에 이르는 시간. 복작거리는 간이 시장은 어느새 불빛으로 출렁이는데 과일을 사러 둘러보니 사탕수수 즙을 짜서 파는 상인들이 눈에 띈다. 인도의 사탕수수는 사방천지, 밤낮으로 그 바람이 잦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최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좌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위더스에서는 세계최초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로봇컴을 개발 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학생 및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 입니다. 스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영어 학습법으로 첫째 "청취력" 둘째 "따라하기" 셋째 "대화하기"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 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뉴지니컴은 명령에 따라 학습하며 1단계(Listening mode)리스~닝 모드는 귀 뚫기 과정으로 영어를 많이 들어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하여 "청취력"이 향상되며 2단계(Excercise mode)엑써~싸이즈는 입을 열어주는 과정으로 영어를 한문장씩 듣고 따라하며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수정해주며 잘하면 엑설런트하며 칭찬합니다. 3단계(Dialoguc mode)다이얼~로그는 스님께서 뉴지니컴과 한문장씩 1:1로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영어 학습 기능모드가 다양하게 많은 뉴지니컴은 영어선생이자 미국인 친구와 같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스님께서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외국연수를 방불케 하는 생생한 영어학습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포교의 세상이 열립니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